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2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로크 『인간지성론』

김 상 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2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로크 『인간지성론』

김 상 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이태수

심재룡

김남두

김영정

허남진

윤선구(주간)

발 간 사

2002년 8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전임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실을 지난해에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전14호로 묶어낸 데 이어, 이제 제2차 년도 연구결과 총서를 별책 제3권으로 엮어 내며, 아울러 제2권 몇몇 호의 보정판을 함께 펴낸다.

박사 전임연구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연구팀은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 주요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근간 개념들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설해 나가는 한편, 철학 지식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작업의 일차적 성과물로서 이 연구 총서를 펴냄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서양어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철학 고전의 텍스트들을 한국어 표준 판본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상식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오늘날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 연구가가 나누어 맡아, 우선 각자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어서 저작의 골격을 이루

는 중심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위계도를 만든 후,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사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우선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는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 사회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센터장 ·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구책임자

백 중 현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김 상 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머 리 말

로크의 『인간지성론』은 이후 버클리, 흄으로 이어지는 영국 경험론의 체계적 시작이자 동시에 칸트에게로 전승되는 비판 철학의 효시이기도 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 지식의 한계와 범위를 확정짓고자 하였고, 또 우리가 근거 없는 태만함에 사로잡혀 월권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비록 데카르트보다 늦었지만, 데카르트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근대의 철학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로크의 『인간지성론』에 대해 그 목차까지 조목조목 따라가면서 반박하는 책인 『신인간지성론 *New Essay on the Human Understanding*』을 썼다. 물론 라이프니츠가 로크의 논증이 자신의 논증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을 리는 없다. 또한 여기에서 라이프니츠의 논증이 로크의 논증보다 우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대의 어떤 한 시기를 살았던 위대한 두 철학자가 두툼한 책을 통해 상호 논쟁하였다는 사실과 그 논증의 시작이 된 책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에 따르자면 나는 칸트 전공이다. 좀 더 넓히자면 독일 이상주의 철학이 나의 주된 관심사이며, 이 시대의 철학을 중심으로 현대의 철학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 로크의 『인간지성론』은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특히 상식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입장은 소박하다는 느낌마저 줄 때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철학사적 의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철학적 문제 의식을 가지지도 못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연구서 내용의 보잘 것 없음을 미리 방어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런 방어는 나 자신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독자들의 냉정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함이다.

로크는 『인간지성론』을 통해 당대인들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난제로 다가오는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본유 관념에 대한 비판, 성질과 힘 그리고 실체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인간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논증하였다. 본인의 연구 역량의 한계로 인해 너무나도 미진하게 다루어진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닿는 대로 수정·보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는 바이다.

이 연구 작업을 시작하고 이제 끝마치는 시점에 이르는 지난 1년간은 나에게서는 아마 인생에서 다시 맞이하기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객관적인 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매달 지급되는 연구비로 경제적인 여건 역시 과거에 비하면 안정되었다. 하지만 학문적·정신적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피폐함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런 저런 일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고민 자체에 침잠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마 연구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연구를 책임지시는 백종현 교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질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철학 고전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은 기대와는 달리 쉽지 않았다. 구경꾼으로 1년을 보낸 뒤 2년차에 뛰어들 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내용은 영 판판이었다. 적절히 참고할 만한 번역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디지털 텍스트를 만드는 일은 종래의 해설서나 연구서와는 전혀 다른 연구와 서술 방식을 요구하

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그 동안 그리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어 본 기억이 없는데, 이제 작업을 마치고 연구서를 내놓는 이 시점에서조차 앞으로는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최초로 시도되는 이 연구 계획이 모쪼록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철학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기초 자료는 물론 연구 자료로서도 높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4년 5월 25일
관악산 연구실에서 김상현

목 차

제1부 『인간지성론』의 저자 및 작품 해제	1
I. 로크의 생애	1
1. 로크의 생애 요약	1
2. 생애 해제	1
3. 로크 연보	9
II. 『인간지성론』 해제	10
1. 『인간지성론』 해제 요약	10
2. 『인간지성론』 해제	11
3. 『인간지성론』의 내용 체계	16
4. 『인간지성론』 주요 토픽 정의	19
(1) 인식	19
1) 인식 능력	19
2) 인식 능력의 범위	19
(2) 본유 관념	20
1) 본유 관념 비판	20
(3) 관념	20
1) 단순 관념	21
2) 성질	21
3) 복합 관념	22
4) 양태의 복합 관념	22

5) 실체의 복합 관념	22
6) 관계의 복합 관념	23
(4) 언어	23
(5) 지식	24

제2부 지식 지도 25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25

○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25
○ 철학자 : 로크	26
○ 철학 용어: 본유 관념	28
○ 철학 용어: 관념	29
○ 철학 용어: 단순 관념	30
○ 철학 용어: 복합 관념	31
○ 철학 용어: 성질	32
○ 철학 용어: 언어	33
○ 철학 용어: 지식	34

II. 『인간지성론』의 지식 지도 35

1. 인식	35
2. 본유 관념	36
3. 관념	37
4. 언어	41
5. 지식	41

제3부 『인간지성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43
I. 서 론	43
1. 인식 능력의 범위 탐구	43
(1) 탐구의 목적	43
(2) 탐구의 방법	45
(3) 탐구의 유용성(1)	47
(4) 탐구의 유용성(2)	48
(5) 탐구의 경험주의적 원리	49
(6) 인식 능력	51
1) 인식 능력들의 설명 위치에 대한 해명	51
2) 지각	52
① 감각과 지각	53
② 마음의 수동성과 능동성	54
3) 파지(retention)	54
① 파지와 상상력	55
② 파지와 시간 의식	56
4) 식별(discerning)	56
① 기지(機智, wit)	57
② 판단	57
③ 기지와 판단	58
④ 비교	59
⑤ 복합(compounding)	60
⑥ 명명(naming)	60

⑦ 추상(abstracting)	61
⑧ 명명과 추상	62
⑨ 명명과 보편자의 문제	63
5) 지성(Understanding)	63
① 지성과 지각	63
② 지성은 암실이다.	64
6) 지식의 시초	65
II. 본유 관념 비판	66
* 로크가 본 본유 관념설	66
* 본유 관념에 대한 로크의 구분	67
1. 본유적·사변적 원리 비판	68
(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	68
(2) 이성 사용에 의거한 논증 비판: 경험적 반박	70
(3) 이성 사용에 의거한 논증 비판: 논리적 반박	71
(4) 이해 가능성에 의거한 논증 비판	72
2. 본유적·실천적 원리 비판	74
(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	74
(2) 도덕성의 기원에 의한 비판	75
(3) 획득 방식에 대한 비판	76
3. 그 밖의 본유 관념에 대한 비판들	77
(1) 관념의 기원에 대한 비판(1)	77
(2) 관념의 기원에 대한 비판(2)	78

(3) 동일성의 원리 비판	79
(4) 전체와 부분 관념 비판	80
(5) 신 관념 비판	81
1) 신 관념에 대한 경험적 반박	81
2) 신 관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	82
(6) 실체 관념 비판	82
III. 관념	85
1. 관념의 정의	85
2. 관념의 원천	86
(1) 감각	88
(2) 반성	89
3. 관념 획득의 시작	90
4. 관념의 종류	91
(1) 단순 관념	92
1) 단순 관념의 정의	92
2) 단순 관념의 종류	93
① 감각 관념	94
② 반성 관념	94
③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	95
3) 단순 관념의 특징	96
(2) 성질	96
1) 성질의 정의	96

2) 성질의 구분	97
① 제1성질	98
② 제2성질	99
③ 제3성질	100
3) 성질들의 비교	100
4) 성질들과 관념의 상호 유사성	101
5) 대응설	103
6) 표상적 실재론	104
7) 관념의 원인	104
8) 관념과 주관성	105
(3) 복합 관념	106
1) 복합 관념의 정의	106
2) 마음의 작용에 따른 복합 관념의 종류	107
3) 대상의 측면에서 본 복합 관념의 종류	108
4) 양태의 복합 관념	108
① 양태 관념의 정의	108
② 양태 관념의 종류	109
5) 단순 양태 관념들	110
① 공간	110
①-1. 물체와 연장	110
② 지속	112
③ 수	112
④ 무한성	113

④-1. 공간의 무한성과 무한 공간	114
④-2. 적극적 무한과 소극적 무한	115
⑤ 감각, 사고, 감정의 단순 양태들	116
⑥ 힘	116
⑥-1. 수동적 힘	117
⑥-2. 능동적 힘	118
6) 혼합 양태	119
① 혼합 양태의 정의 및 특성	119
② 혼합 양태와 이름	119
③ 혼합 양태의 형성 이유	120
④ 혼합 양태의 획득 방식	121
7) 실체의 복합 관념	122
① 실체 관념의 정의	122
② 실체 관념의 형성	122
③ 물체	123
③-1. 물체와 힘	124
③-2. 집합 실체와 개별 실체	125
④ 실체의 종류	127
⑤ 정신 실체와 힘	128
⑥ 정신의 관념과 물체의 관념 비교	129
⑥-1. 실체와 인식 가능성	129
⑦ 신의 단순성과 신 관념의 복합성	130
8) 관계의 복합 관념	131

① 관계 관념의 정의	131
② 관계 관념의 특징	132
③ 인과성	132
④ 창조, 발생, 제작, 변화	133
⑤ 동일성	134
⑤-1. 실체들의 동일성	134
⑤-2. 인간의 동일성	135
⑤-3. 인격의 동일성	135
⑥ 명석 판명한 관념과 애매 혼란한 관념	136
⑦ 실재적 관념과 상상적 관념	137
⑧ 적합한 관념과 부적합한 관념	138
 IV. 언 어	138
1. 관념의 표지로서의 언어	138
(1) 언어의 필요성과 임의성	139
(2) 부정어와 관념의 관계	140
(3) 불변화사	140
2. 언어의 불완전성	141
(1) 대상, 관념, 낱말의 대응	141
(2) 복합 관념과 낱말의 대응	142
(3) 언어의 오용	143
3. 언어와 보편성의 문제	144
(1) 일반 용어와 추상 작용	145

(2) 일반용어와 객관성	146
(3) 추상 작용과 본질	146
1) 본질	146
2) 실재적 본질	147
3) 명목적 본질	148
4) 추상 작용과 명목적 본질	149
V. 지식	150
1. 지식 일반	150
(1)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	150
(2) 실재적 대상과의 일치 여부	151
2. 지식의 등급	151
(1) 직관적 지식	151
(2) 논증적 지식	152
(3) 직관적 지식과 논증적 지식	152
(4) 감각적 지식	153
3. 지식의 범위	154
(1) 동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확장	154
(2) 공존에 관한 지식의 확장	155
1) 과학적 지식의 한계	155
(3) 관계적 지식의 확장	156
(4) 사물의 존재에 관한 지식	157
4. 지식의 확실성	158

(1)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	159
(2) 도덕적 지식의 확실성	159
(3)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실성	160
(4)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	161
(5) 판단	161
(6) 개연성	162
(7) 이성과 신앙	163
 참고문헌	 164

일·러·두·기

1. 이 연구서를 위해 Peter H. Nidditch가 편집하여 1975년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한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을 기준 판본으로 사용하였다.
2. 원문인용시 『인간지성론』은 별도의 책명을 기재하지 않고, ‘(책수, 장수, 절수)’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Ⅲ, 2, 3)’은 ‘『인간지성론』의 제 Ⅲ권 2장 3절’을 의미한다.
3. 기타 인용된 참고 문헌은 ‘(저자명, 책명, 면수)’로 표시하거나 관행적으로 쓰이는 약어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문헌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인용시 생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5. 인용시 필자의 첨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 첨가 문구]’로 표시하였다.

제1부 『인간지성론』의 저자 및 작품 해제

I. 로크의 생애

1. 로크의 생애 요약

브리스틀 근교의 링턴 출생. 계몽 철학 및 경험론 철학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아버지는 소지주·법률가로서 내란 때는 의회군에 참가하여 왕당군과 싸웠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자연과학·의학 등을 배웠고, 한때 공사(公使)의 비서관이 되어 독일 체류 중에 애슬리경(뒤의 샤프츠베리 백작)을 알게 되어 그의 시의(侍醫) 및 아들의 교사 그리고 고문이 되었다. 백작이 실각되자 반역죄로 몰려,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가, 1689년 사면되어 귀국하였다. 망명 생활 동안 각지를 전전하면서 여러 학자들과 친교를 맺고, 귀국 후 『종교 관용에 관한 서한』(1689) 『제2서한』(1690) 『제3서한』(1692) 『통치론』(1690) 『인간지성론』(1690) 등을 간행하여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그 후 관직에 있었으나 1700년 이후 은퇴하여 에식스의 오즈에서 사망하였다.

2. 생애 해제

존 로크(John Locke, 1632 ~ 1704)는 1632년 영국 서미셋(So-merset) 주의 링턴(Wrington)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해는 곧 발발할 내전에서 처형당할 운명의 찰스 1세의 지배가 7년째 되는 해였고, 흠스가 아직 그의 주요 저작을 완성하기 전이며, 스피노자가 태어난 해이기도 했다. 그가 태어난 작고 초라한 생가는 그의 외가였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무역 활동을 하는 소규모의 지주였고,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하급 법원의 관리였다. 종교적으로는 청교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가정교육이 엄격하고 경건하

였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내전 당시 의회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는데, 로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상관이자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던 포프햄(Alexander Popham)의 후원에 힘입어 웨스트민스터 학교(Westminster School)에 들어가게 되었다. 로크는 1652년에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Christ-Church College)로 진학하였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줄곧 연구원으로서 그곳에 머물렀다. 로크는 어느 정도 자질도 갖추고 있었기에 성직자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안정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당시 전통적인 스콜라 학파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옥스퍼드 대학의 학풍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로크는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기술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그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여하튼 옥스퍼드에서 로크는 히브리어 및 아랍어 문헌을 포함하여 고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학장이자 당시 부총장이었던 존 오웬은 관용(toleration)을 옹호하던 독립파의 신학자였다. 그런데 로크는 관용에 대해서는 오웬에 공감하였고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를 포함하여 비국교도이던 유력한 인사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신학상으로 그는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플라톤주의자들과 그 계승자인 범교파주의자들(Latitudinarians)로 대표되고 네덜란드에서는 아르미니우스파(Arminians)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학파에 가장 친근감을 느꼈다. 철학에 대한 로크의 관심은 데카르트의 저작들에 의해 일깨워졌고, 또한 로버트 보일(Robert Boyle)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자연과학적 소질을 계발하였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로크 역시 당대 자연과학의

새로운 경험적 방법의 성공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학 특히 의학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1667년 개업 외과 의사로 되었던 로크에게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간 종양으로 몸져 누워있던 애슐리 경(Lord Ashley)의 외과 수술을 집도하였던 것이다. 이 수술은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었음에도 로크는 이를 훌륭히 완수하여 애슐리 경의 생명을 구하였다. 애슐리 경은 후일 샤프츠베리 백작(Earl of Shaftesbury)이 된 인물로서, 이후 30년 간 파란만장한 영국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로크의 삶도 자신의 후견인의 삶을 따라 굴곡의 연속을 이루게 된다. 수술을 계기로 로크는 애슐리 가의 고문 의사직을 제의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런던에 있는 애슐리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로 인해 로크는 정계의 중심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애슐리 가에서 의사 이상의 직분을 떠맡게 되었고, 애슐리 경이 관여하고 있던 많은 정치적 활동에 관해 조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672년에 애슐리 경이 샤프츠베리 백작의 작위를 받고 대법관이 되자 로크는 성직록 담당 서기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샤프츠베리가 의장으로 있던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의 서기가 되었다.

옥스퍼드에 있던 시절에도 이미 로크는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러브리스 소장본에 수집된 여러 편의 논문 초고와 단편들을 보면 초기 로크 사상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다. 왕정 복고기이던 당시 로크가 다룬 첫 번째 주제는 종교문제에 대한 시민 행정관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비국교도 집단들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종파주의자의 견해에 맞서 신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은 ‘무관한 사항’에 관한 한 전적으로

시민행정관의 권위를 옹호하였다. 로크는 시민행정관이 가진 권위는 시민사회, 나아가 정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자연법과 이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그 후 몇 년 동안 자연법 자체의 성격과 인간이 어떻게 하여 자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가라는 문제에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강의도 하고, 그 주제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라틴어로 저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초기의 시민 행정관에 대한 단편과 마찬가지로 이 논문들 역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자연법과 그것에 근거한 정부는 일생 동안 그의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1667년에 로크는 『관용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oleration*)을 저술하는데,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마도 새프츠베리와 교분을 맺고 있었던 데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후일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훨씬 정교한 형태로 제시된 견해의 실체를 이 글을 통해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글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관용에 관한 시론』에서 정치 권력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 성원들의 선(善),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목적이 정부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논문에서 로크는 또한 절대 군주제의 관념을, 그것이 왕권 신수설에 근거하든 아니면 인민의 양도에 의해 기원한다고 주장되든, 거부하였다.

로크는 몸이 약한 편인 데다가 직무상 복잡한 정치적 업무의 압박에 시달려 건강을 해칠 지경에 이르렀다. 1675년에 그는 해외여행을 결심하고 그후 3년 반 동안 프랑스를 여행한 후 1679

년 4월말에 런던에 돌아왔다. 찰스 2세의 동생이자 카톨릭 교도인 요크 공 제임스(James Duke of York)를 왕위계승에서 배제하려던 “배척 법안”(Exclusion Bill)을 둘러싼 위기가 극에 달하였던 1679년에 다시 한번 새프츠베리의 비서직을 일시적으로 맡게 된다. 1679년에 이르러 찰스 2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새프츠베리의 반대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배척 위기’의 기간이던 그 다음 4년 동안 그는 왕정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정치 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는데, 그것은 국왕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선출된 하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찰스 2세의 카톨릭 교도 동생인 제임스를 왕위 계승에서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건강이 악화되어 런던을 떠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로 돌아갔다. 그후 2년간은 가끔씩 런던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줄곧 옥스퍼드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그 동안 새프츠베리는 찰스 2세의 서자인 몬머스(Monmouth) 공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 권력 투쟁에서 찰스 2세가 승리하자 새프츠베리를 포함한 반대자들은 네덜란드로 피신해야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1683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로크의 초기 전기 작가들은 새프츠베리의 음모에 로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반란과 혁명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후일 『통치론』으로 출판된 저작도 원래는 새프츠베리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그 당시에 구상,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하튼 그와 새프츠베리 간의 정치적 공감과 교분이 세간에 잘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그가 의심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자신의 언행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로크는 자신의 후원자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로 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결심하였고, 1683년 9월에 로테르담으로 피신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유죄임을 시인한 것으로 받

아들여졌으며, 1684년 11월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그의 직위를 박탈하였다. 이듬해 몬머스 공의 반란이 진압된 후, 로크도 그 음모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중에 사면령이 내려진 후에도 로크는 계속 네덜란드에 남아있기로 결심하였으며, 1688년 명예 혁명이 성공하여 윌리엄(William) 공이 영국에 입성하고 찰스 2세가 영국을 탈출하고 난 뒤인 1689년 2월 메리(Mary) 공주를 호송하는 배에 동승하여 귀국할 때까지 그곳에 줄곧 머물렀다.

네덜란드에 머무는 기간 동안 로크의 건강 상태는 매우 호전되었고, 따라서 그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와 저술에 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쌓게 되었다.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관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로크는 이미 그 주제에 대해 확고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로크는 1685년 말에서 이듬해 초에 이르는 겨울 동안 자신의 네덜란드인 친구이자 신학자인 림보르치(Limborch)에게 라틴어로 쓴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은 1689년 4월에 『관용에 관한 서한』(*Epistola de Tolerantia*)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서한의 영문판은 같은 해 10월에 유니테리언 교도이자 상인인 윌리엄 포플(William Popple)에 의해 익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유명한 서문은 이때 포플이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에서 체재하는 동안 로크는 아마도 이미 여러 해 동안 몰두하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그의 저작인 『인간지성론』(*Th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의 집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종교적 관용에 관한 로크의 생각은 이미 옥스퍼드 시절에서부터 가다듬어진 것이지만 이를 출판하게 된 계기는 카톨릭을 신봉하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프랑스와 북유럽의 개신교를 압박하

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1685년 낭트 칙령의 폐지와 프랑스에서 위그노 교도들에 대한 전면적인 종교적 박해,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직면하여 로크는 『관용에 관한 서한』을 통해 종교적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글에서 로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실한 믿음과 참된 경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특정한 방식을 어떤 정부도 개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됨을 역설하고 있다. 로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없으며, 지배자나 국가가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한다. 권력의 정당한 행사는 인간 세계의 재화와 이익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신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로크의 사상은 오늘날에는 거의 상식처럼 들리지만, 신교국이든 카톨릭국이든 상관없이,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간에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던 당시 유럽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종교적 관용과 관련하여 현대의 독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로크에게 종교에서 관용의 권리는 무신론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로크가 말하는 관용은 신과 개인간의 관계의 직접성을 옹호하려는 것이지 이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로크에게 무신론자들은 다른 인간 동료들에게 위험을 가져다주는 사악한 운명의 뿌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종교적 관용에 관한 로크의 주장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국에 귀국한 후 로크는 1689년에 익명으로 『통치론』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간지성론』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로크 자

신이 애써 숨기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론』의 저자가 로크일 것이라는 추측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전에 아무 것도 출판한 적이 없으며 새프츠베리의 비서로서 일개 사인(私人)으로 남아 있던 로크는 서양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인간지성에 관한 시론』을 비롯한 일련의 저작들의 출판과 더불어 그리고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친한 친구들이 정계의 고위직에 취임함에 따라 마침내 57세 이르러 ‘영광된 만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로크는 자신이 학계와 정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브란테부르크 선제후의 대사직을 제의 받기도 하였다. 그는 이 제의를 건강을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물품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관의 직위는 수락하였고, 1696년에는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의 감독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건강상태로는 그 직책이 요구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사임하고 에식스주 하이 레이버 근처의 오츠에 있는 프랜시스(Francis) 경의 저택으로 은퇴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1704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연구와 저술활동을 계속하여 『인간지성론』의 개정판을 출간하였으며, 『관용에 관한 서한』을 옹호하기 위해 그 비판자인 옥스퍼드 퀸즈 칼리지의 조너스 프로스트(Jonas Proast)와 장기간에 걸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교육과 경제 문제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말년에 로크의 주된 관심사는 신학으로서 1695년에 그는 『기독교의 합리성』(*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이라는 제목의 책을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로크의 최후 저작은 그의 사후 출판된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서한들을 주해한 글이다. 그의 임종에 이르러 마침내 로크는 익명으로 출판된 자신의 모든 저작들에 대해 자신이

저자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였다.

3. 로크 연보

- 1632 서머셋 주 링턴에서 출생 (8월 29일)
- 1642 영국 내전의 발발
- 1647-52 웨스트민스터 학교 재학
- 1649 찰스 1세의 처형
- 1649-60 크롬웰 공화 정권 수립 및 지배
- 1652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
- 1655 학사 학위 취득
- 1658 석사 학위 취득
- 1660 로버트 보일을 만남
- 1660 왕정 복고와 찰스 2세의 즉위
- 1660-61 시민 행정관에 대한 단편적 논문들을 집필
- 1660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 어 강의
- 1662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사학 강의
- 1663-64 『자연법에 관한 시론』들을 집필
- 1665 브란덴부르크 대사의 비서
- 1667-81 애슬리 경(후일 새프츠베리 백작)의 고문 의사이자 비서
- 1668 왕립 협회 회원으로 임명
- 1668-75 캘로라이나 지주 및 귀족 연합의 비서
- 1671 『인간지성론』 집필 착수
- 1672 애슬리 경이 새프츠베리 백작의 작위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 로크 역시 성직록 담당 서기에 임명
- 1673 새프츠베리 백작, 카톨릭에 반대해 파면됨. 로크 역시 성직록 담당 서기 직위에서 물러남
- 1673-75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 비서

- 1674 의학 학사 학위 취득
- 1674 옥스퍼드에서 의학 연구원으로 임명
- 1675-79 프랑스 여행
- 1677-78 새프츠베리 백작, 반국왕적 언행으로 인해 투옥
- 1683-89 네덜란드로 망명
- 1684 왕명에 의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교수 자격 박탈
- 1688 명예 혁명 발발
- 1689 메리 공주를 수행하여 영국에 귀국
- 1689 『관용에 관한 서한』, 『통치론』 출판
- 1690 『인간지성론』 출판
- 1693 『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 출판
- 1695 『기독교의 합리성』 출판
- 1696-1700 무역 위원회 감독관
- 1704 에식스 주 하이 레이버, 오즈에서 사망 (10월 28일)
- 1705-07 『사도 바울의 서한에 대한 주해』(전6권) 출판

II. 『인간지성론』 해제

1. 『인간지성론』 해제 요약

『인간지성론』에서 로크는 인간 지식의 범위, 확실성 그리고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전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본유 관념에 대한 비판, 제2권은 자신의 관념(경험관념)에 대한 해명, 제3권은 언어, 제4권은 지식과 믿음 그리고 의견에 대해 다룬다. 『인간지성론』의 중심 주제는 역시 그의 관념

설에 있다. 데카르트의 위대한 합리론 철학의 본유 관념설에 대해 태만함의 소치라고 생각하는 로크는 모든 지식이 감각과 반성에서 유래함으로 역설하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가진 관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경험론 철학을 전개한다.

2. 『인간지성론』 해제

로크의 『인간지성론』은 근대 철학의 효시로 간주되는 데카르트 철학과 I. 뉴턴에 의해 완성된 당시의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을 토대로 등장한 저서이다. 그의 『인간지성론』은 이후 G. 버클리, D. 흄으로 계승되는 영국 경험론의 출발점을 이루는 동시에 인간 지식의 범위와 한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I. 칸트를 예비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서는 본유 관념설에 대한 비판을, 2권에서는 관념의 문제를, 3권에서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4권에서는 지식의 확실성과 범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유 관념설을 비판하는 제1권에서 로크는 본유적 원리를 사변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로 구분하고, 이 원리들은 사실상 아무런 경험적 증거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런 연후에 그는 실체의 관념, 신의 관념, 도덕률의 관념 등 대표적인 본유 관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는데, 이들 관념들은 나중에 복합 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제2권에서는 관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는 관념을 크게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관념은 단순 관념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단순 관념을 얻는 경로는 감각과 반성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로크에게 본유 관념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경험 관념만이 있을 뿐이다.

단순 관념은 대상의 성질에 대한 관념인데, 로크는 대상의 성질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모양, 수, 크기 등 대상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하는 것을 로크는 ‘제1성질’이라고 부른다. 둘째, 색, 소리, 맛 등 대상이 가진 힘이 감각 기관과의 관계에서 변양되어 우리에게 관념을 야기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제 2성질’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은 경우, 우리가 갖게 되는 소금에 대한 관념(가용성)을 야기시키는 성질을 ‘제 3성질’로 분류한다. 이러한 성질 분류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어떤 성질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힘이 ‘실체’ 관념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로크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종의 표상적 실재론 또는 간접 실재론의 입장이 실체와 성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복합 관념을 다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양태 관념, 실체 관념, 관계 관념이 그것이다. 양태 관념은 “아무리 복잡되었더라도, 단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그 속에 포함하지 않고, 실체에의 의존물 혹은 성질이라고 생각된 그러한 복합 관념”(Ⅱ,12,4)을 말한다. 이 양태 관념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어떤 다른 관념의 혼합이 없이 같은 단순 관념의 다른 결합 혹은 변화일 뿐인 어떤 것, [...] 이것들은 단순 관념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나는 단순 양태라고 부른다. 둘째로 하나의 복합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몇몇의 서로 다른 단순 관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관념들이 있다.[...]이런 것들을 나는 혼합 양태라고 부른다.”(Ⅱ,12,5)

실체의 관념은 “단순 관념들이 어떻게 단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들 단순 관념들이 그 속에 존속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가정하게끔 익숙해지기 때문”(Ⅱ,23,1)

에 등장한 복합 관념이다.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세 가지 종류의 실체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신, 유한정신, 물체가 바로 그것이다. 물체에 관해서는 상기한 실체 일반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신에 대한 관념도 역시 로크에게는 우리가 가진 다른 종류의 관념들 예를 들어 지속, 무한, 행복, 쾌락 등등의 관념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관념, 즉 신의 관념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정신실체 역시 실체 일반과 마찬가지로 단순 관념을 야기한다고 가정되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기체를 말한다. 다만 정신 실체의 경우에는 단순 관념이 아니라 정신 작용들의 기체라고 상정된 그 무엇을 지칭한다.

관계의 관념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념이다. 이 관념은 사물들의 실재적 존재에는 포함되지 않고 외래적이고 다시 덧붙여진 관념에 불과하지만, 흔히 이 관념이 속하는 실체들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더 판명하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관계 관념이든 이 관념은 모두 단순 관념에서 유래하고 단순 관념을 벗어날 수 없다.

제3권에서는 언어와 말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서 로크는 언어 또는 낱말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낱말은 소리들이나 관념들의 자연적 연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낱말은 관념의 감각적 표지 또는 기호이다. 셋째, 낱말(또는 낱말의 기호)은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우리의 관념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로크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므로 하나의 낱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어떤 기호를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적 규약에 맡겨져 있다. 반대로 적절한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소리라 할지

라도 그것이 단지 앵무새에 의해 그 소리만 모방되고 있을 뿐 어떠한 관념과도 상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 또는 낱말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또는 낱말은 언제나 상응하는 관념의 임의적 표지이다.

로크는 보편자(Universal)에 대한 우리의 관념 또는 말이 경험적 유용성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감각은 무수히 많은 관념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각각을 매번 다른 것으로 명명하자면, 무한히 많은 이름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음은 동일한 혹은 매우 유사한 관념을 각각의 존재물로부터 추상하고, 이렇게 추상된 관념에 대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상기한 난점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보편자다. 따라서 로크는 중세부터 이어 온 보편 논쟁과 관련하여 유명론의 입장을 견지한다. 즉 그에 따르면 보편자란 단지 명칭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4권에서는 지식의 확실성의 정도, 지식의 범위 등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지식을 직관적 지식, 논증적 지식, 감각적 지식으로 구분한다. 로크가 직관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수학적 지식이다. 수학적 지식은 두 관념들의 일치나 불일치를 오직 그 자체로 지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일견 그의 경험론적 전제들과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의자가 아니고 책상이다’는 관념은 언어를 오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잘못된 지각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 $2+3=5$ ’라는 관념은 언어의 오용이 아니라면, 틀릴 수가 없다. 마치 데카르트의 주장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근거는 다르다. 지식의 원천을 관념으로 보는 로크에게 오직

관념 그 자체만의 일치와 불일치에 의해 진위가 결정되는 수학적 지식만큼 확실한 지식은 없다.

수학적 지식 다음은 논증적 지식이다. 로크가 생각하는 논증적 지식은 수학적 추론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과 같다’는 명제는 삼각형에 대한 관념과 직각에 대한 관념 그리고 합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다. 즉, 최소한 1단계 이상의 관계 관념이 필요하다. 이는 전형적인 논리적 추론인 삼단 논법이 언제나 매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따라서 직관적 지식인 수학에 비해 관념들의 일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증적 지식은 그 만큼 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가장 하위 등급은 감각적 지식이다. 감각적 지식은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 감각을 통해서 관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념들의 일치 여부는 사실상 자신들의 과거 관념과 현재 관념의 일치 여부가 된다. 그런데 감각적 지식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관념들의 일치 여부가 지식의 근거라는 주장에 고려해 볼 때, 감각적 지식은 원천적으로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 관해서 설사 양보한다하더라도 감각적 지식은 과거 관념과 현재 관념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착각이나 오류 판단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증적 지식에 비해 확실성이 분명히 낮은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을 세 등급, 즉 직관적 지식, 논증적 지식, 감각적 지식으로 분류한 로크는 과연 지식의 확장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우리가 관념들을 가진다는 것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없다”(IV,3,1)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과 반성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로크가 『인간지성론』에서 이러한 논증을 하는 이유는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이다. 로크가 탐구의 목표로 정한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범위에 대한 탐구’는 훗날 칸트에 의해 ‘비판’(Kritik)으로 계승된다. 칸트는 ‘비판’이라는 말로 ‘인식 능력의 원천과 한계를 판정함’(KrV, B25)을 의미했다. 비록 칸트가 로크의 경험주의를 벗어나 초월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견지에서—칸트는 지식이 본유적(innate)임은 부정하였지만, 인식 능력이 선험적(a priori)임은 인정하였다—‘인식 능력의 원천과 한계’를 논하기는 하였지만, ‘비판’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분명히 로크로부터 계승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3. 『인간지성론』의 내용 체계

제1권. 본유 관념에 관하여

- 1장. 서론: 인식 능력의 범위 규정
- 2장. 어떠한 본유적·사변적 원리도 없다.
- 3장. 어떠한 본유적·실천적 원리도 없다.
- 4장. 본유적 원리들에 반대하는 다른 증명들

제2권. 관념에 대하여

- 1장. 관념 일반에 대하여
- 2장. 단순 관념에 대하여
- 3장. 한 감각의 관념에 대하여
- 4장. 고체성(굳기)에 대하여
- 5장. 하나 이상의 감각에 의해 획득되는 단순 관념에 대하여
- 6장. 반성의 단순 관념에 대하여

- 7장. 감각과 반성 양자의 단순 관념에 대하여
- 8장. 단순 관념에 관한 또 다른 고찰들
- 9장. 지각에 대하여
- 10장. 파지(retention)에 대하여
- 11장. 식별(discerning)에 대하여
- 12장. 복합 관념에 대하여
- 13장. 공간 그리고 단순 양태들에 대하여
- 14장. 지속에 관하여
- 15장. 함께 고찰된 지속과 확장에 관하여
- 16장. 수에 대하여
- 17절. 무한성에 대하여
- 18장. 다른 단순 양태들에 대하여
- 19장. 사유의 양태들에 대하여
- 20장. 쾌락과 고통의 양태에 대하여
- 21장. 힘에 대하여
- 22장. 혼합 양태들에 대하여
- 23장. 실체의 복합 관념에 대하여
- 24장. 실체의 집합 관념에 대하여
- 25장. 관계에 대하여
- 26장.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밖의 관계에 대하여
- 27장. 동일성과 다양성에 대하여
- 28장. 다른 관계에 대하여
- 29장. 명식 관명한 관념과 애매한 관념에 대하여
- 30장. 실재적 관념과 상상적(fantastical) 관념에 대하여
- 31장. 정확한(adequate) 관념과 부정확한 관념에 대하여
- 32장.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에 대하여
- 33장. 관념의 연합에 대하여

제3권. 언어에 대하여

- 1장. 언어들 또는 말 일반에 관하여
- 2장. 언어의 중요성(의미)에 관하여
- 3장. 일반 용어(term), 일반 개념에 관하여
- 4장. 단순 관념의 이름에 대해
- 5장. 혼합 양태와 관계의 이름에 대해
- 6장. 실체의 이름에 대해
- 7장. 불변화사(particle)에 대해
- 8장. 추상적 용어(term)와 구체적 용어에 대해
- 9장. 말의 불완전성에 대해
- 10장. 말의 오용에 대해
- 11장. 진술한 불완전성과 오용의 교정에 대해

제4권. 지식과 의견에 대하여

- 1장. 지식 일반에 대해
- 2장. 우리 지식의 정도(등급)에 대해
- 3장. 인간 지식의 확장에 대해
- 4장. 우리 지식의 실재성에 대해
- 5장. 진리 일반에 대해
- 6장. 보편 명제들과 그것들의 진리와 확실성에 대해
- 7장. 준칙들에 대해
- 8장. 몇몇 명제들에 대해
- 9장. 존재에 관한 우리 지식에 대해
- 10장. 신의 존재에 대해
- 11장. 다른 사물들의 존재에 관한 지식에 대해
- 12장. 우리 지식의 개선에 대해
- 13장. 우리 지식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고찰
- 14장. 판단에 대해
- 15장. 개연성에 대해
- 16장. 동의의 등급에 대해

- 17장. 이성에 대해
- 18장. 상반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믿음(신앙)과 이성
- 19장. 열광(광기)에 대해
- 20장. 잘못된 동의 또는 실수
- 21장. 학문의 구분

4. 『인간지성론』 주요 토픽 정의

(1) 인식

1) 인식 능력

로크는 인식 능력을 감각과 반성으로 구분한다. 엄밀히 말하면 감각과 반성은 마음의 능력이자 동시에 그것이 작용하는 것을 지각하는 한, 관념이기도 하다. 감각은 외적 대상의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과 그 결과를 의미하고, 반성은 지각, 파지, 식별 등을 말함과 동시에 흔히 지성 또는 사고로 불린다. 아울러 로크는 지성을 ‘암실’ 또는 ‘빈 상자’라고 함으로써 본유적인 관념이나 인식의 선형적(a priori)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인식 능력의 범위

로크는 자신의 탐구 목표를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에 대한 탐구’로 명시하고 있다. 로크는 『인간지성론』의 첫 번째 주제로 본유 관념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그가 보기에 본유 관념을 지식의 기원과 확실성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이다. 로크는 이들이 인간 지식을 정사(精査)할 때 뒤따르는 노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이 그 노고를, 즉 인간 인식 능력의 범위를 탐구하는 노고를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한다.

(2) 본유 관념

로크는 본유 관념(또는 원리)에 대한 주장을 ‘의견(opinion)’이라고 명시한다. 이는 본유 관념이 ‘지식(knowledge)’이 아니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 로크는 본유 관념설을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원리나 개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변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로크는 허버트 경의 공통 개념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였다고 말하지만(I, 2, 15), 그렇다고 해서 허버트 경의 본유 관념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데카르트와 같은 특정한 어느 개인, 또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 이론의 모든 지지자들을 전체적인 논의에 포함시켜 비판하고자 한다.

1) 본유 관념 비판

로크는 인간 지식의 기원이 본유 관념에 있다는 설을 부정하고, 모든 지식이 관념으로부터 유래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관념은 모두 감각과 반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있어서 모든 지식은 단순 관념으로 환원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지식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3) 관념

적어도 그 적용 범위만 놓고 본다면, 마음이 떠올리는 모든 것(감각에서부터 사고에 이르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크의 ‘관념’은 칸트의 ‘표상(Vorstellung)’과 거의 등가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로크의 관념에 대한 언급

이나 정의는 너무나 폭이 넓고 애매하여 이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모든 관념이 감각과 반성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그의 관념은 정확히 말한다면, 본유 관념과 대비하여 ‘경험 관념’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1) 단순 관념

단순 관념이란 첫째, 그 자체가 비복합적이며 그 안에 단일한 현상 또는 심적인 개념만을 갖는 관념을 말하며, 둘째, 그 관념이 서로 다른 관념들로 구별될 수 없는 관념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관념이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나 분할도 지각되지 않을 때 단순 관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단순 관념은 그 관념의 이름을 정의할 수 없는 관념이라고도 한다. 단순 관념은 그 관념을 마음이 만들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으며, 단지 마음이 수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단순 관념과 관련하여 마음은 수동일 수밖에 없다. 로크는 단순 관념을 감각 관념, 반성관념 그리고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2) 성질

로크는 성질을 단순 관념을 논하는 곳에서 다룬다. 관념과 성질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관념이란 마음이 대상의 성질을 수용(또는 재현)한 것이다. 성질은 한 관념의 발생 원인에 주목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 개념일 뿐, 그 자체가 마음의 대상은 아니다. 로크에게는 관념만이 마음의 대상이다. 성질이란 마음에 어떤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정의되며, 대상의 불변적 성질인 모양, 수 등은 제1성질, 주관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질로 등장하는 색, 소리, 맛 등은 제2성질로 구분한다.

3) 복합 관념

복합 관념이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 관념들의 일정한 조합을 지칭한다. 마음은 감각과 반성으로부터 단순 관념을 받아들인다. 이 때 마음은 단순 관념을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으며, 단순 관념 이외의 다른 관념을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순 관념의 수용과 관련하여 마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그 단순 관념을 기초로 하여(또는 재료로 하여) 마음은 능동적으로 단순 관념과는 다른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즉, 단순 관념들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합성하여 또 다른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복합 관념이라 한다. 로크는 복합 관념을 마음의 작용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대상의 측면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4) 양태의 복합 관념

단순 양태들의 예는 공간, 지속, 수, 무한, 운동의 양태들과 소리, 색깔, 맛, 그리고 냄새의 양태들이다. 따라서 “미끄러지고, 구르고, 뒹글고, 걷고, 기고, 달리고, 춤추고, 도약하고, 깡충깡충 뛰는 것” 등은 “단지 운동의 서로 다른 수식들이다.”(Ⅱ,18,2) 마찬가지로 파랗고, 빨갛고, 푸른 것들은 색깔의 변화 또는 수식이다. 그리고 로크가 틀림없는 수들을 수의 단순 양태로 여겼던 방식의 어떤 징후가 앞에서 보였다. 이러한 양태의 복합 관념은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 무엇(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념을 말한다.

5) 실체의 복합 관념

확실히 실체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성질이나 관념에 선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선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직 관념을 통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종류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지 우리의 관념들이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 붙이는 이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는 실체의 종류를 말하는데, 이는 물체, 정신, 신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6) 관계의 복합 관념

로크가 제시하고 있는, ㉔ ‘카이우스는 백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㉕ ‘카이우스는 남편이다’고 말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흰 피부’는 카이우스에게만 속하는 관념이지만, ‘남편’이라는 관념은 카이우스 자신에게 속하는 관념이 아니라 카이우스와 그 배우자인 셉프로니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관념은 ‘남편’이라는 관념과 같이 두 개의 관계물(카이우스와 셉프로니아)을 전제하고 그 관계물을 비교함으로써 얻는 관념을 말한다.

(4) 언어

로크는 언어 또는 낱말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낱말은 소리들이나 관념들의 자연적 연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낱말은 관념의 감각적 표지 또는 기호이다. 셋째, 낱말(또는 낱말의 기호)는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우리의 관념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로크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므로 하나의 낱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어떤 기호를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적 규약에 맡겨져 있다. 반대로 적절한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앵무새에 의해 그 소리만 모방되고 있을 뿐 어떠한 관념과도 상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 또는 낱말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또는 낱말은 언제나 상응하는 관념의 임의적 표지이다.

(5) 지식

굳이 플라톤이 지식(epistēmē 에피스테메)을 참된 앎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식이란 진리의 획득과 관련된다. 칸트에 의하면 “고래의 유명한 문제는 진리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였으며, “그 무렵에 진리란 지식(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다.”(KrV. B82)는 명목상의 정의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한다. 로크에 관해서도 진리란 ‘지식(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라는 정의가 적용된다. 다만 문제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로크는 명시적으로 ‘그 대상’이 관념뿐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식이란 관념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지식의 문제는 우선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 모순, 연관 관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IV,1,2)

제2부 지식 지도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원전의 전체 내용 요약 : 1-2-1/2

원전의 세부 내용 목차 : 1-2-3

원전의 중요성 해설 :

로크의 『인간지성론』(1690)은 철학사적으로 데카르트에 대해 경험주의 인식론을 정초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로크는 ‘경험’이라는 말로 답했는데, 이 입장은 그 뒤 전개될 영국 경험론의 기초가 된다. 로크는 ‘본유 관념’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을 ‘백지 상태’에 비유했다. 또 로크는 전통 형이상학의 실체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복합 관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철저히 상식과 경험에 입각하여 우리의 인식의 범위와 원천을 탐구하였던 로크는 성질과 실체에 관한 논의에서 대응설로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후대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로크의 경험론은 버클리, 흄 등에게 비판적으로 계승되었으며, 프랑스의 유물론자 콩디악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그의 『인간지성론』은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신인간지성론』을 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칸트에게 영향을 미쳐 그가 제시한 ‘인식 능력의 원천과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한 탐구’는 ‘비판’이라는 명칭으로 계승되었다.

원전의 중요한 철학 용어 : 본유 관념, 관념, 단순 관념, 복합

관념, 성질, 언어, 지식

한국어 표준 번역본 제목 : 『인간지성론』

한국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연도 :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영어 표준 번역본 제목 :

영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연도 :

영어 디지털 텍스트 :

원어 표준 판본 제목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원어 표준 판본 편집자 : Peter H. Nidditch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도시 : Oxford

원어 표준 판본 출판사 : Clarendon

원어 표준 판본 출판 연도 : 1979년

원어 표준 판본 초판 출판 연도 : 1975년

원어 디지털 텍스트 : www.epistemelinks.com

○ 철학자 : 로크

생애 해설 : 1-1/2

한국어 이름 : 존 로크

영어 이름 : John Locke

원어 이름 : John Locke

인물 사진 :

출생 국가 : 영국

출생 도시 : 서미셋(Somerset) 주의 링턴(Wrington) 마을

출생 연도 : 1632년

사망 연도 : 1704년

한국어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www.epistemelinks.com

원어 웹사이트 :

주요 저작1 한국어 제목 : 『인간지성론』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 『통치론』

주요 저작3 한국어 제목 : 『관용에 관한 서한』

활동 시기 : 근대 철학

활동 분야 : 인식론, 정치 철학

대표 사상 : 경험론

대표 이론 : 대응설, 실체론, 지식론

스승 :

제자 :

지지자 :

반대자 : 라이프니츠

영향을 준 철학자 : 데카르트, 샤프츠베리

영향을 받은 철학자 : 라이프니츠, 버클리, 흄, 칸트, 콩디악

○ 철학 용어: 본유 관념

한국어 용어 : 본유 관념

한자어 표기 : 本有觀念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식.

한국어 반대 용어 : 경험관념/획득관념

한국어 유사 용어 : 선천적 관념

한국어 관련 용어 : 이성

영어 용어 : innate idea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48

영어 용어 정의 : It is stamped upon the mind of man,
which the soul receives in its very first
Being and brings to the world with it.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자 :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관념

○ 철학 용어: 관념

한국어 용어 : 관념

한자어 표기 : 觀念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마음이 떠올리는 모든 것.

한국어 반대 용어 : 실재

한국어 유사 용어 : 표상

한국어 관련 용어 :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하위 개념 - 단순 관념, 복합
관념

영어 용어 : idea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47

영어 용어 정의 : It is that term, which serves best to stand
for whatsoever is the object of the
understanding when a man thinks or
whatever it is, which the Mind can be

employ'd about in thinking.

○ 철학 용어: 단순 관념

한국어 용어 : 단순 관념

한자어 표기 : 單純觀念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감각이나 반성을 통해 획득된 비복합적이고 다른 관념과 섞이지 않은 관념.

한국어 반대 용어 : 복합 관념

한국어 유사 용어 :

한국어 관련 용어 : 성질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관념
하위개념 - 감각의 단순 관념,
반성의 단순 관념

영어 용어 : simple idea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119

영어 용어 정의 : The ideas they produce in the Mind,
enter by the senses simple and unmixed.

○ 철학 용어: 복합 관념

한국어 용어 : 복합 관념

한자어 표기 : 複合觀念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 관념들의 일정
한 결합의 관념.

한국어 반대 용어 : 단순 관념

한국어 유사 용어 :

한국어 관련 용어 : 관념, 반성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관념

하위 개념 - 실체 관념, 양태

관념, 추상 관념

영어 용어 : complex idea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163

영어 용어 정의 : When the understanding is once stored with these simple ideas, it has the power to repeat, compare and unite them even to an almost infinite variety and so can make at pleasure new complex ideas.

○ 철학 용어: 성질

한국어 용어 : 성질

한자어 표기 : 性質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어떤 관념을 우리의 마음 속에 일으키는 힘.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속성, 우유성

한국어 관련 용어 : 실체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실체

하위 개념-제1성질, 제2성질

영어 용어 : quality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134

영어 용어 정의 : The power to produce any idea in our
mind.

○ 철학 용어: 언어

한국어 용어 : 언어

한자어 표기 : 言語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우리의 관념을 나타내는 물리적 표지 또는
기호.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개념, 용어

한국어 관련 용어 :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근대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용어 - 관념

영어 용어 : word or language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402

영어 용어 정의 : Man therefore had by nature his organs so fashioned, as to be fit to frame articulate sounds, which we call words. ... Besides articulate sounds therefore, it was farther necessary, that he should be able to use these sounds, as signs of internal conceptions and to make them stands as marks for the ideas within his own mind.

○ 철학 용어: 지식

한국어 용어 : 지식

한자어 표기 : 知識

한국어 용어 출처 :

한국어 용어 정의 : 우리의 관념들에 관한 연결과 일치 또는 불일치와 모순을 지각하는 것.

한국어 반대 용어 : 믿음

한국어 유사 용어 : 인식, 진리

한국어 관련용어 :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서양 근대 철학

사용된 철학 이론 : 경험론

사용한 철학자 : 로크

사용한 철학 문헌 : 『인간지성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하위 용어 - 수학적 지식, 논
증적 지식

영어 용어 : knowledge

영어 용어 출처 :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525

영어용어 정의 : Knowledge then seems to me to be
nothing but the perception of the
connexion and agreement, or
disagreement and repugnancy of any of
our ideas.

II. 『인간지성론』의 지식 지도

1. 인식

1.1. 인식 능력(3-1-1-6-1-1/2-3)

1.1.1. 감각(3-3-2-1-1/2)

1.1.2. 반성(3-3-2-2-1/2)

1.1.2.1 지각(3-1-1-6-2-1/2)

1.1.2.2. 감각과 지각(3-1-1-6-2-1-1/2)

1.1.2.3. 파지(3-1-1-6-3-1/2)

1.1.2.3.1. 파지와 상상력(3-1-1-6-3-1- /1)

1.1.2.3.2. 파지와 시간의식(3-1-1-6-3-2- /1)

1.1.2.4. 식별(3-1-1-6-4-1/2)

1.1.2.4.1. 기지(3-1-1-6-4-1-1)

1.1.2.4.2. 판단(3-1-1-6-4-2-1~2/3)

1.1.2.4.2.1. 기지와 판단(3-1-1-6-4-3- /1-2)

1.1.2.4.3. 비교(3-1-1-6-4-4-1/2)

1.1.2.4.4. 결합(3-1-1-6-4-5-1/2)

1.1.2.4.5. 명명(3-1-1-6-4-6- /1)

1.1.2.4.6. 추상(3-1-1-6-4-7-1/1)

1.1.2.4.6.1 명명과 추상(3-1-1-6-4-8-1/2)

1.1.2.4.6.2. 명명과 보편자의 문제(3-1-1-6-4-9- /1)

1.1.3. 지성

1.1.3.1. 지성과 지각(3-1-1-6-5-1-1/2)

1.1.3.2. 지성은 암실이다(3-1-1-6-5-2-1/2)

1.2. 인식 능력의 특징

1.2.1. 마음의 능동성과 수동성(3-1-1-6-2-2- /1)

1.3. 인식 능력의 범위

1.3.1. 인식 능력 범위탐구의 목적(3-1-1-1-1/2-6)

1.3.2. 인식 능력 범위탐구의 방법(3-1-1-2-1/2)

1.3.3. 인식 능력 범위탐구의 유용성(3-1-1-3-1/2-3)

(3-1-1-4-1/2-3)

1.3.4. 인식 능력 범위탐구의 경험주의적 원리

(3-1-1-5-1/2-4)

2. 본유 관념

2.1. 로크의 본유 관념설 이해(3-2-1/2)

2.2. 로크의 본유 관념 구분(3-2-3/4)

2.3. 본유적·사변적 원리 비판

2.3.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3-2-1-1-1-3/4-5)

2.3.2. 이성 사용에 의거한 논증 비판

2.3.2.1. 경험적 반박(3-2-1-2-1-2/3)

2.3.2.2. 논리적 반박(3-2-1-3-1/2)

2.3.3. 이해 가능성에 의거한 논증 비판

2.3.3.1. 이해가능성과 본유성의 관계 비판(3-2-1-4-1/2)

2.3.3.2. 본유성의 정도 비판(3-2-1-4-1/3)

2.3.3.3. 플라톤 비판(3-2-1-4-1/4)

2.4. 본유적·실천적 원리 비판

2.4.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3-2-2-1-1/2)

2.4.2. 도덕성의 기원에 의한 비판(3-2-2-2-1/2-3)

2.4.3. 획득방식에 대한 비판(3-2-2-3-1/2)

2.5. 그 밖의 본유 관념에 대한 비판들

2.5.1. 관념의 기원에 대한 비판(3-2-3-1-1/2)

(3-2-3-2-1/2)

2.5.2. 동일성의 원리 비판(3-2-3-3-1/2)

2.5.3. 전체와 부분 관념 비판(3-2-3-4-1/2)

2.5.4. 신 관념 비판(3-2-3-5-1/2)

2.5.4.1. 신 관념에 대한 경험적 반박(3-2-3-5-1-1/2)

2.5.4.2. 신 관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3-2-3-5-2-1-2/3)

2.5.5. 실체 관념 비판

2.5.5.1. 실체 관념의 본유성 비판(3-2-3-6-1/2)

2.5.5.2. 실체의 존재유무(3-2-3-6-1/3)

2.5.5.3.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실체(3-2-3-6-1/4)

3. 관념

3.1. 관념의 정의(3-3-1-1-2/3-5)

3.2. 관념의 원천(3-3-2-1/2-3)

3.2.1. 관념 획득의 시작(3-3-3-1-2/3)

3.3. 관념의 종류(3-3-4-1/2)

3.3.1. 단순 관념

3.3.1.1. 단순 관념의 정의(3-3-4-1-1-1/2)

3.3.3.2. 단순 관념의 종류

3.3.3.2.1. 감각 관념(3-3-4-1-2-1- /1)

3.3.3.2.2. 반성관념(3-3-4-1-2-2-1/2)

3.3.3.2.3.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3-3-4-1-2-3- /1)

3.3.3.3. 단순 관념의 특징(3-3-4-1-3- /1)

3.3.3.4. 단순 관념과 성질

3.3.3.4.1. 성질의 정의(3-3-4-2-1-1-2/3)

3.3.3.4.2. 성질의 구분(3-3-4-2-2- /1)

3.3.3.4.2.1. 제 1성질(3-3-4-2-2-1-1/2)

3.3.3.4.2.2. 제 2성질(3-3-4-2-2-2-1/2)

3.3.3.4.2.3. 제 3성질(3-3-4-2-2-3-1-2/3)

3.3.3.4.3. 성질들의 비교(3-3-4-2-3-1/2)

3.3.3.4.4. 성질과 관념의 유사성

3.3.3.4.4.1. 제 2성질과 관념의 유사성(3-3-4-2-4-1/2)

3.3.3.4.4.2. 제 1성질과 관념의 유사성(3-3-4-2-4-1/3)

3.3.3.4.4.3. 대응설(3-3-4-2-5- /1)

3.3.3.4.4.4. 표상적 실재론(3-3-4-2-6- /1)

3.3.3.5. 관념의 원인(3-3-4-2-7- /1)

3.3.3.6. 관념과 주관성의 문제(3-3-4-2-8-1/2-3)

3.3.2. 복합 관념

3.3.2.1. 복합 관념의 정의(3-3-4-3-1- /1)

3.3.2.2. 마음의 작용에 따른 복합 관념의 종류

(3-3-4-3-2-1/2)

3.3.2.3. 대상의 측면에서 본 복합 관념의 종류

(3-3-4-3-3-1/2)

3.3.2.3.1. 양태의 복합 관념

3.3.2.3.1.1. 양태 관념의 정의(3-3-4-3-4-1-1/1)

3.3.2.3.1.2. 양태 관념의 종류(3-3-4-3-4-2-1/1)

3.3.2.3.1.2.1. 단순양태

3.3.2.3.1.2.1.1. 공간(3-3-4-3-5-1-1/2)

3.3.2.3.1.2.1.1.1. 물체와 연장(3-3-4-3-5-1-1-1/2)

3.3.2.3.1.2.1.2. 지속(3-3-4-3-5-2-1/2)

3.3.2.3.1.2.1.3. 수(3-3-4-3-5-3-1/2)

3.3.2.3.1.2.1.4. 무한성(3-3-4-3-5-4-1-2/3)

3.3.2.3.1.2.1.4.1. 공간의 무한성과 무한공간
(3-3-4-3-5-4-1-1/2)3.3.2.3.1.2.1.4.2. 적극적 무한과 소극적 무한
(3-3-4-3-5-4-2-1/2)3.3.2.3.1.2.1.5. 감각, 사고, 감정의 단순양태들
(3-3-4-3-5-5- /1)

3.3.2.3.1.2.1.6. 힘(3-3-4-3-5-6-1/2)

3.3.2.3.1.2.1.6.1. 수동적 힘(3-3-4-3-5-6-1-1-2/3)

3.3.2.3.1.2.1.6.2. 능동적 힘(3-3-4-3-5-6-2-1/2)

3.3.2.3.1.2.2. 혼합 양태

3.3.2.3.1.2.2.1. 혼합 양태의 정의(3-3-4-3-6-1-1/2)

3.3.2.3.1.2.2.2. 혼합 양태의 특성(3-3-4-3-6-1-1/2)

3.3.2.3.1.2.2.3. 혼합 양태와 이름(3-3-4-3-6-2-1/2)

3.3.2.3.1.2.2.4. 혼합 양태의 형성이유
(3-3-4-3-6-3-1/2)3.3.2.3.1.2.2.5. 혼합 양태의 획득방식
(3-3-4-3-6-4-1/2)

3.3.2.3.2. 실체의 복합 관념

3.3.2.3.2.1. 실체의 정의(3-3-4-3-7-1-1/2)

- 3.3.2.3.2.2. 실체관념의 형성(3-3-4-3-7-2-1/2)
- 3.3.2.3.2.3. 실체의 종류(3-3-4-3-7-4- /1-2)
 - 3.3.2.3.2.3.1. 물체(3-3-4-3-7-3-1/2)
 - 3.3.2.3.2.3.1.1. 물체와 힘(3-3-4-3-7-3-1-1/2)
 - 3.3.2.3.2.3.1.2. 집합실체와 개별실체
 - (3-3-4-3-7-3-2-1/2-3)
 - 3.3.2.3.2.3.2. 정신실체
 - 3.3.2.3.2.3.2.1. 정신실체와 힘(3-3-4-3-7-5- /1)
 - 3.3.2.3.2.3.2.2. 정신과 물체의 비교
 - (3-3-4-3-7-6-1/)
 - 3.3.2.3.2.3.2.3. 실체들의 인식 가능성
 - (3-3-4-3-7-6-1-1- /1)
 - 3.3.2.3.2.3.3. 신 실체
 - 3.3.2.3.2.3.3.1. 신의 단순성과 신관념의 복잡성
 - (3-3-4-3-7-7-1/2)
- 3.3.2.3.3. 관계의 복합 관념
 - 3.3.2.3.3.1. 관계 관념의 정의(3-3-4-3-8-1-1/2)
 - 3.3.2.3.3.2. 관계 관념의 특징(3-3-4-3-8-2-1/)
 - 3.3.2.3.3.3. 관계 관념의 종류
 - 3.3.2.3.3.3.1. 인과성(3-3-4-3-8-3-1/2-3)
 - 3.3.2.3.3.3.2. 창조, 발생, 제작, 변화
 - (3-3-4-3-8-4- /1)
 - 3.3.2.3.3.3.3. 동일성
 - 3.3.2.3.3.3.3.1. 실체들의 동일성(3-3-4-3-8-5-1-1/2)
 - 3.3.2.3.3.3.3.2. 인간(신체)의 동일성
 - (3-3-4-3-8-5-2-1/2)
 - 3.3.2.3.3.3.3.3. 인격의 동일성(3-3-4-3-8-5-3- /1)
 - 3.3.2.3.3.3.4. 명석판명한 관념과 애매혼란한 관념
 - (3-3-4-3-8-6- /1)
 - 3.3.2.3.3.3.5. 실재적 관념과 상상적 관념

(3-3-4-3-8-7- /1)

3.3.2.3.3.3.6. 적합한 관념과 부적합한 관념

(3-3-4-3-8-8- /1)

4. 언어

4.1. 관념의 표지로서의 언어(언어의 정의)(3-4-1-1/1)

4.1.1. 언어의 필요성과 임의성(3-4-1-1- /1)

4.1.2. 부정어와 관념(3-4-1-2- /1)

4.1.3. 불변화사(3-4-1-3-1/2)

4.2. 언어의 불완전성

4.2.1. 대상, 관념, 낱말의 대응관계(3-4-2-1-1/2)

4.2.2. 복합 관념과 낱말의 대응(3-4-2-2-1/2)

4.2.3. 언어의 오용(3-4-2-3-1-3/4)

4.3. 언어와 보편성의 문제(3-4-3-1/2)

4.3.1. 일반용어와 추상 작용(3-4-3-1-1-2/3)

4.3.2. 일반용어와 객관성(3-4-3-2- /1)

4.3.3. 추상 작용과 본질

4.3.3.1. 본질(3-4-3-3-1-1/2)

4.3.3.2. 실재적 본질(3-4-3-3-2-1/2-3)

4.3.3.3. 명목적 본질(3-4-3-3-3-1~2/3)

4.3.3.4. 추상 작용과 명목적 본질(3-4-3-3-4-1-2/3)

5. 지식

5.1. 지식의 정의(3-5-1-1/2)

5.1.1. 지식의 시작(3-1-1-6-6-1/2-3)

5.1.2.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3-5-1-1- /1)

5.1.3. 실재적 대상과의 일치(3-5-1-2- /1)

5.2. 지식의 등급

5.2.1. 직관적 지식(3-5-2-1-1/2)

5.2.2. 논증적 지식(3-5-2-2- /1)

5.2.2.1. 직관적 지식과 논증적 지식(3-5-2-3- /1)

5.2.3. 감각적 지식(3-5-2-4- /1)

5.3. 지식의 범위(3-5-3- /1)

5.3.1. 동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확장(3-5-3-1- /1)

5.3.2. 공존에 관한 지식의 확장(3-5-3-2- /1)

5.3.2.1. 과학적 지식의 한계(3-5-3-2-1-1-2/3)

5.3.3. 관계적 지식의 확장(3-5-3-3-1/2)

5.3.4. 사물의 존재에 관한 지식(3-5-3-4-1/2-4)

5.4. 지식의 확실성(3-5-4-1/2)

5.4.1.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3-5-4-1- /1)

5.4.2. 도덕적 지식의 확실성(3-5-4-2-1/2)

5.4.3.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실성(3-5-4-3-1-2/3)

5.4.4. 신 존재에 관한 지식의 확실성(3-5-4-4-1/2)

5.4.5. 판단(3-5-4-5-1/2)

5.4.6. 개연성(3-5-4-6- /1)

5.4.7. 이성과 신앙(3-5-4-7-1/2)

제3부 『인간지성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I. 서 론

1. 인식 능력의 범위 탐구

(1) 탐구의 목적

믿음, 의견, 그리고 동의의 근거 및 정도와 함께 인간 지식(Knowledge)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그 범위를 탐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마음(Mind)에 대한 물리적인 고찰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정신(Spirit)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혹은 우리 정신의 어떤 운동이나 우리 육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기관에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지성(Understanding)에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도 그리고 그 관념들이 형성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물질(Matter)에 의존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조사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 나의 현재의 목적에는 그것이 취급해야만 될 대상에 대해서 사용될 때의 인간의 식별 능력(Discerning Faculty)을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I, 1, 2)

로크는 자신의 탐구 목표를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에 대한 탐구’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인간 지식의 기원을 본유 관념에 두고 있는 합리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틀렸음을 논증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나중에 논하게 되겠지만, 로크는 『인간지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의 첫 번째 주제로 본유 관념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그가 보기에 본유 관념을 지식의 기원과 확실성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이다. 로크는 이들이 인간 지식을 정사(精査)할 때 뒤따르는 노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이 그 노고를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한다.

로크가 탐구의 목표로 정한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범위에 대한 탐구’는 훗날 칸트에 의해 ‘비판’(Kritik)으로 계승된다. 칸트는 ‘비판’이라는 말로 ‘인식 능력의 원천과 한계를 판정함(KrV, B25)’을 의미했다. 비록 칸트가 로크의 경험주의를 벗어나 초월 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견지에서—칸트는 지식이 본유적(in-nate)임은 부정하였지만, 인식 능력의 선험적(a priori)임은 인정하였다—‘인식 능력의 원천과 한계’를 논하기는 하였지만, ‘비판’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분명히 로크로부터 계승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로크는 자신의 탐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 정신(Human Spirit)에 대한 물리적 고찰(Physical Consideration)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물리적 고찰에 마음과 몸 그리고 몸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외부에 있는 물질적 존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자극과 그 자극에 의한 감각 기관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획득되는 관념과 그 관념이 지성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겠지만, 스스로 배제하겠다고 한 이러한 논의를 특히 성질과 관념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크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의 탐구가 자연과학적 작업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고, 나중에 다룬 것은 자연과학적 태도나 틀 내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주의적 고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연 로크가 충분히 경험 과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철학적인 견지에서 ‘인간 지식의 기원, 확실성 그리고 범위’를 탐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의(異意)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는 “근대에 와

서 (저 유명한 로크의) 인간 지성에 관한 일종의 생리학 (Physologie)은 일단 전래의 모든 분쟁에 종말을 고해서, 형이상학이 하는 주장의 합법성 여부를 단연 결말짓는 듯 싶었다”(Kr.V. AIX)고 함으로써, 로크의 작업을 경험 과학적 작업으로 평가하였다. 확실히 그의 작업은 인식 능력들에 대한 원리적인 구분보다는 경험적인 구분에 입각하였고, 근본 원리에 대해 탐구하기보다는 경험적 자료와 상식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경험 과학적 작업이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식의 대변자로 자처한 로크가 칸트의 평가를 접하였다면,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로크에 이르러 근대 철학은 진정한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근대를 특징짓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질문 방식의 전환이다. 즉 그 이전에는 ‘왜’라고 물었지만, 근대에는 ‘어떻게’라고 묻는다. 일반적으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가 본유 관념 때문에 혹은 신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에, 로크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갖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고 ‘감각과 반성을 통해서’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진정한 전환(인식론으로의 전환)을 이룩하였고, 그 답을 인간 인식 능력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로크를 진정한 근대 철학의 효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탐구의 방법

그러므로 의견(Opinion)과 지식(Knowledge)의 경계는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확실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물에 대해 어떤 척도로 우리가 우리의 동의(Aessent)를 조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화해야만 하는가 역시 실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그것을 관념이라고 부르든 개념이라고 부르든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밖에 무엇이라 부르든—어떤 한 사람이 관찰하고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의식하는 것들의 기원(the Original)과 그것이 지성에 공급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둘째, 나는 지성이 저 관념들에 의해 어떤 지식을 가지는가를 그리고 그 지식의 확실성, 증거, 범위를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나는 믿음 또는 의견의 본성과 근거들에 대한 몇 가지 탐구를 행할 것이다. 믿음과 의견이라는 말로 나는, 우리가 그 어떤 명제에 대해 참이라고 부여하면서도 그 명제의 진리성에 관해 우리가 아직 그 어떤 확실한 지식도 가지지 않는, 동의의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동의의 이유와 정도에 대해 시험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I,1,3)

로크는 인간 지식의 범위 탐구를 위해 ① 지식의 기원과 획득 방식 ② 지식의 확실성, 증거, 범위 ③ 믿음의 본성과 근거의 고찰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지성론』은 서론을 제외한다면,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권은 본유 관념설에 대한 비판이고, 제Ⅱ권은 관념에 대한 로크 자신의 상론을 담고 있다. 이Ⅱ권에는 로크 인식론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제Ⅲ권은 낱말과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제Ⅳ권은 지식에 대해 쓰고 있다. 로크는 지식의 기원과 획득 방식에 대해서는 I, Ⅱ권에 할당하여 본유 관념설을 비판하고, 지식의 기원이 감각과 반성에 있음을 밝힌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은 특히 IV권에서 다루고 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로크는 지식이 우리가 가진 관념들을 넘어서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 확실한 지식은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만을 고려하는 수학적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로크 자신이 제시한 방법론은 전체 책의 구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낱말과 언어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Ⅲ권이 “낱말이

원래의 또는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관념만을 나타낸다”(Ⅲ, 2, 2)고 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I, II, Ⅲ권이 모두 첫 번째 목적에 할애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탐구의 유용성(1)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서게 하고, 인간에게 동물들을 능가하는 모든 편익과 지배력을 주는 것은 지성이기 때문에, 지성은 그 자신의 고귀성을 위해서도, 확실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지성은 눈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사물들을 보고 지각하게 하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성만을 고립시켜 놓고 그 자신의 탐구 대상으로 삼는 데는 기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탐구의 길에 가로놓인 곤란이 무엇이든,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빛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성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대단히 유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물들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사고를 인도함에 있어서, 큰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고 나는 확신한다.(I, 1, 1)

여기에서 로크는 지성에 대한 탐구가 그 자체로 유익하다는 점과 이 탐구가 대상에 대한 지식의 획득에도 큰 이익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본유 관념설을 겨냥하고 있는 바이다. 지성 자체에 대한 탐구는 로크가 말하는 바와 같이 대단한 수고와 기술을 요하는 일이다. 그런데 로크가 보기에 본유 관념론자들은 그러한 수고와 기술을 회피하고 태만함을 철학인 것처럼 자랑한 자들이다. 즉, 그들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에 대해 게으르고 공허한 사색만을 일삼아 본유 관념으로 도피한 자들이라는 것이 로크의 평가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획득에 방해된다. 오직 지성의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탐구함으로써만 이러한 무용한 호기심과 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로크가 제시하는 유용성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유용성은 비록 관점과 결과는 다르지만, 칸트가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용성(KrV. BX XIV)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로크는 인식의 범위를 감각과 반성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감각과 반성을 넘어서는 문제를 본유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본유 관념이라고 불리는 지식들이 어떻게 감각과 반성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지식과 의견 및 믿음을 구분하였다. 즉 지식을 구제하였다. 유사하게 칸트는 인식의 영역을 현상계로 국한시킴으로써 흄이 제기한 회의론에 맞서 학문적 진리를 구제(현상계로 제한)하였다. 이를 칸트는 비판의 ‘소극적 효용’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현상계로 국한함으로써 실천적 원리가 설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고, 이를 비판의 ‘적극적 효용’으로 간주한다.

(4) 탐구의 유용성(2)

이해(Comprehension)를 넘어서는 사물을 다룰 때에 더 주의할 것을 우리의 분주한 마음에 권유하고, 그것이 한계의 절정일 때에는 멈추며, 조사하여 우리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발견되는 일에는 조용히 모르는 채 앉아 있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I,1,4)

칸트가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 도덕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 효용’으로 간주한 것과 비교한다면, 로크가 제시하는 유용성은 어쩌면 비트겐슈타인과 좀 더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

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고 끝맺었다. 우리의 이해 한계를 넘어서는, 즉 우리의 관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로크의 견해는 이름과 대상 간의 명증한 1:1 대응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언어가 세계의 거울이어야 한다(그림이론 *Picture Theory*)고 생각하고 그림으로써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경고한 비트겐슈타인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능력 범위를 뛰어넘는 것’은 칸트의 용어를 빌자면, ‘초험적 대상’(transzendenter Gegenstand)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달리 말하자면 ‘사물 자체(Ding an sich)’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대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지적 직관(intellektuelle Anschauung)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지적 직관이란 오직 외적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을 수용하는 것에 불과한 ‘감성적 직관’(sinnliche Anschauung)과는 달리 ‘직관함으로써 그 대상 자체를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창조하는 근원적 직관’(intuitus originarius)을 말한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능력이 있다면, 아마 로크가 침묵해야 한다는 그 영역(또는 대상)에 대해 굳이 침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물론 칸트, 비트겐슈타인 등은 모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런 능력을 인정한 철학자들도 있는데, 대륙 합리론자들과 셸링, 헤겔 등이—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지적 직관능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탐구의 경험주의적 원리

앞으로 진행할 원리들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그것이 참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편견 없는(unprejudiced) 고유한 경험과 관찰에 호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에의 편견 없는 탐구 외에는 아무 다른 계획도 가짐이 없이, 다만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그 자신의 추측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공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I,4,25)

인간 지식의 한계, 확실성, 범위를 탐구함에 있어서 로크는 ‘편견 없는 경험과 관찰’에 의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험주의적 원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주의적 원리란 달리 말하면, “감각 중에 있지 않던, 그 무엇도 이성(지성) 중에 있지 않다”(Nihil est intellectu, quod non fuerit in sensu)는 주장을 말한다.(백종현, 『서양 근대 철학』, 64쪽)

경험주의적 원리가 관찰되기 위해서는 로크도 밝히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편견 없는’ 경험과 관찰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지는 의문시된다. 현대 과학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관찰의 이론 중립성의 문제’로 다루며,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 정도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도외시 한다면— 대체로 관찰의 완전한 이론 중립성은 지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로크 역시 ‘편견 있는’ 원리를 내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내세우는 편견은 굳이 말하자면 ‘경험주의적 원리’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주의적 원리 그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와 편견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천착하고자 한다면, 다른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갈래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미 철학의 전통 내에서는 논

의되고 있는— 특히 과학 철학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관찰의 이론 중립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대륙 철학의 전통에서는 후설의 ‘선술어적 판단’(vorprädikatives Urteil)이나 가다머가 말하는 ‘선 판단’(Vorteil)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다머는 계몽주의적 관점에서(또는 형식 논리학의 관점에서)는 ‘선판단’은 오류의 근원으로 간주되지만, 해석학적 지평에서 보자면 인간은 언제나 ‘선판단’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선판단이 반드시 오류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로크가 과연 ‘편견 없는’ 고찰을 하였는지 의문시 된다. 즉, 그는 그가 서있는 해석학적 지평 하에서 인간 지식과 관련한 나름 대로의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6) 인식 능력

1) 인식 능력들의 설명 위치에 대한 해명

내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아래에 논의할 지각, 파지, 식별 등] 마음이 지성에 있어서 사용토록 하는 최초의 능력(faculty)이고 작용(operation)이다. 그리고 비록 이 능력과 작용이 마음이 가진 모든 관념 일반에 대해 행사되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든 예들은 주로 단순 관념(simple idea)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복합 관념(complex idea)에 관해 논하기 전에, 단순 관념에 대한 설명에 마음의 이러한 능력에 대한 해명을 추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능력들 중 몇몇은 처음에는 주로 단순 관념에 대해서 행사되므로 우리는 일상적 방법의 본성에 따라 그 능력들을 발생, 진행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에 있어서 추적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의 능력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복합 관념들보다 훨씬 더 명석하고 정확하고 판명한 단순 관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관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우리가 훨씬 더 잘못을 범하기 쉬운 복합 관념들에 대한 마음의 또 다른 작용에 있어서 추상하고, 명명하고, 비교하고, 작용하는가를 더 잘 조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감각(sensation)으로부터 받아들인 관념들에 대한 마음의 바로 이러한 작용들

이, [이 작용 자체가] 반성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내가 반성(reflection)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식의 다른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또 다른 한 무리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이 작용들은 감각의 단순 관념들[에 대해 논한] 다음인 이곳에서 고찰되기에 알맞다.(II,11,14)

로크는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을 논한 후에 반성의 여러 능력들과 작용들에 대해 논한다. 그는 이에 대한 이유를 이 능력들이 ① 주로 단순 관념에 행사되고, ② 복합 관념 보다는 단순 관념에서 고찰하는 것이 훨씬 명료하며, ③ 이 능력과 작용들은 그것들이 반성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반성의 여러 하위 종류들, 예를 들어 지각, 파지, 식별 등은 단순 관념이나 복합 관념 구분 없이 작용하며, 또 그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기도 하다. 단지 탐구의 편의 때문에 단순 관념에 대한 고찰 직후에 이 능력들을 다룰 뿐이다.

위의 로크의 해명 중 세 번째 이유에서 우리는 다소 기이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로크가 반성 능력(또는 작용)과 관념을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각(perception)은 반성 능력(작용)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관념이기도 하다. 아마 로크가 염두에 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목의 ‘흰 색’에 대한 관념을 가질 때, 이 관념은 감각을 통해 들어 온 단순 관념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획득되며, 이렇게 감각의 단순 관념을 주목하는 능력(작용)을 지각이라고 부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그 능력(작용)을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능력(작용)을 반성해야만 하는데, 이런 반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작용)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렇게 이해할지라도, 로크에게는 후일의 철학자들에 비하면, 인식 능력과 인식내용(대상)

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2) 지각

지각(perception)은 우리의 관념에 행사된 마음의 최초의 능력임과 동시에, 우리가 반성으로부터 얻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간단한 관념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thinking)라고 부르는 것이다.(II,9,1)

로크가 명시적으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지각은 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최초의 능력이자 단순 관념이다. 지각의 특성에 대해 로크는 자신의 말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반성에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보다 분명하다(II,9,2)고 하면서도, 지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의해서 주목’(II,9,3)되어야 하고, ‘감각 기관에 주어진 외적 자극만으로는 지각을 말하기 불충분하다’(II,9,3)고 함으로써, 지각을 단순한 감각과 구분한다. 그러므로 지각은 감각에 대한 의식적 주목의 결과이며, 감각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II,9,15)

① 감각과 지각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관념들의 이 거대한 원천을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감각(sense)에 의존하고 거기에서 도출되어 지성에 이르는 이 거대한 원천을 나는 감각(sensation)이라고 부른다.(II,1,3)

감각(sensation)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외적 자극에 대한 수용 또는 수용된 결과, 즉 관념을 의미한다. 나중에 로크가 행하는 성질과 힘에 대한 설명을 고려해 보건대 감각이란 외적 대상의 감각할 수 없는 미립자 또는 힘에 의해 마음에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지각은 반성의 대표적

이자 최초의 기능으로 감각에 대한 주목(의 결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각은 능동적 마음 작용이며, 이러한 능동적 작용 없이 관념을 수용하는 것은 감각이다.

② 마음의 수동성과 능동성

로크에 따르면 감각은 수동적(passive)이고 반성은 능동적(active)이다. 왜냐하면 감각은 외부 대상이 감각 기관에 미치는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획득되는) 관념이고, 반성은 그렇게 획득된 관념을 주목하고, 비교하고, 추상하거나 결합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수동성과 능동성이 감각과 지각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인가는 의문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목하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 작용들이 있는데, 로크의 구분에 따르면 이를 감각이라고 언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운전자는 본인이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가령 옆사람과 말을 하면서), 커브 길에 속도를 줄인다든가 건널목에 멈춘다든가 또는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감지하고 창문을 닫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감각을 순수한 외적 자극 또는 완전한 수동성으로만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시킨다. 그러므로 후설처럼, 완전한 수동성은 물리적 자극만을 지칭하고, 능동성을 수용성(receptivity)과 자발성(spontaneity)으로 구분하여 감각을 능동적 수용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3) 파지(retention)

마음의 그 다음 능력은—그 능력에서 마음은 지식을 향해 보다 진전하게 된다—내가 파지라고 부르는 것, 즉 감각이나 반성으로부터 마음이 받아들인 단순 관념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마음속에 들어온 관념을 얼마동안 실제로 마음에 새겨둠으로써 보존하는 것인데, 이것은 응

시(contemplation)라고 불리어진다. 파지의 다른 방식은 마음속에 새긴 후에 사라졌던 관념을 다시 소생시키는 힘이다. 예를 들어 대상이 제거되고 나서 열이나 빛, 노란 색이나 단맛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것은 기억(memory)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관념의 창고이다.(II,10,1)

로크가 지각으로서의 반성 다음에 거론하는 것이 ‘파지’이다. 파지란 관념을 마음속에 유지 또는 보존하는 마음의 활동을 말한다. 로크는 파지를 응시와 기억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의(attention), 반복(repetition), 쾌락, 고통 등도 역시 관념을 파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파지는 지각과 마찬가지로 반성 능력(작용)의 한 양태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주목된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관념이기도 하다. 로크가 언급한 파지의 대표적 형태는 응시와 기억이다.

① 파지와 상상력

로크가 파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였던 그 능력은 나중에 칸트가 상상력(Einbildungskraft)이라고 불렀던 능력과 유사하다. 칸트는 상상력을 ‘대상이 지금 현존하지 않지만,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능력’ 또는 ‘직관의 다양을 종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포함되는 마음의 활동은 단지 응시나 기억 뿐만 아니라, 공상, 환상, 예상 등 관념을 유지·재생·변화·결합하는 모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칸트는 상상력을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억은 재생적 상상력의 대표적인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 칸트가 재생적 상상력을 연상 법칙에 종속된 상상력으로 분류하였고, 연상 법칙이 경험주의 심리학의 용어임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로크의 작업은 인식 능력들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경험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다.

② 파지와 시간 의식

파지는 시간 의식과 관련된다. 통상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전진하는 일양적 표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감각(또는 감각으로부터 유래한 관념)은 시간과 상응하게 된다. 즉, 지금 보고 있는 저 붉은 장미의 ‘붉음’이라는 감각(또는 관념)은 ‘시간 T_1 ’의 붉음이며, 그 이후에 동일한 ‘붉음’을 생각하거나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은 시간 $T_2, T_3, T_4 \dots T_n$ 의 붉음이다. 그러므로 파지가 ‘단순 관념을 보존하는 능력’이라면, 이는 다시 말해 특정 시간 T_1 을 그 이후의 다른 시간에도 T_1 이라는 시간을 있게 만드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과거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표상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응시’는 특정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마음의 활동을 말하고, ‘기억’은 과거 시간을 현재화하는 마음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우리는 미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만드는 마음의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이를 예상(예취, anticipation)이라고 한다.

4) 식별(discerning)

본유적 진리라고 간주된 몇몇 명제들, 심지어는 매우 일반적인 명제조차도 그 명증성(evidence)과 확실성(certainty)에 있어서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이 능력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그 명제들이 보편적 동의를 얻는가 하는 진정한 원인을 간과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타고난 제일적 인상(native uniform Impression)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은 사실상 마음의 명백한 식별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 능력에 의해 마음은 두 관념이 같아든가 혹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기 때문이다.(II,11,1)

식별이란 임의의 관념이 다른 관념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백묵의 ‘흰 색’과 눈의 ‘흰 색’ 그리고 소금의 ‘흰 색’을 다 같은 ‘흰 색’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로크가 말하는 바 이미 마음의 식별 기능이 작용한 것이다. 우선 각각의 ‘흰 색’이 ‘흰 색’임을 알기 위해서는 ‘흰 색’이 아닌 다른 색깔, 예를 들어 노란 색이나 검은 색과 ‘흰 색’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성질들만 분간할 줄 아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각각의 대상이 갖는 다른 많은 성질들 중에서 ‘흰 색’만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흰 색’만을 추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색깔의 성질과 가령 모양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서로 다른 대상에서 유래하는 동일한(혹은 매우 유사한) 성질인 ‘흰 색’을 서로 결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릇 결합이란 이미 구별할 수 있음(그러므로 분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 로크는 식별에는 다 음에 열거하는 다양한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① 기지(機智, wit)

기지란, 그 활동에 의해서 어떤 유사성이나 일치성이 발견될 수 있고, 이에 의해서 유쾌한 광경과 기분 좋은 광경이 상상 속에 형성되도록, 관념들을 연결시키고 그것들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짜맞추는 것을 말한다.(Ⅱ,11,2)

② 판단

판단(judgment)은 기지와는 아주 다른 측면에, 즉 아무리 적은 차이라도 발견될 수 있도록 관념들을 서로 주의깊게 분리함을 말한다. 판단을 통해 유사성과 근친성에 의해 오도되어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방지된다.(Ⅱ,11,2)

판단은 관념들의 어떤 일치나 불일치가 지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리라고 추정될 때, 마음 안에서 관념들을 모으거나 서로 분리하는 것이다.(IV,14,4)

판단은 기지와는 반대로 관념들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로크는 말한다. 하지만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이 판단이 꼭 관념의 분리 작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판단의 형태는 ‘S(주어)는 P(술어)이다’는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S와 P의 관념을 서로 분리함과 동시에 연결하는 것이다. 로크는 관념들의 분리와 연결이 어떤 기준이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한편 로크가 판단을 관념들의 ‘주의 깊은’ 분리라고 한 것은, 바움가르텐이 예민성(acute sentiendi) — 사물을 날카롭고 분명하게 감각 또는 지각하는 능력이자 사물의 차이성을 분간하는 능력(A. G. Baumgarten, *Metaphysica*, §540)—이 판단력과 연관된다고 한 것을 연상시킨다.

③ 기지와 판단

위에서 보듯이 기지와 판단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능력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예민성’과 관련된 능력이다. 즉, 대상들의 유사성(기지)과 차이성(판단)을 예민하게 구분하는 능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칸트가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에서 설명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이런 저런 설명보다 더 도움이 될 듯 하다. “보편적인 것(규칙)에 대해서 특수적인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판단력인 것처럼, 특수적인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 기지(ingenium)이다. 전자는 다양 내에서 부분적으로 동일한 것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파악하는 일을 지향하고, 후자는 다양 내에서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 사이에

있는 동일성을 파악하는 일을 지향한다. 이 양자에서 가장 탁월한 재능은 극히 작은 유사성 또는 차이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능력이 예민성이며, 이런 종류의 주목은 면밀성이라 불린다. [...] 따라서 예민성은 판단력에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에도 관계하고 있다. 예민성은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엄밀성(정확한 인식 *cognitio exacta*)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우수한 머리의 풍부성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때문에 또한 기지는 만발하는 것이라 불린다.” (§44)

위에서 보듯이 기지와 판단은 모두 예민성과 관련되며, 대상의 다양한 성질이나 감각(또는 그것들에 대한 관념)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성과 유사성을 분간해내는 능력들이다. 이 능력들은 학문적 능력에서도 그 탁월성을 발휘하지만, 특히 예술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마음능력의 탁월성이다. 이는 기지와 판단이 특히 미감적 판단(*aesthetic judgment*) 또는 취미 판단(*judgment of taste*)과 관련된 능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탁월한 예민성을 보여주는 기지나 판단은 쾌감을 야기 시키는데, 이 쾌감은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④ 비교

관념들을 범위, 정도, 시간, 장소 또는 어떤 다른 상황에 관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comparing*)이 관념들에 대한 마음의 또 다른 하나의 작용이며, 관계 하에 포괄되는 매우 많은 관념들이 이러한 비교에 의존한다.(II,11,4)

비교란 예를 들어 ‘1이 2보다 작다’든가 ‘이 탁구공은 저 축구공보다 작다’는 식으로 각각의 관념들(1, 2, 탁구공, 축구공)을 상

호 그 범위, 정도, 시간, 장소 등에 관해서 대조해 보는 마음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비교 활동을 통해 마음은 단순 관념들로부터 복합 관념(특히 관계 관념)을 획득하게 된다.

⑤ 복합(compounding)

우리가 마음이 가진 관념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작용은 합성(composition)이다. 합성에 의해 마음은 감각과 반성으로부터 받아들인 단순 관념들중 몇몇을 서로 합치며, 그것들을 결합해서 복합 관념으로 만든다. 이 합성 작용에는 확대(enlarging)도 포함된다.(II,11,6)

복합 작용은 말 그대로 단순 관념들을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형성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이는 다시 합성과 확대로 구분 되는데, 합성은 예를 들어 흰 색, 짧은 원통 모양 등의 관념들 모아서 ‘백목’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상호 종류가 다른 단순 관념들을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성작용을 칸트는 지성의 고유 능력으로 간주하였고, 헤겔은 지각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반해 확대는 같은 종류의 관념을 결합하여 복합 관념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이라는 단순 관념을 확대하여 ‘10’이나 ‘1000’을 만든다.

⑥ 명명(naming)

어린 아이들이 반복된 감각에 의해서 관념을 기억 속에 고정시키면, 그들은 점차로 기호의 사용을 익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음성의 기관을 사용하여 마디가 분명한 소리를 내는 기술을 얻으면 그들은 그들의 관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II,11,8)

로크의 명명(naming)에 대한 설명도 다른 것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매우 상식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로크에 의하면

‘이름’(name)의 핵심적인 기능은 관념을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관념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름’은 기호를 통해 표시되며, 이 기호에 의해 표시되는 것 — 예를 들어 ‘인간’ — 은 단지 추상화된 보편 관념에 불과하다. 물론 감각을 통해 획득하는 우리의 관념은 단순 관념이고, 그 관념들은 동일한 인간에 대한 관념일지라도 감각하는 매 순간 다른 관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붙이자면 그 이름은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관념을 표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인간들은 적절한 추상을 거쳐 관념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고정된 관념에만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⑦ 추상(abstracting)

말(word)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관념들에 대한 외적인 표지(Mark)를 세우는 것이므로 그리고 그 관념들은 특정한 사물들로부터 획득되는 것이므로, 만일 우리가 수용하는 모든 특수한 관념에 대해 각각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이름은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은 특정한 대상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특정한 관념들을 일반적인 관념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관념들을 마음속에서 모든 다른 존재물로부터 그리고 시간과 공간 혹은 어떤 다른 동반된 관념들로부터 분리된 현상이라고 고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것은 추상(abstracting)이라고 불리어진다.(Ⅱ,11,9)

예를 들어 우리가 2000년 4월 27일 2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과 7동 사이에 피어 있는 몇 송이의 장미를 보았다고 하자. 이 장미는 붉은 색이었고, 잎이 6개였으며, 잎의 모양은 타원형에 한쪽이 뾰족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2004년 3월 26일 저녁 8시에 녹두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의 색 같은 붉었고, 맛은 달콤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 상이한 대상들에서 붉은 색을 보고, ‘붉음(redness)’이라는 관념을 추출할 때 이를 추상(abstracting)이라 한다. 이 ‘붉음’의 관념은 각각의 대상들과 동반하였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른 관념들(모양, 맛 등등)은 모두 도외시됨으로써 성립한다.

⑧ 명명과 추상

추상에 의해 특정한 존재자들로부터 받아들인 관념들이 같은 종류의 모든 존재자의 일반적인 대표물(general representative)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그러한 추상적인 관념에 상응하여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름(general name)이 된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정확하고 생생한 현상(precise, naked appearance)을,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혹은 어떤 다른 것들과 함께 마음에 들어 왔는지를 고찰함이 없이, 지성은 <그것들에 붙여진 이름과 함께> 실재하는 존재자들을 이 유형(pattern)과 일치하는 경우, [같은] 종류로 분류하고 그것에 맞는 관념들의 이름을 붙이는 표준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해서 마음이 어제 우유에서 받아들인 그 색이 오늘은 백묵이나 눈에서 관찰되고, 마음은 그 현상만을 고려함으로써 그 색을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의 대표물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에 ‘흰(whiteness)’이라는 이름을 주어, 그 소리에 의해서 어디서나 상상되고 혹은 마주치는 그와 동일한 성질을 지시한다. 이와 같이 해서 보편자—그것을 관념(idea)이라 부르는 개념(term)이라 부르는—가 형성되는 것이다.”(Ⅱ,11,9)

로크는 보편자(Universal)에 대한 우리의 관념 또는 말이 경험적 유용성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감각은 무수히 많은 관념들을 수용하게 되는데, 각각을 매번 다른 것으로 명명하자면, 무한히 많은 이름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음은 동일한 혹은 매우 유사한 관념을 각각의 존

재물로부터 추상하고, 이렇게 추상된 관념에 대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상기한 난점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보편자다. 따라서 로크에 따르면 보편자란 단지 명칭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⑨ 명명과 보편자의 문제

중세(특히 11-12C)에는 보편자의 실재 여부를 놓고 뜨거운 철학적 논쟁이 있었다. 이를 보통 ‘보편논쟁’이라 부른다. ‘보편논쟁’은 특히 유명론(nominalism)과 실재론(realism)으로 대별되는 두 입장의 치열한 대립을 야기시켰다. 로스켈리누스와 오컴으로 대변되는 유명론자들은 보편자란 단지 이름(명칭)에 불과하다고 함으로써 보편자의 실재성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기욤과 같은 실재론자들은 보편자가 실체로서 그 자체로 실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보편자에 대해 유명론자들은 이는 단지 이름에 불과하며, 실재하는 것은 개별적 인간이라는 입장이며, 실재론자들은 ‘인간’이 실체로서 먼저 실재하고, 개별적인 인간은 여기에 우연적인 여러 성질들이 부가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개별자들로부터 그 개별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념을 추상하고, 그렇게 추상된 관념(보편자)에 이름을 붙여 그 이름을 통해 추상된 관념을 보존한다는 로크의 입장은 전형적인 유명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5) 지성(Understanding)

① 지성과 지각

우리가 지성의 활동이라고 부르는 지각은 세 가지 종류이다. 첫째,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의 관념의 지각, 둘째, 기호의 의미에 대한 지각, 셋째, 우리의 관념의 어떤 것 간에 있는 연결 혹은 반대, 일치 혹은 불일치에 대한 지각이 그것이다.(II,21,5)

일반적으로 지각은 의식된 감각 또는 주목된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지성은 감각 또는 지각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파

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로크는 지각이라는 말을 매우 넓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지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각의 힘(the power of perception)이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II,21,5)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지각 작용을 마음의 능동적 작용이라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작용으로 비교, 추상, 복합을 들었다. 그렇지만 과연 내 마음 안에 어떠한 관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과 일정한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나아가 관념이나 기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동일하게 지각이라고 볼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② 지성은 암실이다.

나는 감히 가르치기를 꾀하지 않고, 탐구하기를 꾀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감각과 내적인 감각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지성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이것들만이 빛이 이 암실 안으로 넣어질 수 있는 창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지성은 외계의 볼 수 있는 유사물 혹은 외부 사물의 관념을 넣을 어떤 작은 구멍만을 남기고 빛으로부터 전적으로 차단된 작은 방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II,11,17)

경험론자들의 마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규정은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백지 상태’(tabula rasa)라는 규정이다. 라이프니츠는 ‘백지 상태’라는 말로 경험주의자들이 마음에 그 어떤 타고난(innate) 관념이나 원리는 없고, 태어나 이후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그 백지가 채워져서 서로 상이한 그림을 가진 마음이 된다는 것(서로 상이한 관념과 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로크가 지성을 ‘암실’이라고 한 것도 색깔만 정반대

일 뿐 내용상 ‘백지’와 동일하다. 인간의 마음은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암실에 어떠한 색과 모양의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암실의 상태가 달라지듯이, 마음이 어떠한 경험을 가지느냐에 따라 상이한 관념과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6) 지식의 시초

이것들이(지각, 파지, 식별 등) 인간 지식의 참된 시초이다. —이와 같이 해서 나는 마음이 어디서 그 최초의 대상들을 가지며, 어떤 단계에 의해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구성하는 관념들을 저장하고 축적하여 나가는가 하는, 인간 지식의 최초의 발단에 대한 짧고 또 내가 생각하기로는, 참된 역사를 논술했다. 여기에 있어서 내가 옳은지 어떤지를 경험과 관찰에 호소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진리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사물들을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이고, 사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상상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진 바대로 존재한다고 결론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II,11,15)

과연 그의 감각과 반성(지각, 파지, 식별 등)에 대한 설명이 인간 지식의 기원을 충분히 정당하게 설명하였는가는 의문시된다. 지식의 기원에 대한 로크의 경험론적 전제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즉, 모든 지식은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 마찬가지로 합리론자들에 대한 로크의 견해 또한 분명하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그는 합리론자들의 주장이 단지 상상된 것 혹은 이전 사람들이 상상한 것을 무반성적으로 학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본유 관념에 대한 다음의 보다 본격적인 비판에서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칸트는 인간 지식의 시초(기원)에 관한 로크의 경험주의적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근대에 와서 (유명한 로크의) 인간 지성에 관한 일종의 생리학은 일단 전래의 모든 분쟁에 종말을 고해서, 형이상학이 하는 주장의 합법성 여부를 단연 결말 짓는 듯 싶었다. 그러나 밝혀진 결과는 자칭 여왕의 본래 출신은 보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천민이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여왕이라는 참칭은 당연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로크가 형이상학에다 경험론의 계보를 덮어씌운 것은 사실은 잘못이었다.”(KrV. AX) 칸트의 이런 평가는 로크가 대륙 합리론자들의 독단적 주장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모든 지식의 원천을 경험에만 둔 것은 오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II. 본유 관념 비판

* 로크가 본 본유 관념설

다음은 몇몇 사람들에게 인정된 의견(opinion)이다. 지성에는 어떤 본유적 원리들(innate principles), 몇몇 근본적인 개념들(primary notions), 공통 개념들, 특성들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영혼(soul)은 그 시초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과 함께 세상에 나온다.(I, 2, 1)

로크가 본유 관념(또는 원리)에 대한 주장을 ‘의견(opinion)’이라고 명시한 것부터가 이미 그것은 ‘지식(knowledge)’이 아니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 로크는 본유 관념설을,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원리나 개념 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변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로크는 허버트 경의 공통 개념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였다고 말하지만(I,2,15), 그렇다고 해서 허버트 경의 본유 관념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데카르트와 같은 특정한 어느 개인, 또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 이론의 모든 지지자들을 전체적인 논의에 포함시켜 비판하고자 한다. 따라서 엄밀한 학술적 비판에 입각한 이론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당시에 유행하던 이론적 풍조에 대한 계몽적 차원의 저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본유 관념에 대한 로크의 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사변적(speculative)이고 실천적인(practical) 두 원리가 있다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I,2,2)

로크는 본유 관념설을 사변적 원리와 실천적 원리로 구분하여 비판한다. 로크가 보기에, 당시에 널리 동의된 본유적·사변적 원리의 대표적 예가 바로 동일률과 모순율이다. 동일률과 모순율이란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I,2,4)는 것을 말한다. 본유적·실천적 원리에 관해서는 사변적 원리와 같은 특정한 명제를 지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도덕규칙이나 덕목, 예를 들어 정의(justice), 계약 준수, 양심이나 덕(virtue) 등을 사례로 삼아 비판한다. 로크에 따르면 본유 관념설을 근거짓는 가장 근본적인 논거 또는 가장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논거는 ‘보편적인 동의(universal assent)’이다. 이에 대해 로크가 어떻게 비판하는지는 다음을 보자.

1. 본유적·사변적 원리 비판

(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

보편적 동의로부터 유도된, 이 논증은 모든 인간이 동의하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동의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러한 보편적 동의에 이를 수 있는 밝혀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진리가 본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행을 내포한다.(I,2,3)

보편적 동의에 관한 이 논증을 결론짓기 위해, 나는 본유적 원리들에 대한 이러한 옹호, 즉 만약 그것들이 본유적이라면,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동의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본유적 이면서 아직 동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에게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면서도 동시에 그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만큼이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I,2,4)

[본유 관념들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자연적으로(태어나면서부터, n-aturally) 마음에 새겨진(각인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나 백치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어린 아이와 백치는 동일물이나 모순율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본유적 진리에 꼭 부수되어야만 하는 보편적 동의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I,2,5)

로크는 본유 관념설이 ‘보편적 동의’에서 유도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철학적 훈련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보편적 동의’가 본유 관념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것이며, 그래서 로크가 정확히 어떤 본유 관념설 지지자를 대상으로 비판을 펼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철학사적으로 볼 때 본유 관념을 옹호한 것은 대륙 합리론자들, 예를 들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이다. 이 중에서 라이프니츠는 후일 로크의 『인간지성론』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신인간지성론』을

저술하였고 스피노자는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므로, 로크가 상대할 수 있었던 대철학자는 데카르트 외에는 없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보편적 동의’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로크가 상대하고자 한 것은 세련된 철학 이론과 학파라기보다는 아마 당대의 지식인에게 유행처럼 유포되어 있는 의견이나 풍조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본유 관념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편적 동의’에서 찾는다고 로크는 본다. 로크가 이에 대해 비판하는 논거는 논리적인 측면과 경험적 증거라는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논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로크 반론의 핵심은 임의의 주장에 대한 보편적 동의가 곧 그 주장의 진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험적 증거에 관해서는 로크는 좀 더 세부적이고 풍부한 예들을 제공한다. 본유 관념설의 대표적 예는 동일률과 모순율이다. 동일률은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것이다.”(I,2,4)로 표현되고, 모순율은 “동일한 사물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I,2,4)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원리들에 대해 동의는 고사하고 이런 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에 로크는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본유 관념설이 보편적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면(로크는 그렇게 생각한다), 본유 관념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본유 관념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된다. ‘① 대표적인 본유적 관념(또는 원리)마저도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본유적이지 않다. ② 설사 이 관념(또는 원리)들이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다할지라도, 보편적 동의가 곧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유 관념설은 틀렸다.’

(2) 이성 사용에 의거한 논증 비판: 경험적 반박

이를 피하기 위해 [보편적 동의에 대한 반론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원리들을 알게되고 동의하게 되며, 이것으로 그 원리들이 본유적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대답한다.(I, 2,6)

왜냐하면 이 답변을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의 목적에 적용하려면, 둘 중의 하나 즉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게 되자마자 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가정된 이들 문자가 알려지게 되고 관찰된다는 것을 의미하든가, 혹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고 행사하면 이 원리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확실히 인간으로 하여금 이 원리들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든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I, 2,7)

로크는 보편적 동의에 근거한 본유 관념설을 비판한 후,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 본유 관념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박한다. 이에 대한 로크의 논박 역시 보편적 동의에 대한 논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경험적 증거에 의한 논박이고, 두 번째는 논리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로크는 이후에 나올 본유 관념에 대한 논박 역시 모두 이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이성 사용과 본유 관념에 대해서 로크는 우리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사례들이 이를 충분히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간단한 연산(덧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아니면 곧바로 동일률에 근거한 ‘ $a=a$ 라면, $a+c=b+c$ ’와 같은 원리를 알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성을 사용하게 되자마자 본유 관념이 있음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 반박이라고 칭할 수 있는 로크의 반론이다.

(3) 이성 사용에 의거한 논증 비판: 논리적 반박

만일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그들 원리가 본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의 주장 방식은 이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발견하여 주고, 우리로 하여금 굳게 동의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이나 모두 나면서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유적인 진리의 표시가 된 보편적 동의는 이성을 사용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 진리를 알게 되고 동의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학자들의 공리와 수학자들이 여기서 연역해 낸 정리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어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이성을 사용해서 발견된 것들이고, 이성적인 동물인, 만일 그의 사고를 옳게 사용하면,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본유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I, 2, 8)

두 번째 논리적 부당성에 대한 로크의 지적은 ① 만약 이성 사용이 본유 관념(원리)의 근거가 된다면, 이성 사용을 통해 알려지는, 그러나 통상 본유 관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식들도 역시 본유적이라고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경우라면, 기하학이나 수학에 있어서 공리와 정리, 그리고 그것들에 의거한 증명은 모두 이성 사용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이므로 모두 본유 관념(원리)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공리들은 본유적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② 설사 이성을 사용하는 시점에 어떤 본유적이라고 알려진(혹은 주장되는) 관념(또는 원리)이 알려짐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알려진 관념(또는 원리)의 본유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성이 본유 관념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단지 알려진 명제에서 알려지지 않은 명제를 연역하는 능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만약 이성이 이미 알려진 명제 혹은 원리에서 알려지지

않은 진리(참)를 연역하는 능력에 불과하다면(설사 우리가 그 원리들을 믿는다하더라도), 어떻게 이성의 사용이 본유적이라고 가정된 원리들을 필연적으로 발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I, 2, 9)

(4) 이해 가능성에 의거한 논증 비판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동의하게 된다고 둘러댄 이것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본유적이라고 생각된 진리와 후에 얻어지고 배워진 다른 진리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제안되고 그 속에 포함된 말들이 이해되자마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동의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원리라고 부르는 것에 보편적인 동의를 확보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말들을 듣고 이해하자마자, 이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것이 그 명제가 본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I, 2, 17)

< 이해가능성이 본유성의 논거가 될 수 없다 >

이 논증은 동의에 기초한 논증의 하위 논증이라 할 수 있다. 로크는 본유 관념설의 근거 중 하나가 이해에 의한 동의라고 생각하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주장한다. 로크는 이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이해되자마자 동의되는 것이 본유적인 것의 표징이라면, 이해되자마자 동의되는 것은 모두 본유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유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달콤한 것은 쓴 것이 아니다.’ 나 ‘1000’과 같은 숫자 등 수많은 명제와 관념들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 이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명제와 관념들에 대해서는 본유 관념설을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본유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어떤 관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들이 본유적이

라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 연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본유성은 정도(degree)를 말할 수 없다>

로크의 두 번째 반론은 첫 번째 반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만약 이해되자마자 동의되고 그렇다면 본유적임이 인정된다고 승인한다면, 이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본유성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관념이나 원리의 본유성에 정도(degree)가 있다는 것은 본유 관념설을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해 가능성에 근거하여 본유 관념설을 옹호하는 것은 부당한 논증이다.

<플라톤 비판>

로크의 세 번째 논박은 플라톤의 상기설을 겨냥하고 있다. 플라톤은 『메논』이라는 대화편에서 노예 소년에게 주어진 임의의 정사각형에 대해 그 정사각형의 면적에 꼭 2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라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전에 기하학을 전혀 배운 일이 없는 이 소년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드디어 그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 사례는 우리가 경험(이나 학습) 이전에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경험을 매개로 그 지식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 소년의 비유는 본유론자들이 지식의 본유성을 옹호하기 위해 종종 애용하는 사례이다. 하지만 로크는 이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즉, 주장되거나 증명되기 전에 이미 그 답이 알려져 있다는 것은 지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그런 종류의 지식(기하학의 지식)을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성(또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능력은 문제의 해결 능력이지 지식의 보관

창고가 아니라는 것이 로크의 반론의 핵심이다.

2. 본유적·실천적 원리 비판

(1) 보편적 동의에 의거한 논증 비판

첫째로 나는 인간의 행위가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자라고 항상 생각해왔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의 실천과 어떤 사람들의 공공연한 언명이 이들 원리를 의심하거나 부인했으므로 보편적인 동의—비록 우리는 그것을 어른들 간에서만 찾아야 하겠지만—를 확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편적 동의 없이는 그 원리들을 본유적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관조에만 그치는 본유적 실천원리를 가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이하고 불합리하다. 본성에서 유래한 실천원리는 작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들의 진리성에 대한 사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행위의 일치 역시 가져와야만 한다.(I, 3, 3)

로크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변적 본유 관념 비판에서 행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 로크는 본유적·실천적 원리들 역시 보편적 동의에 의존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반박도 앞선 본유적·사변적 원리 비판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증거에 의한 반박과 논리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전자에 관해 로크는 도덕 법칙이 일반적으로 사변적 원리들보다 더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지 않음을, 즉 각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도덕법칙으로 인정하는 바가 매우 다름을 지적한다. 후자에 관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논리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① 앞서의 사변적 원리 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동의되고 있다는 것이 그 관념(원리)의 본유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본유 관념 비판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로크의 생각이다. ②

설사 실천적 본유 관념이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단지 그런 관념(도덕법칙)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천적 원리의 본유성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천적 원리나 관념의 본유성은 그 행위까지도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유론자들의 주장은 실천적 본유 관념의 본유성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2) 도덕성의 기원에 의한 비판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바라게 하고 불행을 싫어하게 하였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실로— 실천 원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본유적인 실천 원리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리고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을 바라는 경향성(inclination)이지 지성에 새겨진 진리의 인상(impression of truth)은 결코 아니다.(I, 3, 3)

이 논증은 경험적 증거에 의한 반박에 해당하지만, 로크의 도덕법칙 혹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로크의 근본 관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별도로 다룬다. 로크 역시 인류가 각각의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고유한 도덕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즉, 일반적으로 덕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는 도덕성 또는 그와 관련한 어떤 것이 본유적이기 때문에 추구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익)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로크는 양심이 어떠한 본유적 도덕 규칙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가책없이 행위된 범죄가 있음을 그 사례로 제시한다. 즉,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이루어진 범죄가 있다는 것은 양심이 우리의 실천과 관련하여 본유적 원리로 작용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선을 바라는 경향성(Inclination/Neigung)’은 ‘선에 대한 의지(Will/Wille)’와는 완전히 상반된 전제를 가진 표현이다. 후자는 인간이 본성상 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선의지의 내용(도덕률)마저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표현이다. 그러나 전자는 선이나 도덕률을 자연적 소질 또는 타고난 본성에 따라 형성되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는 통상 자기 보존 욕구와 결부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보존 욕구에 순응하는 것들은 감정상 쾌감을 유발하고, 역행하는 것들은 불쾌감을 유발한다. 경향성을 윤리적 능력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은 그런 이유로 쾌락을 주는 것은 자기 보존에 ‘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자기 보존을 위해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 사회 구성체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감정적인 합의나 전승되어진 가치관에 따르는 형태로 도덕적 규율이 성립한다. 로크 역시 큰 틀에서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겠고, 그래서 그는 실천적 원리들의 본유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획득 방식에 대한 비판

이들 원리는 어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력을 가지자마자 곧 그들이 믿는 신심에 의해서 더욱 확신되어서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본유적인 진리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렇게 가르쳐진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들 자신의 마음을 반성할 때에는 그들의 기억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쳐진 의견들보다 더 오래된 어떤 것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기원을 그들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명제들은 확실히 신의 인상이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며, 다른 누구에

게서도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주저 없이 결론짓는 것이다.(I,3,22-3)

과연 최초에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었겠는가? 그 후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 최초의 도덕률을 학습되고 전승함으로써 도덕일 수 있겠지만, 로크가 보기에 본유 관념론자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실천원리의 본유성을 주장한다. 이는 모세의 십계명을 연상시킨다. 기독교 최초의 도덕률은 결국 신에 의한 명령이었다는 것이고, 이런 명령을 우리 인간은, 석판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각인된 채 태어난다고 본유 관념론자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한 로크의 반론은 아주 명백하다. 이런 태도는 우리 지식의 기원에 대해 우리의 능력들을 고찰하는 수고를 회피하는 태만한 행위다. 도덕률은 경험된 여러 관념들을 비교하고, 추상하는 우리의 반성에서 도출된 하나의 복합 관념이라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단,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도덕률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도덕률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로크는 지식의 확실성에 있어서 도덕적 지식을 수학적 지식 다음으로 긍정하고 있다.

3. 그 밖의 본유 관념에 대한 비판들

(1) 관념의 기원에 대한 비판(1)

감관이 먼저 특수한 관념들을 넣고, 빈 상자를 채운다. 그리고 마음이 점차로 그들 중의 어떤 것에 낯익게 되어서 그것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고,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추상하고 점차로 일반적인 이름들을 익혀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추리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그 재료가 되는 관념과 언어가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성의 사용도 나날이 더 눈에 띄이게 된다. 그러나 비록 일반적인 관념을 가진다는 것과 일반적인 말과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함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본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지 나는 모르겠다.(I,2,15)

기본적으로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마치 빈 상자와 같고, 그 상자는 감각 기관을 통한 관념의 획득에 의해 채워지는 것일 뿐, 본래부터 상자를 채우고 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본다. 위 인용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들(빈 상자→암실, 감각, 기억, 명명, 추상 등)에 대해 이전에 설명한 항목을 참조한다면, 인용문을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 관념의 기원은 모두 감각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성이란 단지 추리 능력일 뿐 본유 관념이 새겨진 어떤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고 로크는 주장한다.

(2) 관념의 기원에 대한 비판(2)

결론을 말하자면 어떤 관념들이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의 지성에 주어진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진리들은 마음이 그 관념들을 명제로 표현하자마자 그 관념들로부터 나온다. 다른 진리들은 그것이 발견되고 동의될 수 있기까지는 질서있게 놓여진 일련의 관념들과 그들 관념들의 적절한 비교, 그리고 주의해서 이루어진 연역을 필요로 한다. 첫째 종류의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손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유적이라고 잘못 생각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들 중의 어떤 것은 실로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 우리의 각 기능에 주어지고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역시 신이 인간에게 그것이 사용됨에 따라서 진리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보존하는 여러 기능과 방법들을 갖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각 기관들과 우리 마음의 여러 힘이 사용되게 됨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념과 개념이 우리와 함께 태어날 수 없음은 예술과 학문이 우리와 함께 태어날 수 없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관념에서 발견되는 큰 차이는 마음이 그 기능을 달리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I,4,23)

관념의 기원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로크의 기본적인 관점은 후천적이라는 것이다. 선천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관념이나 지식의 기원이 신 또는 인간 이성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지식의 내용까지도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로크는 이와는 반대로 지성은 일종의 빈 상자 또는 백지와도 같은 상태이고, 그 상자와 백지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성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이한 지식과 관념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이러한 경험론은 일상적 의식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본유적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관념(또는 원리)들은 사실 모두 경험을 통해 획득된 것에 근거하여 추리한 것이거나 추상화된 것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3) 동일성의 원리 비판

본유적인 원리가 있다고 우리를 설득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체에서 고찰하지 않고 그 명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로 나누어서 고찰했다면, 그 원리가 본유적이라고까지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진리를 구성하는 관념들이 본유적이지 않다면 그런 관념들로 구성된 명제가 본유적일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I,4,1)

로크의 주장은 ‘원리들은, 만약 그 원리들의 관념이 본유적이지 않다면, 본유적이지 않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본유적 원리인 동일성 원리가 비판된다. 동일성 원리란 ‘같은 사물이 동시에 있으면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는 명제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음과 다름, 가능성과 불가능성 등과 같은 관념— 이 관념들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복합 관념 중 관계 관념에 해당한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관념들은 예를 들어 ‘하얀’, ‘검은’과 같은 관념을 가진 후에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동일성 원리를 이루는 관념들이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설사 동일성이나 모순율과 같은 원리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경험적 관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유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4) 전체와 부분 관념 비판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수학의 원리를 조사하자. 이것은 본유적인 원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 못지않게 그렇게 생각될 만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된 전체와 부분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관념이 고유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속하는 적극적인 것은 연장과 수이며, 전체와 부분은 오직 이것들만의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만일 전체와 부분이 본유적인 관념이라면 연장과 수도 또한 그래야만 한다.(I,4,6)

이 비판 역시 ‘어떤 명제(또는 원리)가 본유적임을 주장하려면, 그 명제(또는 원리)에 포함된 관념도 본유적이어야만 한다’는 로크의 기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주장이다. 로크에게 부분과 전체는 양태 관념의 일종이다. 이 양태 관념은 단순 관념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로크는 생각한다. 상기한 원문에서 보듯이 부분과 전체는 연장과 수로부터 추상된 관념이고, 연장과 수는 단일한 관념(예를 들어 특정 공간이나 ‘1’과 같은 수)의 연속적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단순한 양태 관념이다. 그러므로 연장과 수 관념에 의존하는 전체와 부분의 관념은 결국 감각을 통해 획득되는 관념이 여러 단

계를 거쳐 복합되고 추상화된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서술하는 원리 역시, 부분과 전체의 관념이 본유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유적이지 않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5) 신 관념 비판

만일 어떤 관념이 본유적이라고 상상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신의 관념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본유적인 관념 없이는 본유적인 도덕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I,4,8)

위의 언명에 함축되어 있는 로크의 생각 중 하나는 신에 대한 관념이 본유 관념설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생각은 크게 틀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도 『방법서설』에서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완전성이라는 원리에만 내 추리의 기초를 두고서 나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법칙들을 모두 증명하려고 힘썼고, 또 그 법칙들은 실사 하느님이 많은 세계를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들임을 밝히려고 힘썼다”(5부)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 관념이 본유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관념들의 비본유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로크는 본다. 그럼 로크 반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1) 신 관념에 대한 경험적 반박

만일 우리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상태와 담화를 주의깊게 유의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비교적 문명된 나라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별로 강력하고 명료한 아무 관념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I,4,8)

만약 신 관념이 우리 인간에게 본유적인 것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 증거들은 신에 대한 관념이 없는 민족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신 관념은 본유적이지 않다.

2) 신 관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

그러나 모든 곳의 모든 인간이 신의 관념을 가진다고 해도 [...] 여가서 신의 관념이 본유적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I,4,9)

일 신의 관념이 인간의 모든 종족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또 모든 나라에 있어서 성숙하게 자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반적으로 시인된다면 이것이 신의 관념에서 추리될 수 있는 전부이다.(I,4,11)

여기에서의 로크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사람들이 신 관념을 가진다 = ②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 관념은 보편적으로 시인된다 ≠ ③ 신 관념은 본유적이다. 즉, ①과 ②가 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③이 참임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로크의 분석이다. ①과 ②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①과 ②가 참이라는 것만 말할 뿐이다. 여기에 덧붙여 로크는 본유 관념론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졌다는 것이 신의 선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신에 의해 신의 관념이 각인되었다고 대답(I,4,12)하지만, 이 역시 신의 관념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옹호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마지막으로 만약 신의 관념이 본유적이지 않다면, 다른 어떤 관념도 본유적일 수 없다(I,4,17)고 비판한다.

(6) 실제 관념 비판

나는 [...]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것이 유익할 다른 또 하나의 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실체(substance)의 관념이다. 우리는 그 관념을 감각이나 반성을 통해 갖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가질 수도 없다. 만약 자연이 그 어떤 관념을 우리에게 제공하려 하였다면, 그 관념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에 조달될 수 있는 그러한 관념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실체라는 관념은 다른 관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관념도 가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라는 말로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 어떤 것(즉,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명확하고 적극적인 어떤 것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확실한 가정(uncertain supposition)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의 기체(substratum) 또는 담지자(support)로 여긴다.(I,4,18)

<실체관념의 본유성 비판>

일반적으로 실체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근대 합리론자들은 신, 정신, 물체, 모나드 등을 ‘실체’라고 생각하였으며, 실체에 대한 관념은 경험으로부터 획득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본유 관념으로 생각하였다. 위 글에서 보듯이 로크 역시 실체 관념이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될 수 없다는 것이 곧 그 관념이 본유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 관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크가 제시하고 있는 길은 경험으로부터의 추상이다. 즉 실체는 일종의 추상 관념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상의 성질에 대한 관념들뿐인데, 성질을 통해 대상을 생각할 때, 그 성질을 담지하고 있는 그 무엇을 상정하게 되고, 이러한 그 무엇을 ‘실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칭한다는 것이다.

<실체의 존재유무>

실체관념의 본유성에 대한 로크의 비판을 따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체 관념이 본유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 ‘실체’로 명명되는 그 어떤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관념상의 허구(fiction)일 뿐이라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로크가 실체 관념의 본유성을 비판하는 것은 그 관념의 기원이 경험에 있음을(복합 관념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체의 존재유무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성질의 담지자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체 자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실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로크의 입장을 보려면 복합 관념 중 실체관념의 항목을 참조하라.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실체>

칸트는 로크가 ‘실체(substance)’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바를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 간주한다. 칸트는 ‘상징(symbol)’이라는 말을 ‘개념에 대응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이유는 그 개념에 상응하는 ‘직접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초(토대, 지주), 의존한다, 무엇으로부터 유출한다, 실체(로크가 표현하고 있듯이 우유성들의 담지자)라는 말들과 그 밖에도 무수한 다른 말들은 도식적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며, 직접적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직접적 직관과의 유비에 의해서 개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직관의 대상에 관한 반성을 전혀 다른 개념, 즉 아마 어떠한 직관도 직접 대응할 수가 없는 개념으로 번역함으로써 개념들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다.”(KU 257) ‘실체’가 일종의

상징이라는 칸트의 해석은 실체 자체를 알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실체의 성질과 그에 따른 관념을 통해서만 실체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로크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Ⅲ. 관념

1. 관념의 정의

그것(관념, idea)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 지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term)이므로, 나는 환상(phantasm), 개념(notion), 종(species) 또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작동한 것 등을 표현하기 위해 ‘관념’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I,1,8)

여기서 사용한 관념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대한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만족 등, 그들 마음의 작용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감정도 아울러 포함한다.(II,1,4)

적어도 그 적용 범위만 놓고 본다면, 마음이 떠올리는 모든 것(감각에서부터 사고에 이르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크의 ‘관념’은 칸트의 ‘표상(Vorstellung)’과 거의 동가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로크의 관념에 대한 언급이나 정의는 너무나 폭이 넓고 애매하여 이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념’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던 바를 정리하자면, 일단 다음과 같은 해석이 유력할 것이다. “현대 철학자 암스트롱도 로크의 관념이 지극

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로크의 저서에서 ‘관념’이 가진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다른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1) 감각 지각sense-perception 또는 감각 인상sense-impression, 2) 신체적 감각bodily sensation(고통이나 간지러움 같은 것), 3) 심적 이미지 즉 심상 mental image, 4) 사고와 개념thoughts and concepts”(김효명, 『영국 경험론』, 29쪽. 각주14).

그러나 이와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의미 분류 외에 로크의 관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과연 로크가 관념을 ‘심적 작용 또는 그 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하였는지 아니면, ‘심적 작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로크는 지각이나 기억 등을 관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각이나 지각의 결과로 마음에 획득되는 것을 관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관념을 지성의 대상이라고도 말한다.

“‘phantasm’은 흄스의 글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 말로 로크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런 외적인 원인도 없이 마음속에 생겨난 심상을 말하며, ‘notion’은 17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말로서 현재 우리가 ‘개념’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뜻에 가깝다. 그리고 ‘species’라는 것은 좀 복잡하다. 스콜라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감각적인 species도 있고, 지적 species도 있다. 로크가 말한 species는 감각적인 종류의 것, 즉 외적 대상이나 성질이 마음에 나타남을 뜻한다. 단순 감각 관념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예컨대 내가 사과를 지각할 때 생기는 ‘빨강’이라 불리는 단순 관념은 species

에 속하고 ‘사과’라 불리는 복합 관념은 notion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일단 지각하였던 그 사과를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낼 때라든지 아니면 아직 한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괴상한 동물을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생기는 관념은 phantasm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김효명, 『영국경험론』, 아카넷, 28-9쪽)

2. 관념의 원천

우리는 이성(reason)과 지식의 모든 재료를 어디서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로 경험(experience)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 [...] 우리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기초 지워지고, 궁극적으로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외적인 감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용되거나, 혹은 스스로에 의해서 지각되고 반성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작용에 대해서 사용된 우리의 관찰이 사고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고, 우리가 가지거나 혹은 자연히 가질 수 있는 모든 관념은 여기서 우러나는 것이다.(II,1,2)

로크는 모든 지식의 원천을 경험(experience)에 두고 있다. ‘경험’이라는 말로 로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경험이 관념의 원천이라고 하였을 때, 경험이란 감각(sensation)이나 반성(reflection)을 의미한다. 즉 관념은 감각과 반성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의 모든 관념은 이들 중의 어느 하나에서 온 것이며, 다른 원천이란 없다.”(II,1,5)고 단언한다. 우리의 모든 관념은 경험에 의거하며 그것에 의존한다는 로크의 일반 원리는 고전적인 영국 경험주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유적인 관념을 믿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경험주의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관념 또는 지식의 원천을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하는 것과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험으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관념 또는 지식의 원천에 있어서 경험 이외의 다른 원천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과 함께’라고 말할 때에는 관념이나 지식이 경험을 한 후에 형성되고 획득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천이 반드시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특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대체로 우리의 관념과 지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 합리론자(본유론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념과 지식이 전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확정짓는 것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 감각

우리의 감각기관이 감각할 수 있는 특정한 대상과 관계해서, 그들 대상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사물에 대한 몇몇 명확한 지각을 마음속에 전달한다. [...] 내가 감각 기관들이 그러한 관념들을 마음에 전달한다고 말할 때, 나는 감각 기관들이 외부 대상들로부터 그 지각들을 산출한 것을 마음에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관념들의 이 거대한 원천을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감각(sense)에 의존하고 거기에서 도출되어 지성에 이르는 이 거대한 원천을 나는 감각(sensation)이라고 부른다.(Ⅱ,1,3)

로크의 ‘감각’에 대한 정의, 또는 일반적으로 영국 경험론자들의 감각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 심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감각’ 개념의 고전적인 원형을 담고 있다. 오늘날의 의미로 본다면, 감각이란 ‘자극이 신체에 수용되면 신체 내의 복잡한 작용에 의하여 중추 신경에 전해졌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대응’을 말한다. 로크도 이와 유사하게 “감각은 지성에 어떤 지각을 산출하는 육체의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진 운동 혹은 인상”(Ⅱ,1,23)이라고 말한다. 현대적 정의나 로크의 정의에 있어서 공통적이면서 핵심

적인 사항은 감각이란, 결국 외부 대상의 자극에 대한 마음(또는 신체)의 반응(또는 반응 결과)라고 하는 점이다. 이에 비해 지각(perception)이란 한마디로 축약하면 ‘의식된 감각’이라고 하겠다. 즉, 인식 주관이 다양한 감각에 대해 그것이 감각임을 자각하게 되면, 그 자각된 감각을 지각이라 지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각이 감각 기관의 말단기능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각이란 이렇게 수용된 감각이 뇌의 기능에 의해 통합되고 인지된 것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로크는 관념의 원천으로 감각과 반성을 말하였으므로, 지각은 감각이 아니라 반성 작용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념의 원천을 감각과 반성에 두었을 때, 반성이란 결국 감각에 대한 반성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관념의 진정한 원천은 감각에 있음을 로크는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2) 반성

경험이 지성에 관념을 공급하는 다른 원천은, 지성이 얻은 관념에 대해서 지성이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있어서의 우리 자신의 마음 작용에 대한 지각이다. 이 작용은 정신이 반성하고 고찰하게 될 때, 외부의 사물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다른 무리의 관념을 지성에 공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들은 지각, 사고, 의심함, 믿음, 추리함, 앎, 의지함 등 모든 다른 우리 자신의 마음의 행위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마음 행위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관찰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관을 자극하는 물체로부터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명확한 관념을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지성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관념의 이 원천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그 자신 속에 가진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외적인 대상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므로 감관은 아니지만, 감관과 아주 비슷하며, 충분히 적절하게 내적인 감관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를 감각이라고 불렀으므로 이것은 반성(reflectio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Ⅱ,1,4)

우리 관념의 또 다른 원천을 로크는 ‘반성’이라고 말한다. 우선 로크가 ‘반성’이라는 말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명시된 바와 같이 지각, 사고, 의지 등 감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의 정신 작용들이다. 이는 후대에 칸트가 인식 능력들에 대해 적어도 이성, 지성, 판단력, 감성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반성’이라는 말로 로크는 너무 많은 정신 작용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로크가 ‘반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그가 반성을 ‘내적인 감각’, 즉 ‘내감’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반성을 일종의 감각으로 간주하되, 외부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감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만약 ‘반성’이 ‘내감’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감각’은 ‘외감’이라 불리울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념은 어쨌거나 감각에서—외적 감각이든 내적 감각이든—온다고 그는 주장하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념의 원천인 감각과 반성과 관련하여 로크는 ‘반성의 관념은 <감각 관념> 이후에 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II,1,8)고 말한다. 이로써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관념의 진정한 기원은 감각이라고 로크는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로 우리의 관념이 감각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관념의 원천이 감각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로크에 따르자면, 그런 관념은 감각에 대한 반성을 통해 변형되고 조합되고 가공되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성의 여러 작용형태에 관해서는 인식 능력들을 다룬 항목을 참조하자.

3. 관념 획득의 시작

그리하여 사람은 언제 관념을 가지기 시작하는가 하고 추궁 받는다

면, 그 올바른 대답은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감각을 가질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각이 어떤 것을 운반해 들어오기까지는 마음속에는 아무 관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까, 지성 속에 있는 관념은 감각과 동시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Ⅱ,1,23)

그러나 아직도 나는 만일 어린 아이가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흰 것과 검은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장소에 갇힌다면, 그가 진홍색이나 초록색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없으리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파인애플이나 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들의 특수한 맛에 대해서 아무 관념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과 같음이 쉽사리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Ⅱ,1,6)

우리가 위와 같은 로크의 언급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는 관념은 감각과 동시에 획득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가 어린 아이의 예로써 말하고자 한 바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관념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태어난 이후 아무런 감각도 갖지 않고서도 그 어떤 관념을 가진다거나 사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감각 없이는 관념 없다’는 로크의 주장은 수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로크의 주장이 곧 모든 관념은 감각(또는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경험주의적 원리의 정당화로서 또는 본유 관념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마치 본유 관념론자들의 입장이라면 감각은 단지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의식의 전면에서 등장시키는 촉발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관념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념이 모두 경험관념임을 확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로크가 관념이 감각으로부터 시작

한다고 말하였을 때, 이를 감각과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는 배제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는 분명히 ‘관념’이라는 말로 모든 관념은 경험관념임을 의미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4. 관념의 종류

우리의 지식의 성격과 양태 그리고 그 범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념에 관해서 한 가지가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관념들 중 어떤 것은 단순하고 어떤 것은 복잡이라는 것이다.(II,2,1)

우리의 모든 지식이 감각과 더불어 그리고 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의 성격이나 범위, 원천 등을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로크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가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다룬 것 중 하나가 바로 관념의 여러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일이었다. 로크에 따르자면 관념은 크게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구분된다. 각 관념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구분 및 정의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흔히 오해될 수 있는 한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로크가 관념의 유래를 감각과 반성에 두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관념은 감각에 의해 획득되고, 복합 관념은 반성에 의해 획득된다는 도식적 연결이다. 여기에는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구분이 인식의 기원에 있다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다. 하지만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의 구분은 인식의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의 성격에 근거한다.

(1) 단순 관념

1) 단순 관념의 정의

비록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성질들은 사물들 자체에 있어서는 그들 간에 아무 거리도 없을 정도로 결합되고 혼합되어 있지만, 그들 사물들이 마음속에 산출하는 관념들을 단순하고 혼합되지 않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 우리의 모든 지식의 재료인 이들 단순 관념들은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방식들, 즉 감각과 반성에 의해서만 마음에 시사되고 공급되는 것이다. [...] 지성은 이들 단순 관념들을 거의 무한히 다양하게 반복하고 비교하고 결합하는 힘을 가지며, 그리하여 마음대로 새로운 복합 관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방식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은 하나의 새로운 단순 관념이라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발견하거나 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지성의 힘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확대된 지성일지라도 아무리 빨리 혹은 다양하게 사고하더라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Ⅱ,2,1-2)

단순 관념이란 첫째, 그 자체가 비복합적이며 그 안에 단일한 현상 또는 심적인 개념만을 갖는 관념을 말하며, 둘째, 그 관념이 서로 다른 관념들로 구별될 수 없는 관념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관념이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나 분할도 지각되지 않을 때 단순 관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단순 관념은 그 관념의 이름을 정의할 수 없는 관념이라고도 한다. 단순 관념은 그 관념을 마음이 만들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으며, 단지 마음이 수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단순 관념과 관련하여 마음은 수동일 수밖에 없다.

2) 단순 관념의 종류

우리가 감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관념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순 관념들이 우리 마음에 접근하고 스스로 우리에게 지각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방식과 관련해서 그 관념들을 고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적절할 것이다. 그러면 첫째, 단지 한 감각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 둘째로, 하나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전해들어오는 다른 것들이 있다. 셋째로, 반성으로부터만 가질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 넷째로, 감각과 반성의 모든 방식에 의해 마음에 나타나고 시사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II,3,1)

로크가 분류하고 있는 단순 관념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한 감각의 단순 관념, 여러 감각의 단순 관념, 반성 관념 그리고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 감각의 단순 관념이나 여러 감각의 단순 관념은 궁극적으로 감각의 단순 관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감각 관념, 반성 관념, 감각과 반성의 관념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① 감각 관념

감각 관념이란 말 그대로 감각을 통해 획득되는 단순 관념을 말한다. 감각의 단순 관념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단지 한 감각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것”(Ⅱ,3,1)이 있고, “하나 이상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전해 들어오는 것”(같은 곳)이 있다. 한 감각의 감각을 통한 감각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특별히 적응된 한 감각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어떤 관념들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흰색, 빨간 색, [...] 등등과 같은 이들 색깔들의 몇몇 농도나 몇몇 배합 및 혼합물들과 함께 오직 눈만을 통해서 들어온다.”(같은 곳) 이런 식으로 로크는 한 감각의 단순 관념을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연관지어 그 감각 기관들을 통해 획득되는 관념들을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하나 이상의 감각기관을 통해 획득되는 단순 관념이 있다. 로크는 “공간 또는 연장, 모양, 정지 그리고 운동”(Ⅱ,5,1) 등을 그러한 관념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눈과 촉각 양쪽에 지각 가능한 인상들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장, 모양, 물체의 운동과 정지의 관념들을 시각과 촉각 양쪽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Ⅱ,5,1)

② 반성 관념

마음은 앞 장에서 언급된 관념들을 밖으로부터 받아들인 후에, 그것이 그 자신의 안계를 안으로 그 자체에 돌려서 그것이 가지는 그들 관념들에 대한 그 자신의 작용을 관찰할 때, 그것이 외부의 사물들로부터 받아들인 것들의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관념들을 거기로부터 얻는다. 가장 빈번히 고찰되고,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 속에서 그들 관념들을 주목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한 두 크고 주된 마음의 작용은 이들 둘, 즉 지각 혹은 사

유 그리고 의지 혹은 의욕이다(사유의 힘은 지성이라고 불리고, 의욕의 힘은 의지라고 불린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들 두 힘 혹은 작용은 능력(faculty)이라고 불린다).(II,6,1-2)

반성관념은 감각을 통해 획득된 관념들에 대해 마음이 주목함으로써 얻어지는 관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성은 자신 안에 있는 관념들을 고찰하는 마음 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로크는 이러한 반성 작용을 지성과 의지로 구분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성(사유의 힘)과 의지(의욕의 힘)라고 부르는 바는 사실 반성의 다양한 작용 또는 양태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반성의 좀 더 세부적인 작용— 기억, 식별, 파지 등—에 대해서는 인식 능력을 다룬 항목을 참조하자.

③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

감각의 단순 관념과 반성의 단순 관념 이외에 “감각과 반성의 모든 방식들에 의해 마음에 전달되는 다른 단순 관념들, 즉 쾌락 또는 환희, 그 반대의 것인 고통 또는 불쾌, 힘, 존재, 단일성”(II,7,1)이 있다. 이처럼 쾌락과 고통, 환희와 불쾌는 감각과 반성 양쪽의 거의 모든 관념들을 수반하는 반면에, “존재와 단일성은 외부의 모든 대상과 내부의 모든 관념에 의해 지성에 연상되는 두 가지 다른 관념들이다.”(II,7,7)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의 물체들이 서로에게 산출하는 결과들을 고찰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신체의 일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자신 속에서 관찰함으로써 힘의 관념을 얻는다. 이 밖에 ‘힘’이나 ‘계기’(succession) 등도 감각과 반성의 단순 관념들 중 하나로 제시된다.

3) 단순 관념의 특징

단순 관념은 ① 수동적, ② 변경 불가능, ③ 대체 불가능, ④ 소멸 불가능, ⑤ 적극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단순 관념은 감각 관념이거나 그 감각 관념에 대한 반성 관념인데, 그 관념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 본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게다가 일단 마음이 이 단순 관념들을 갖기만 하면, 그것은 그것들을 변경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으며, 또한 마음 내키는 대로 새로운 것들로 대체할 수도 없다. 즉, “[...] 사고의 신속함이나 다양성에 의해 마음속에 하나의 새로운 단순 관념을 발명하거나 형성하는 것은 최고의 기지 또는 가장 확대된 지성의 힘도 가질 수 없다. 또한 지성의 어떤 힘도 마음속에 있는 단순 관념들을 파괴시킬 수 없다.”(Ⅱ,2,2) 마지막으로 관념은 그 관념을 일으키는 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여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은 뜨거움의 관념을 일으키지만, 차가움의 관념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관념을 우리의 지성에서 보자면 똑같이 적극적인 관념이다. “지성은 이 관념들을 보는데 있어서, 그 관념들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주목함이 없이, 그 관념들을 모두 명확한 적극적인 관념으로서 고찰한다.”(Ⅱ,8,2)

(2) 성질

1) 성질의 정의

[어떤 관념의 발생] 원인에 대해 주목한다는 것은 지성 내에 있는 관념에 속하는 탐구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물들의 성질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이들 둘은 아주 다른 것으로서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희다든가 검다는 관념을 지각하고 아는 것과, 어떤 대상을 희거나 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분자이어야 하고 표면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가를 조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II,8,2)

마음이 그 자체 속에서 지각하는 무엇이든, 혹은 지각, 사고, 지성의 직접적인 대상인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관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어떤 관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힘을 그 힘이 그 속에 있는 실체의 성질이라고 부른다.(II,8,8)

로크는 성질을 단순 관념을 논하는 곳에서 다룬다. 관념과 성질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관념이란 마음이 대상의 성질을 수용(또는 재현)한 것이다. 성질은 한 관념의 발생 원인에 주목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 개념일 뿐, 그 자체가 마음의 대상은 아니다. 로크에게는 관념만이 마음의 대상이다. 성질이란 마음에 어떤 관념을 불러 일으키는 ‘힘’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명백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구분하자. 예를 들어 ‘흰 색’ 또는 ‘하얀’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백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성질이라 부르고, 우리의 지성이나 감각 또는 지각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관념이라 불린다. 그리고 백목에 있는 흰 색(성질)은 주관으로 하여금 ‘희다’는 관념을 갖게 하는 ‘힘’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성질은 관념을 발생시키는 힘이다.

2) 성질의 구분

“철학사에서 로크의 주장으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 제 1성질과 제 2성질 간의 구별도 사실은 당시의 기계론적 자연 철학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구분이었다. 근대 이전에는 데모크리토스에서 이러한 구분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색깔, 맛, 냄새 등과 같은 감각 성질들은 우리들의 바깥에 있는 사물들의 내재적 성질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각이 원자들과 원자들의 운동

에 자극을 받는 방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었다. 갈릴레오도 크기, 장소, 운동, 수 등의 성질들은 결코 상상으로조차도 물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물체가 희다거나 붉다거나 쓰거나 달콤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성질들은 경우가 다르다. 우리가 만약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력도 결코 그러한 성질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으며, 그러한 성질들은 이름붙여진 것에 불과한 것들로서 감각 기관을 가진 지각자에 대해서만 있지 지각자가 사라지면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김효명, 『영국경험론』, 126-7)

① 제1성질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물체에서 전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물체가 어떤 변화나 변형을 받더라도 물체가 끊임없이 보존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감각이 지각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진 물질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비록 그 자체 단독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지는 않지만, 마음이 물질의 모든 부분에서 분리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다. [...] 나는 이것을 물체의 본원적 성질 혹은 제1성질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단순 관념들, 즉 고체성, 연장, 형태, 운동 혹은 정지 그리고 수를 산출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II,8,9)

제1성질이란 물체 자체의 고유한 불변하는 성질을 말하며, 그 예로는 고체성, 연장, 형태, 운동과 정지 그리고 수 등이다. 하지만 버클리가 지적하듯이 과연 이것들이 불변하는 고유한 성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의 둥근 모양은 로크에 의하면 불변하는 성질이다. 그런데 이 성질은 관념을 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동전의 모양에 대한 관념 역시 ‘둥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동전의 모양은 어떤 각도

에서 보느냐에 따라 동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단지 관념뿐이라면, 그리고 그 관념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면(동전의 모양처럼), 어떤 근거에서 예를 들어 동전의 모양은 불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제2성질

사실에 있어서는 대상들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들의 제 1성질에 의해서, 즉 대상들의 감각할 수 없는 부분들의 크기, 형태, 구조 및 운동에 의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각을 일으키는 힘에 불과한 색, 소리, 맛 등등과 같은 그러한 성질들을 나는 제2성질이라고 부른다.(II,8,10)

제2성질에 대한 로크의 설명을 보건대, 제2성질들(색, 소리, 맛 등)은 제1성질과는 달리 대상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단지 대상과 주관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1성질을 객관적 성질이라고 칭하는 반면에 제2성질은 주관적 성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엄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2성질은 ‘대상의 감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관에 영향을 미쳐서 관념을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완전히 임의적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로크는 제2성질들에 대한 관념은 “감각할 수 없는 분자들이 우리의 감각 기관에 작용함으로써 산출”(II,8,13)된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실체에 있어서 실재하는 성질’(II,8,10)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제2성질과 그에 대한 관념은 대상과 주관의 모종의 물리적 작용 관계를 상정하되, 제1성질은 대상의 성질 자체가 그대로 관념에 재현(표상)되는 것이되, 제2성질은 감각할 수 없는 분자들에 의한 것이므로 그대로 재현(표상)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질의 관념은 대상과는 무관한 ‘단지 주관만의 변양’이라는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관념과 주관성’ 항목을 참조할 것.

③ 제3성질

이들 성질(제2성질들)에는— 비록 그것들이 내가 보통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질이라고 부르되, 구별하기 위해서 제2성질이라고 명명한 그것들만큼이나 실체에 있어서 실재하는 성질이라 할지라도— 단지 힘에 불과할 뿐인 제3의 종류가 첨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불의 제1성질에 의해서 초나 진흙에 새로운 색이나 농도를 만들어 내는 불에 있는 그 힘은— 감각할 수 없는 부분들의 크기, 구조, 운동 등과 같은 동일한 제1성질에 의해서 내가 전에 느끼지 않은 따뜻함이나 탄다는 새로운 감각 혹은 관념을 내 안에서 산출하는 힘만큼이나— 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이다.(II,8,10)

아몬드를 산산이 부수면 밝은 흰색이 우중충한 색깔로 바뀔 것이며, 달콤한 맛은 기름의 맛으로 바뀔 것이다.(II,8,20)

분명히 제3의 성질은 제 성질이나 제1성질과는 다르다. 제1성질이 대상 자체의 성질이고, 제2성질이 주관에 어떤 관념을 야기하는 힘이라면, 제3성질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대해 변화나 운동 등을 야기하는 힘이다. 물론 이는 모두 관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위의 예처럼 불은 진흙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불의 이러한 성질은 불 자체의 성질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1성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진흙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관념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불의 어떤 힘이 진흙에 가해짐으로써 얻게 되는 관념을 통해서 불에 제1성질이나 제2성질과 구분되는 어떤 성질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질들의 비교

물체의 제1성질에 대한 관념들은 물체의 유사물이고 그 원형이 물체 자체에 실제로 있지만, 제2성질에 의해서 우리 속에 산출된 관념들은 그 물체의 유사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II,8,15)

위에서 보듯이 로크는 제1성질에 대한 관념은 그 관념을 야기하는 대상과 유사하지만, 제2성질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간접 실재론(또는 표상적 실재론)의 문제 또는 진리론에 있어서 대응설로 지칭되는 이론을 야기한다. 둘째, 제1성질들의 관념들만이 실제로 존재하며, 제2성질들은 제1성질의 양태일 뿐이라고 로크는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조각의 만나(manna)는 그 형태가 만약 사각형이라면, 그 사각형의 형태는 관념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만나에 있어서나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만나의 흰색이나 단맛(제2성질) 나아가 만나를 먹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포만감이나 복통(제3성질) 등은 제1성질과는 달리 대상 그 자체에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반암(班岩)에 있는 붉은 색과 흰 색 역시 불빛이 거기에 비추지 않는다면, 그 색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로크는 말한다.

4) 성질들과 관념의 상호 유사성

물체의 제1성질에 대한 관념들은 물체의 유사물이고 그 원형이 물체 자체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제2성질에 의해서 우리 안에 산출된 관념들은 물체와 전혀 닮지 않았다. 물체들 자체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우리 관념을 닮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물체라고 일컫는 것들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그 감각들을 산출하는 단지 하나의 힘이다. 관념에 있어서 달콤하거나 푸르거나 따뜻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물체들 자체 안에 있는 느끼지 못할 정

도로 작은 부분들의 어떤 부피, 모양과 운동일 뿐이다.(II,8,15)

<제2성질과 그 관념의 유사성 문제>

로크가 어떤 근거에서 제1성질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서로 유사하고, 제2성질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하는지 불분명하다. 제2성질과 그것의 관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붉은 장미’에 대해 ‘붉음’이라는 관념을 갖는 것은 장미로 지칭되는 어떤 물체로부터 시각에 의해서는 지각될 수 없는 어떤 미립자가 우리의 눈으로 와서 눈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에 전달될 때, ‘붉음’이라는 관념이 발생한다.(II,8,11/12 참조) 이 경우 ‘붉음’이라는 성질은 ‘장미 자체’가 붉기 때문이 아니라, ‘장미 자체’가 가진 힘(장미의 미립자)과 인식 주관(시각과 관련한 기관들)의 관계에 의해서만 ‘붉다.’ 좀 달리 말하자면, ‘장미 자체’가 인식 주관에 미친 힘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붉음’과 같은 제2성질의 관념은 그 대상 자체의 성질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제1성질과 그 관념의 유사성 문제>

로크는 예를 들어 눈의 ‘흰(whiteness)’이 “눈덩이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성질이라 부르고, 우리의 지성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관념이라 부른다.”(II,8,8) 그런데 제1성질인 눈의 모양(육각형)은 물체 자체의 성질이므로 눈덩이에 있을 때에도 육각형의 모양이고, 우리의 관념상으로도 ‘육각형’이라고 로크는 말하는 셈이다. 어떤 근거에서 성질과 관념의 유사성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제1성질이 물체 자체에 속하는 불변성질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논증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우선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제1성질이 물체의 불변성질이고 그 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

념이 그 성질과 유사하다면, 적어도 물체의 제1성질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그 성질의 재현(re-presentation)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이른바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또는 표상적 실재론(representative realism)이라고 불리우는 진리론이 등장한다.

5) 대응설

대응설은 모사설(copy theory)이라고도 불리운다. 예를 들어 복사기를 이용하여 특정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복사본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잘 원본(the original)을 재현해 내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예를 로크에게 적용시킨다면, 원본이란 대상 자체의 성질(제1성질)을 말하고, 복사본이란 그 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전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본과 복사본 둘 다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관념이 원본을 제대로 복사하였는가(우리 관념이 대상의 성질과 유사한가) 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관념뿐이고, 그 관념을 통해서만 대상의 성질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로크의 인식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복사본만을 볼 수 있을 뿐이고(관념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본은 볼 수 없다(관념을 통해서만 대상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역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1성질과 그 관념이 상호 유사하다는 로크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혹자는 동일한 대상을 두 번 보고 그 결과(두 번 본 관념들)의 일치에 근거하여 로크를 지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복사본(Ⅰ)과 복사본(Ⅱ)이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 가능하며, 두 복사본이 일치한다는 것이 그것들의 원본과의 일치를 보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6) 표상적 실재론

지각 이론의 역사에서 소위 ‘표상적 지각 이론’(Representative Theory of Perception)이라는 입장은 일종의 간접적 실재론(Indirect Realism)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간접적 실재론의 기본 주장은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내적·비물리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물리적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물리적 대상을 간접적으로 지각하게 해준다는 중간자로서의 내적인 어떤 것이 고전 경험론에선 바로 관념이 되고 현대 경험론에선 <감각 자료sense-data>가 된다. 그래서 현대 경험론에선 이러한 입장을 <감각 자료이론 Sense-Data Theory>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냥 <표상론 Representationalism>이라고도 부른다.”(김효명, 『영국경험론』, 33쪽)

7) 관념의 원인

관념의 원인에 대한 로크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대체로 로크는 관념의 원인을 대상의 ‘성질’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둘째, 대상의 성질이 어떻게 관념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영향(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대상으로부터의 물리적 자극(physical impulse)이 관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로크는 성질 또는 물리적 자극을 때때로

대상의 ‘힘’이라고 말한다. 관념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우선 물리적 실재론(physical realism) 또는 최소한 소박 실재론(naive realism)을 전제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종류의 실재론이 옹호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 자극과 힘이 동일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물리적이지 않은 종류의 힘(예를 들어 정신적 영향력)을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관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념을 갖는 경우 [예를 들어 환각(hallucination)은 환각제 등에 의해 관념(표상)을 갖는 것으로 상응하는 외적 대상이 없다. 반면에 착각(illusion)은 외적 대상에 대해 잘못된 관념(표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를 로크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8) 관념과 주관성

어느 누구의 감각이 그것들을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불 또는 눈의 부분들의 개별적인 부피, 수, 모양과 운동은 실제로 그것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 물체들 안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하는 성질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빛, 열, 희거나 차가움 따위가 그것들 안에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은 병 또는 고통이 만나 안에 있지 않는 것과 같다.(II,8,17)

제2성질들에 대한 관념이 ‘주관적’이라고 할 때, 우선 그것은 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며, 단지 대상과 주관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대상의 성질 또는 관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제1성질에 대한 관념과는 달리 유사성이 전혀 없다. 즉, 제2성질의 관념은 단지 대상의 자극에 의한 주관의 변양에 불과하며, 그런 의미에서 또한 주관적이다. 아울러 대상의 어떤 성질들(예를 들어

불의 열기)은 그 대상의 성질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관념(열기에 의한 고통)을 야기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인식 주관에 의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관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이다.

흔히 제1성질은 불변적·객관적 성질이고, 제2성질(제3성질 포함)은 가변적·주관적 성질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연 제2성질들이 ‘주관적’이기만 한지는 의문시된다. 성질들의 주관성에 관한 버클리의 비판을 생각해 보자. 동전의 구리 빛(제2성질)은 조명의 상태나 관찰자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동전의 둥근 모양(제1성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관성을 생각하는 것은 관념의 원천을 오직 인식 주관에만 둬서 의미한다. 하지만 로크는 제1성질은 물론 제2성질들 역시 대상의 힘 또는 대상에 의한 물리적 자극의 결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므로 동일한 대상(의 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가변적임은 인정될지라도 단지 인식주관의 산물이라는 의미의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외부 대상의 그 힘 또는 물리적 자극을 일으키는 작은 입자와 그 입자가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에는 일정한 객관성이 존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2성질에 대한 관념은 ‘주관적’ 관념이라고 특징짓는 것보다는 ‘가변적’ 관념이라고 규정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며, 이 관점에서 버클리의 비판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복합 관념

1) 복합 관념의 정의

복합 관념이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 관념들의 일정한 조합을 지칭한다. 마음은 감각과 반성으로부터 단순 관념을 받아들인다. 이 때 마음은 단순 관념을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으며, 단순 관념 이외의 다른 관념을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순 관념의 수용과 관련하여 마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나 그 단순 관념을 기초로 하여(또는 재료로 하여) 마음은 능동적으로 단순 관념과는 다른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즉, 단순 관념들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합성하여 또 다른 종류의 관념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복합 관념이라 한다. 로크는 복합 관념을 마음의 작용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대상의 측면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2) 마음의 작용에 따른 복합 관념의 종류

첫째, 몇몇 단순 관념들을 하나의 복합된 관념으로 하는 것, 이와 같이 해서 모든 복합 관념이 형성된다. 둘째, 단순 관념이든 복합 관념이든 두 관념을 함께 모아서, 그것을 하나로 결합함이 없이 동시에 그 두 관념을 볼 수 있도록 나란히 놓는 것, 이 방법에 의해서 마음은 그것의 가진 관계에 대한 모든 관념을 얻는다. 셋째, 그들 관념들을 그들의 실재하는 존재물에 있어서 그들 관념들에 부수되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것은 추상이라고 불리어지며,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가진 모든 일반적인 관념이 형성된다.(II,12,1)

복합 관념은 마음이 단순 관념에 대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단지 단순 관념들을 모으고 결합하여 보다 확대된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방형, 흰색, 짙은 맛 등의 단순 관념을 결합하여 ‘소금’이라는 복합 관념을 만든다. 말하자면 마음의 결합작용이다. 두 번째는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삼각형을 나란히 놓고서는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동일성’이라는 관념을, 즉 동일성의 관계에 있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각형과 삼각형의 관념을 병치시킴으로써 상이성의 관념을 얻을 수도 있다. 일종의 관계 관념으로서의 복합 관념이다. 이는 마음의 연상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종이의 색깔, 눈의 색깔, 백묵의 색깔 등등에서 그 대상들의 다른 관념들은 도외시하고 오직 하얀 색만을 추출하여 ‘흰’(whiteness)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마음의 추상 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3) 대상의 측면에서 본 복합 관념의 종류

복합 관념은 아무리 복합되고 또 이중으로 복합되더라도, 그들의 수가 아무리 무한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으로서 인간의 사고가 채워지고 계속되는 다양성이 끝이 없더라도, 모두 마음의 세 항목으로, 즉 양태, 실체, 관계로 환원될 수 있다.(II,12,3)

<해설>

복합 관념을 대상(개념)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양태, 실체, 관계라는 세 가지 관념으로 환원된다고 로크는 말한다. 양태 관념이란 예를 들어 (컵의) 형태에 대한 관념이나 (사람의) 달리기 등에 대한 관념 등 단독으로 존속한다고 가정되지 않고, 그 어떤 대상(또는 실체)에 의존하는 성질이나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관념을 말한다. 양태의 관념은 단순 양태와 혼합 양태로 구분된다. 실체의 관념은 인간, 금, 군대 등에 대한 관념으로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대상에 대한 관념을 지칭한다. 실체의 관념은 단일 실체(인간, 금 등)와 집합 실체(군대, 학생 등)로 구분할 수 있다. 관계 관념은 한 관념을 다른 관념과 비교함으로써 획득하는 관념을 말하는데, 이는 마음의 작용에 따른 구분의 두 번째 작용에 의해 획득되는 관념과 내용상 동일하다.

4) 양태의 복합 관념

① 양태 관념의 정의

아무리 복합되었더라도, 단독으로 존속한다는 가정을 그 속에 포함하지 않고, 실체에의 의존물 혹은 성질이라고 생각된 그러한 복합 관념을 나는 양태(mode)라고 부른다. 삼각형, 감사, 살인자 등등의 말에 의해서 표시된 관념이 그것이다.(II,12,4)

순 양태들의 예는 공간, 지속, 수, 무한, 운동의 양태들과 소리,

색깔, 맛, 그리고 냄새의 양태들이다. 따라서 “미끄러지고, 구르고, 텅글고, 걷고, 기고, 달리고, 춤추고, 도약하고, 짹짹 뛰는 것” 등은 “단지 운동의 서로 다른 수식들이다.”(Ⅱ,18,2) 마찬가지로 파랗고, 빨갛고, 푸른 것들은 색깔의 변화 또는 수식이다. 이러한 양태의 복합 관념은 그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 무엇(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관념을 말한다.

② 양태 관념의 종류

이들 양태 중에서 따로 고찰할 만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어떤 다른 관념의 혼합이 없이 같은 단순 관념의 다른 결합 혹은 변화일 뿐인 어떤 것, [...] 이것들은 단순 관념의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나는 단순 양태라고 부른다. 둘째로 하나의 복합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몇몇의 서로 다른 단순 관념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관념들이 있다. [...] 이런 것들을 나는 혼합 양태라고 부른다.(Ⅱ,12,5)

단순 양태의 관념은 수와 관련한 단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필 ‘한 다스’는 연필 12자루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한 다스’라는 관념은 ‘1’이라는 동일한 관념들이 보태져서 형성된 관념이다. 로크는 이와 같은 종류의 양태 관념을 그 요소 관념이 단순하다는 의미에서 단순 양태 관념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복합 양태의 관념에 대한 예로 로크는 아름다움(美)과 도둑의 관념을 제시한다. ‘아름다움’과 같은 관념은 특정한 형태, 색 등과 더불어 쾌감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관념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복합 관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과 같은 관념은 특정한 인간의 특정 문화와 결합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진 행동에 대한 관념이 그 인간에 대한 관념과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혼합 양태 관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5) 단순 양태 관념들

① 공간

공간의 단순 관념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나는 위 4장에서 시각과 촉각 양자를 통해서 공간의 관념을 얻는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해서 사람들이 시각에 의해서 다른 색깔의 물체들 간의 거리, 혹은 같은 물체의 부분들 간의 거리를 지각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색 자체를 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촉감과 감각에 의해서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하다.(II,13,2)

로크는 단순 양태에 관한 고찰을 공간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즉 공간의 단순 양태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리, 면적, 부피, 연장, 무한량, 형태, 장소 등이다. 공간의 단순 관념은 시각과 촉각으로부터 획득되며, 공간이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함이 없이 단지 두 존재물 간의 길이에 있어서만 고찰되면, 거리라 불리어지고, 만일 길이, 폭, 두께에 있어서 고찰되면 부피라 불리운다. 로크의 공간에 대한 이런 설명방식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점, 선, 면, 입체에 관한 정의와 유사하다. 즉, 선은 점들의 집합이고, 면은 선들의 집합이다. 이와 유사하게 공간은 시각과 촉각을 통해 획득되는 단순 관념들의 집합이다. 여기에 덧붙여 무한량은 일정량들의 무한한 반복의 결과(II,13,4)이고, 형태는 “연장이나 외접 공간의 끝부분들 간의 관계”(II,1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장소란 “사물의 상대적 위치”(II,13,10)를 말한다.

①-1. 물체와 연장

물체와 연장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 만일 그들이 물체와 연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즉 물체에 의해서 그것의 부분들이 다른 식으로 분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고체로 되고 연장을 가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연장에 의해서 고체로 된 엉겨붙은 부분들의 맨 끝 사이에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점유된 공간만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아주 다른 관념들을 서로 혼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공간의 관념이 그것이 진홍색의 관념과 다른 것처럼, 고체성의 관념과 다르지 않은가의 여부를 모든 사람 자신의 생각에 호소하기 때문이다.(II,13,11)

공간의 단순 양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장의 단순양태이다. 이미 연장을 ‘양태’라고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일찍이 데카르트가 연장을 물체의 속성으로 간주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속성이 그 사물(또는 실체)의 본질적 성질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에게는 물체와 연장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 즉, 데카르트에게 물체란 ‘연장된 것(res extensia)’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문에서 물체와 연장을 같은 것이라고 설득하는 자는 아마도 데카르트일 것이다. 그러나 로크에 의하면 연장은 양태의 복합 관념이고, 물체는 실체의 복합 관념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관념일 수가 없다. 로크는 또한 고체성(solidity), 연장(extension), 공간 등은 모두 상이한 관념임을 제시하면서, 물체의 속성으로서의 연장에 대해 부정한다. 나아가 그는 “연장이 물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연장이 물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II,13,25)고 말하면서 연장의 관념이 보통의 경우 “감각 중에 가장 분주한 감각인 시각과 촉각에 의해서 연장을 가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존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연장의 관념으로 채워졌기”(II,13,25) 때문에 물체와 연장을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로크는 주장한다.

② 지속

다른 종류의 거리 혹은 길이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공간의 영원한 부분들에서 얻지 않고 질주하고 끊임없이 소멸하는 연속의 부분들에서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이라고 부른다.(II,14,1)

지속은 거리 혹은 길이의 다른 종류이며, 이 지속의 관념으로부터 시간이나 영원과 같은 관념을 얻게 된다고 로크는 말한다. 지속의 관념을 획득함에 있어서 특이할 점은 그것이 대상의 운동에 대한 관념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크는 지속의 관념은 “관념들의 연속에 대한 반성”(II,14,2)에서 유래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 운동도 전혀 지각함이 없이, 그의 주위의 모든 사물들이 정지해 있는 곳에 있을 때에도, 만일이 정적의 시간 동안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들의 여러 가지 관념들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차례로 일어남을 지각할 것이고, 그에 의해서 그는 그가 아무 운동도 관찰할 수 없는데도 연속을 관찰하고 발견”(II,14,6)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속의 관념을 얻게 되면, 이 지속의 관념을 척도에 따라 구획한 것이 곧 시간의 관념이라고 로크는 말한다.

③ 수

리가 가진 모든 관념들 가운데 단일 혹은 일(一)의 관념보다 더 많은 방식에 의해서 마음에 시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이, 그보다 더 단순한 그 어떤 관념도 없다. 그것은 어떠한 다양한 구성의 혼적도 그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감각이 쓰이는 모든 대상, 우리의 지성 속에 있는 모든 관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은 이 관념을 함께 가져온다. 그러므로 그 관념은 그것이 모든 다른 사물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보편적인 관념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고에 가장 밀접한 관념이다. 왜냐하면 수는 사람들, 천사들, 행위들, 생각들 등 존재하거나 상상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기 때문이다.(II,16,1)

우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 수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수는 기본적으로 양(量)을 표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수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행위나 생각까지도 양화시킬 수 있다. 수에 대한 관념을 가장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로크가 수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가장 높은 확실성을 가진 지식으로 분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근대 철학에 있어서 수학이 가진 보편성에 대한 신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무한성

유한과 무한은 마음에 의해서 양의 양태로 보이며, 주로 그 최초의 지시에 있어서는 단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최소의 부분의 더하거나 빼기에 의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사물들에만 붙여지는 것으로 나에게 생각된다.(II,17,1)

1피트와 같은 공간의 어떤 정해진 길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그 관념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념을 그 앞의 관념에다 합하여 2피트의 관념을 만들고, [...] 그가 원하면 그의 덧셈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 그 이상의 더하기에 의해서도 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을 확대하는 힘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는 여기서 무한 공간의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II,17,3)

무한성과 유한성의 관념에 대한 로크의 설명은 지나치게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준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유한성의 관념은 감각과 반성에 의해서 분명히 지각되는 바이고, 이 유한성의 관념을 지속적으로 더해감으로써 무한성의 관념을 획득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점진적으로 더욱 커지는 유한성과 무한성 그 자체를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한성을 아무리 더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유한성일 뿐 결코 무한성과 같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④-1. 공간의 무한성과 무한 공간

비록 무한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양에 대한 명상과 마음이 그것이 원하는 대로 양의 어떤 부분을 되풀이해서 더함에 의해 양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끝없는 증가에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가진다고 생각될 수 있는 양에 대한 어떤 가정된 관념에다 무한성을 합하고, 그리하여 무한량에 대해 논하고 추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큰 혼동을 일으킨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무한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끝없이 성장하는 관념이지만, 마음이 가진 어떤 양에 대한 관념은 그 때 그 관념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의 무한성에 대한 관념과 무한 공간의 관념을 주의깊게 구별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더라도 그것이 쓸데없는 예민성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것은 마음이 원하는 공간의 반복된 관념에의 마음의 가정된 끝없는 전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한공간의 관념을 마음 속에 실제로 가진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마음을 가정하는 것이며, 끝없는 반복이 결코 마음에 나타낼 수 없는 그 모든 반복된 공간의 관념들을 실제로 한 눈에 보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II,17,7)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로크 역시 ‘무한량’과 ‘유한량의 점진적 증가’가 결코 같은 관념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양자의 차이를 ‘공간의 무한성’과 ‘무한 공간’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공간의 무한성’은 일정량의 유한 공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더하여 나감으로써 형성되는 관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간의 무한성’은 오직 ‘양’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유한량이다. 다만 그 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더해가

고 있기 때문에— 유한량이다. 반면에 무한 공간이란 그 자체로 무한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유한량의 계속적인 더하기에 의해 표상되는 어떤 관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한 공간의 관념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무엇인가?

④-2. 적극적 무한과 소극적 무한

무한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그 관념을 적용하는 모든 사물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것을 갖는다는 것을 공간이나 무한 지속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처음 단계에서 보통, 아마도 백만 년이나 백만 마일과 같은 어떤 아주 큰 관념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몇 번이고 배로 하여 곱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사고 속에 축적하는 모든 것은 긍정적(적극적)이다. [...] 그러나 무한은 여전히 더 큰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해될 수 없을 만큼의 보다 큼에 대한 관념인, 비교 관념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소극적(부정적) 관념일 뿐 적극적(긍정적) 관념은 아니다.(Ⅱ,17,15)

무한성에 대한 로크의 설명을 보건대, 그는 적극적 무한과 소극적 무한을 구분하고 있다. 적극적 무한이란 계속적인 증가를 통해 획득되는 무한에 대한 관념을 말한다. 이는 공간의 무한성에 해당하는 관념이다. 그에 반해 소극적 무한이란 적극적 무한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크기에 대한 관념을 말하고 이는 단지 적극적 무한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관념이며, 무한공간과 같은 관념이다. 그러므로 무한성과 관련한 로크의 입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한 공간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Ⅱ,17,8)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의 무한성에 대한 관념만을 가질 뿐이고, 무한공간의 관념은 이 공간의 무한성에 대한 관념의 비교 관념으로서만 성립할 뿐이라는 것이 로크의 설명이다.

⑤ 감각, 사고, 감정의 단순 양태들

로크가 단순 양태로 제시하는 것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감각에서 유래하는 단순 양태, 반성에서 유래하는 단순 양태, 감정에서 유래하는 단순 양태들이 있다. 감각의 단순 양태에는 운동, 소리, 색, 맛 등이 있고, 반성의 단순 양태에는 지각, 기억, 회상, 판조, 꿈 등이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사유는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 작용”(Ⅱ,19,4)이라는 다분히 데카르트를 겨냥하고 있는 듯한 로크의 주장이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꿈과 숙면 때문이다. 꿈이란 마음의 막연하고 모호한 사고 작용이며, 숙면이란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유가 정신의 본질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감정의 단순양태에는 쾌락과 고통이 있는데, 이로부터 선과 악의 관념이 출현한다고 로크는 말한다. 즉, 선이란 쾌를 야기 또는 증가시키거나 혹은 고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악이란 그 반대를 말한다.(Ⅱ,20,2) 그리고 이러한 쾌와 불쾌의 단순양태로부터 사랑, 증오, 원망, 즐거움, 슬픔, 희망, 공포, 절망, 분노, 수치 등의 관념이 생겨난다.

⑥ 힘

마음은 감각을 통해서 그것이 밖의 사물들에서 관찰하는 단순 관념들의 변화를 매일 통지받고 또 어떻게 하나가 끝나 존재하기를 그치고 이전에 없었던 다른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가를 주목하며, [...] 부단히 변함을 관찰하여 그리고 마음이 그래왔음을 끊임없이 관찰한 것에 미루어서, 비슷한 변화가 미래에 있어서도 같은 사물에 있어서 비슷한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비슷한 양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어, 한 사물에 있어서 그것이 가진 단순 관념들 중의 어떤 것을 변하게 하는 가능성, 그리고 다른 사물에 있어서 그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 관념을 얻는다.(Ⅱ,21,1)

예를 들어 불이 금을 녹여서 액체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에 대한 관념은 불이나 금의 제1성질에 의한 관념도 아니며, 제2성질에 대한 관념도 아니다. 제2성질의 관념이 아닌 이유는 불에 의해 고체로서의 금이 액체로 변하는 것은 불의 성질도 금의 성질도 아니기 때문이다. 불이 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작용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 관념이다. 그러므로 성질의 구분에 따르면 제3성질에 해당한다. 이때 제3의 성질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간주된다. 로크가 힘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 일단 ‘힘’의 개념이 우리가 ‘물리적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보다 중점적으로 ‘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다. 즉 정신적 작용이 고유한 의미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로크는 이를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⑥-1. 수동적 힘

힘은 이중적이다. 즉 힘이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자는 ‘능동적’ 힘이라 불리어질 수 있고, 후자는 ‘수동적’ 힘이라 불리어질 수 있다.(II,21,2)

우리는 거의 모든 종류의 감각할 수 있는 사물들에 의해서 수동적인 힘에 대한 관념을 풍부하게 공급받는다.(II,21,4)

수동적 힘에 대한 로크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일단 수동적 힘은 말 그대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를 대상의 측면과 마음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상의 측면인데, 이를 역학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관성의 법칙을 연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화학적인 변화이든 생물학적 변화이든 모든 사물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수동

적 힘은 사물 일반에 적용 가능한 힘이고, 이를 제3성질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도 대상(또는 대상의 성질)으로부터 관념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변한다는 면을 고려해 본다면, 수동적 힘은 마음의 작용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특히 감각 작용은 매우 수동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로크의 말을 고려해 볼 때, 감각 작용 역시 수동적 힘의 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⑥-2. 능동적 힘

물체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 대한 반성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힘에 대한 그렇게 명료하고 판명한 관념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모든 힘은 활동에 관계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는 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 즉 사유와 운동이 있으므로 이들 활동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가장 명료한 관념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자. 첫째, 사유에 대해서는, 물체는 우리에게 전혀 아무 관념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유에 대한 관념을 얻는 것은 단지 반성에서 일 뿐이다. 둘째, 또한 우리가 운동의 시초에 대한 어떤 관념을 물체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움직이는 능동적인 힘에 대한 아무 관념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체 움직여졌을 때에는, 그 운동은 그 속에 있는 활동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동인 것이다.

로크는 대상은 우리에게 능동적 힘에 대한 관념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상에 있어서 진정한 능동적 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있는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 즉 최초의 운동에 대한 관념일텐데, 이런 관념을 대상은 마음에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능동적 힘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 작용에서만 생각해낼 수 있을 따름이다. 로크에 의하면, 마음의 작용은 감각과 반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감각 작용은 대상으로부터

관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므로 마음의 수동적 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능동적 힘은 반성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 로크는 이를 의지와 지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6) 혼합 양태

① 혼합 양태의 정의 및 특성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혼합 양태라고 부르는 것들을 고찰해야 한다. 우리가 의무, 취태(醉態), 사기 등등의 이름에 의해서 표시하는 복합 관념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종류의 단순 관념들의 몇몇 결합에서 성립하므로, 나는 그것들을 혼합 양태라고 불러 같은 종류의 단순 관념들만으로 성립되는 보다 단순한 양태들과 구별한다.(II,22,1)

인용된 바와 같이 혼합 양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순 관념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되, 이 단순 관념들이 상호 모순된 관념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상이한 단순 관념들의 이러한 결합은 순전히 마음의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 뿐, 대상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난제가 등장한다. 로크가 제시한 혼합 양태는 의무, 취태, 사기, 살인 등등이다. 물론 이러한 관념들은 실체일 수 없다. 단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만 관찰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사태일 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 이런 관념의 대응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명시되기 어렵다.

② 혼합 양태와 이름

모든 혼합 양태는 많은 별개의 단순 관념들로 이루어지므로, 어디서 혼합 양태의 관념이 단순 관념들의 통일을 얻는가를 묻는 것은 당연하

다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그러한 결합이 자연에서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복합 양태가 단순 관념들의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몇몇 단순 관념들을 함께 결합하고 그 결합을 자신의 부분들로 구성하는 복합 관념을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통일의 표지, 혹은 그 통일을 완성시킨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결합을 지칭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라고 대답한다.(II,22,4)

혼합 양태를 구성하는 단순 관념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합 양태의 관념(예를 들어 ‘살인’)을 구성한다고 할 때, 자연에서 이 단순 관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혼합 양태의 형태로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란 없다. 왜냐하면 ‘살인’은 매 사건마다 서로 다른 단순 관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인’이라는 혼합 양태 관념을 일관되게 가질 수 있는가? 이는 바로 혼합 양태의 대응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기이다. 이 문제에 대한 로크의 답변은 혼합 양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혼합 양태의 대응물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름을 가짐으로써 특정한 혼합 양태는 일관성과 영속성을 가지게 된다.

③ 혼합 양태의 형성 이유

만일 우리가 좀 더 탐구를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 관념들의 몇몇 결합을 형성하게 하여, 명확하고 일정한 양태가 되게 하고, 사물들 자체의 성질에 있어서 결합되어 별개의 관념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 다른 것들은 무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언어의 목적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언어의 목적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사람들의 생각을 상호 표시 혹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러한 관념의 집단을 형성하여 복합 양태로 만들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II,22,5)

왜 마음은 굳이 복합 양태의 관념을 만드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 로크는 그 목적이 언어에 있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언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 곧바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로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로써 언어의 필요성은 대답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왜 그냥 관념을 표시하는 언어를 상정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로크는 앞서 단순 관념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잠시 거론된 바와 같이 각각의 단순 관념에 모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념들의 공통적인 표징이나 관계 등에 대해서만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답한다. 말하자면 단순 관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만으로는 사회성(의사 소통)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필요성의 하나로 마음은 복합 양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④ 혼합 양태의 획득 방식

그러므로 우리가 혼합 양태의 관념을 얻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 사물들 자체에 대한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따라서 두 사람이 씨름을 하거나 검술을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씨름 또는 검술의 관념을 갖는다. 2. 고안 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단순 관념을 임의로 함께 놓음을 통해서. 따라서 최초로 인쇄 또는 부식 동판술을 발명한 사람은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것의 관념을 마음속에 가졌다. 3.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행위들의 이름들을 설명하거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개념들을 설명함에 의해서.(Ⅱ,22,9)

혼합 양태를 획득하는 세 가지 방식은 결국 경험과 관찰, 단순 관념의 임의적 종합, 설명(학습)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경험과 관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 관념의 임의적 종합은 로크의 예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상상물(페가수스, 유니콘 등등)을 떠올리는 것이 보다 이해를 쉽게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설명 또는 학습 역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임의의 복합 양태 관념(예를 들어 ‘살인’, ‘의무’)들은 대부분 학습을 통해(타인의 설명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명한 것 같다.

7) 실체의 복합 관념

① 실체 관념의 정의

단순 관념들이 어떻게 단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들 단순 관념들이 그 속에 존속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가정하게끔 익숙해지기 때문이다.(Ⅱ,23,1)

확실히 실체에 대한 로크의 견해는 성질이나 관념에 선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선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직 관념을 통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종류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지 우리의 관념들이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 붙이는 이름에 불과하다. 합리론자들의 실체관에 대한 비판은 본유 관념 비판 항목을 참조하고, 로크의 실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항목과 ‘실재적 본질’ 항목을 참조할 것.

② 실체 관념의 형성

유형적인 실체에 대한 우리의 복합 관념을 형성하는 관념들은 이들에 종류이다. 첫째, 우리의 감각 기관에 의해서 발견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각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들 속에 있는 사물들의 제1성질들에 대한 관념들— 그러한 것은 물체의 부분들의 크기, 형태, 수, 위치 및

운동이며,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든 안하든 실제로 사물들 속에 있다. 둘째, 이들 제1성질들에 의존해서 그들 실체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우리 속에 몇몇 관념들을 산출하는데 가지는 힘에 지나지 않는 감각할 수 있는 성질들, 이들 관념들은 어떤 것이 그것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정도에 있어서만 사물들 자체 내에 존재한다. 셋째, 우리가 어떤 실체에 있어서 고찰하는 그렇게 변화된 그 실체가 그것이 이전에 일으켰던 것과 다른 관념들을 우리 속에 일으키는 그러한 제1성질의 변화를 주든가 받는 경향성— 이것들은 ‘능동적 및 수동적 힘’이라고 불리어 진다.(II,23,9)

로크는 ‘실체’의 관념을 복합 관념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복합 관념은 결국 단순 관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순 관념은 대상의 성질에 대한 관념이다. 로크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성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성질은 우리의 관념을 야기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힘은 실체에 대한 우리의 복합 관념의 대부분을 이룬다.”(II,23,10) 그러므로 성질을 중심으로 실체를 논하는 경우, 실체는 ‘성질들의 담지자’라고 정의될 것이다. 하지만 성질이 관념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체는 ‘힘의 담지자’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물체

만일 누구든지 순수 실체 일반에 대한 자신의 관념에 관해서 스스로 검사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다른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 속에 단순 관념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의 무엇인지 모르는 지지물에 대한 가정만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II,23,2)

물체로서의 실체에 대한 로크 설명의 핵심은 (제1)성질의 담지자라는 것이다. 물론 실체라고 지칭되는 그것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이 ‘그 무엇’의 관념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실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가 복합 관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실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실체관은 실체를 ‘자기 원인’으로 정의하는 합리론자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자기 원인’으로서의 실체는 실체가 먼저 있고 그 실체에 의존하는 속성이나 성질이 부가된다. 하지만 ‘성질(관념)의 담지자’로서의 실체는 이와는 반대방식으로만 실체가 된다.

③-1. 물체와 힘

그러므로 힘은 정확히 실체에 대한 우리의 복합 관념의 대부분을 이룬다. 금에 대한 그의 복합 관념을 조사하는 사람은 금에 대한 복합 관념을 형성하는 관념들 중의 몇몇은 단지 힘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물체의 작은 부분들과 물체의 감각할 수 있는 성질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실체의 구조를 식별하는데 충분한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다면 물체는 아주 다른 관념을 우리 속에 일으킬 것이며, 지금 금의 노란 색은 사라질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떤 크기와 형상을 가진 부분들의 훌륭한 조직을 볼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II,23,10-11)

실체가 단지 복합 관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로크가 실체에 대해 관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즉, 실체란 우리가 가진 관념들을 한데 모으는 기준으로서 상정된 어떤 것, 또는 성질들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가정된 어떤 것에 불과한 것처럼 해석된다. 하지만 ‘힘이 실체 관념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주장과 성

질들이 우리에게 관념을 야기하는 힘이라고 주장된 바를 고려한다면, 실체는 인식 주관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체와 힘의 관계에 대한 로크의 고찰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감각의 조건을 달리 한다면, 우리가 대상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관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일견 현대의 과학적 실재론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설사 로크의 가정대로 우리가 다른 종류의 감각(매우 예리한 감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체에 관한 지식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로크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다른 종류의 감각은 대상의 성질에 대해 다른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③-2. 집합 실체와 개별 실체

실체의 관념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나 양과 같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단일 실체에 대한 관념이고, 다른 것은 그것들의 몇몇 짜모아진 사람의 큰 무리나 양떼와 같은 것에 대한 관념이다. 이와 같이 짜모아진 몇몇 실체에 대한 집합적인 관념은 인간의 관념이나 단위의 관념과 마찬가지로 각각 하나의 단일 관념이다.(Ⅱ,12,6)

명석 판명하지 않은 실체의 일반 관념은 개별적인 실체들의 판명한 관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단지 단순 관념들의 몇 가지 결합들이다. [...] 우리가 실체들의 개별적인 종류를 마음에 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단순 관념들의 그러한 결합에 의해서이다.”(Ⅱ,23,6) “예를 들면 우리는 경험 안에 공존하는 다수의 단순 관념들(붉음 또는 힘, 어떤 냄새, 어떤 모양이나 형태 등)을 가지며, 우리는 그것들의 결합을 ‘장미’라는 하나의 이름으

로 부른다. 마찬가지로 해의 관념이란 밝음, 뜨거움, 둥근, 항상 규칙적인 운동을 가짐, 우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음, 기타 등등의 몇 가지 단순 관념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무엇인가?”(Ⅱ,23,6) 결국 “몇 가지 종류의 실체들의 관념들은 모두 그것들이 거기에 속하며 그 안에 존속하는 어떤 것을 상정한 단순 관념들의 집합들에 불과하다. 비록 우리는 이 상정된 어떤 것에 관해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결코 갖지 못하지만 말이다.”(Ⅱ,23,37) 우리가 개별적인 실체의 복합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단순 관념은 감각이나 반성을 통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영혼의 정신적 실체라는 우리의 관념은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고함, 의심함 등의 단순 관념들과 이 심적 작용들이 본래부터 속해 있는 기체의 모호한 개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로크는 우리의 개별적인 실체들의 복합 관념과 실체의 일반 관념을 구별했다. 전자는 단순 관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지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로크는 우리에게 그것은 ‘추상 작용’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찍부터 그는 추상 작용의 과정을 “관념들을 실제 존재에 있어서 그것들에 수반하는 다른 모든 관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Ⅱ,12,1)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실체의 일반 관념 형성에 있어서 그것은 관념들의 다발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에만 주의하고 나머지를 생략하거나 또는 나머지들로부터 추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하나의 기체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감각이나 반성에 의해서, 또는 단순 관념들을 결합함에 의해서, 또는 위에서 언급된 의미에서의 추상 작용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는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참으로 로크는

실체의 일반 관념을 명석하지도 않고 판명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관념’을 말한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관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로크의 전제들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는 확실히 마음에 하나의 능동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로크가 그의 전제들을 기꺼이 수정하거나 고쳐 말하지 않는 한 실체의 일반 관념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려움이 남게 된다.

④ 실체의 종류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세 가지 종류의 실체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신, 유한정신, 물체가 바로 그것이다. 물체에 관해서는 상기한 실체 일반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신에 대한 관념도 역시 로크에게는 우리가 가진 다른 종류의 관념들 예를 들어 지속, 무한, 행복, 쾌락 등등의 관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관념, 즉 신의 관념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정신 실체 역시 실체 일반과 마찬가지로 단순 관념을 야기한다고 가정되는, 그러나 그 자체로는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기체를 말한다. 다만 정신 실체의 경우에는 단순 관념이 아니라 정신 작용들의 기체라고 상정된 그 무엇을 지칭한다. 그래서 “사고, 추리, 공포 등은 저절로 존속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짓고, 또한 그들 성질들이 신체에 속할 수 있는, 혹은 신체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들 성질들이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실체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II,23,5)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 실체가 복합 관념에 불과하다고 해서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부당’(같은 곳)하다. 즉, 마치 칸트가 사물 자체에 대해 그러하듯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로크가 어려운 해설 과정을 거쳐 ‘실체’를 규정한 후에 실체를 세 종류로 나누어 예를 든 것을 보면, 그가 데카르트의 사고 틀을 이어 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의적인 ‘실체’(ousia, hypokeimenon) 개념 이래 여러 갈래의 의미 용례를 가졌던 ‘실체’(substantia)를, 앞서 살펴보았듯이 데카르트는 ‘그것이 존재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실체를 신이라는 ‘무한 실체’ 및 정신과 물체라는 ‘유한 실체’로 나누었다.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로크도 실체를 ‘세 종류’ 곧 신(god), 유한한 정신들(finite spirits), 물체들(bodies)로 나눈다. 이런 세 종류의 구분이 데카르트적 방식과 무관하다면, 이 종류들이 앞에서 살펴본 로크의 실체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로크는 분명히 어떤 점은 비판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점은 변양하면서 데카르트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로크는 데카르트처럼 ‘정신’이라는 것 그리고 ‘물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정신들’과 ‘물체들’을 말함으로써 다수의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는 정신들과 물체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마음들이라는 개념이 그후 개인 주관 내지 주체 개념으로 전개되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는 그의 정치 철학이 잘 보여주고 있는 바이지만, 다수의 물체들이 각기 실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물들에 대해 각각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백종현, 『존재와 진리』, 191-2)

⑤ 정신 실체와 힘

사고, 추리, 공포, 쾌감 등등은 그 자체로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로크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한데 모으기 위해 또는 이러한 마음 작용의 담지자로 상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

이를 ‘정신적 실체’라고 한다. 그런데 실체 개념의 대부분은 힘에 의해 구성되고,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 특히 지성과 의지는 능동적 힘이라고 로크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크가 말하는 정신적 실체는 단지 가정된 허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적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정신적 실체는 단지 그것이 알려지는 경로만 마음의 작용들이 있는 이후일 뿐, 사실상 마음 작용의 근거이자 능동적 활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마음 작용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로크가 본유 개념설을 비판하는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정신의 관념과 물체의 관념 비교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과 우리가 물체에 대해서 가지는 관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정신의 실체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물체의 실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물체의 제1성질 또는 속성, 즉 고형체의 밀착된 부분들과 충동에 대해서 우리는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신의 제1성질 또는 속성, 즉 사유와 능동의 힘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운동을 시작하든가 정지하는 힘에 대해서도 알고, 또 명석판명한 관념을 가진다.(Ⅱ,29,30)

⑥-1. 실체와 인식 가능성

로크는 실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그것의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 중 하나는 “실체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어떤 맥락에 가면 그 스스로가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실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물질적 성질들이 속해 있다는 <물질적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 감각, 상상 같은 물질적이

라고는 할 수 없는 성질들이 속해 있는 <정신적 실체>이다. 그러나 실체의 이러한 구분은 로크 자신의 실체관에 따른다면 그 인식론적 근거를 가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실체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것> 밖에 없다고 한다면 실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근거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선 그 두 가지 종류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실체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김효명, 『영국경험론』, 135-6, 로크는 신 실체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논의의 필요상 두 가지만 다룬 것으로 추정된다.)

⑦ 신의 단순성과 신 관념의 복합성

존재, 힘, 지식 등등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결합되어서 최고의 존재를 가장 잘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는 복합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무한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 자신의 본질에 있어서는 신은 단순하고 복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신에 대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의식, 힘, 행복 등등의 복합 관념 이외에 아무 다른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II,23,35)

신에 대한 로크의 입장 역시 이중적이다. 우선 신에 대한 관념을 로크는 분명히 복합 관념으로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 관념은 여러 종류의 단순 관념들이 결합된 결과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신 자체는 단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관념을 통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신의 관념이 복합 관념이라면, 어떤 근거에서 신 자체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신이 복합 관념이라면, 단순할 수가 없고, 또 나아가 우리가 신의 단순성이라는 관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의 관념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신 자체의 단순성을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8) 관계의 복합 관념

① 관계 관념의 정의

단순 관념이든 복합 관념이든 마음이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사물 자체의 있는 그대로의 관념들 외에 마음이 그들 사물들 상호의 비교에서 얻는 다른 관념들이 있다. 지성은 어떤 것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정확한 대상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성은 말하자면 그 자체를 넘어서 어떤 관념을 가져올 수 있고 혹은 적어도 대상이 어떤 다른 것에 준해서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알기 위해 그것을 넘겨다 볼 수 있다. 마음이 한 사물을 그렇게 고찰해서 말하자면 마음이 그것을 다른 것 쪽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다른 것 옆에 놓고서 마음의 시야를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가져올 때 이것이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관계 및 연관이다. 그리고 그 연관을 알리고 사고로 하여금 지시된 물체 자체를 넘어서 그와 다른 어떤 것에 이르게 하는 표지로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것에 주어진 명칭이 우리가 ‘관계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모아진 것이 ‘관계된 것’이다.(II,25,1)

로크가 제시하고 있는, ㉠ ‘카이우스는 백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 ‘카이우스는 남편이다’고 말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의 경우에는 흰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단순한 고찰이지만, ㉡의 경우 ‘남편’이라는 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카이우스’라는 대상을 넘어서 있는 다른 어떤 대상과 그 관념을 항상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셈프로니아’라는 여인과 그 여인과의 결혼식 등의 관념이 결부되어 ‘남편’이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즉 ‘흰 피부’는 카이우스에게만 속하는 관념이지만, ‘남편’이라는 관념은 카이우스 자신에게 속하는 관념이 아니라 카이우스와 그 배우자인 셈프로니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 관념인 ‘남편’과 같은 관념은 두 개의 관계물

(카이우스와 셴프로니아)을 전제하고 그로부터 그 관계물의 관계 맺음의 관념(남편)이 성립한다.

② 관계 관념의 특징

관계 일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찰될 수 있다. 첫째, 단순 관념이든, 실체이든 양태이든, 혹은 관계이든 혹은 그들 중의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이든, 다른 사물들에 관해서 거의 무한한 고찰을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이룬다. [...] 둘째, 비록 관계는 사물들의 실재적 존재에는 포함되지 않고 외래적이고 다시 덧붙여진 어떤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인 말들이 나타내는 관념들은 흔히 그들이 속하는 그들 실체들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더 판명하다. [...] 세째, 비록 사물들이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무수한 고찰이 있고 그래서 무수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가 우리 지식 전체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감각이나 반성에서 온 단순 관념들에 대해서 관계하고 또 그 단순 관념에서 그치는 것이다.(II,25,7)

③ 인과성

우리의 감각기관이 사물들의 끊임없는 변동에 대해서 가지는 주목 속에서, 우리는 몇몇 특정한 성질들과 실체들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어떤 다른 존재물의 적절한 적용과 작용으로부터 그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찰로부터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얻는다. 어떤 단순 관념이나 복합 관념을 산출하는 것을 우리는 ‘원인’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지시하고, 산출되는 것을 ‘결과’라는 일반적인 이름에 의해서 지시한다.(II,26,1)

로크는 인과성을 관념의 산출 관계로 설명한다. 즉, 특정한 어떤 관념을 산출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지칭하고, 산출된 것을 결과라고 지칭한다. 이와 같이 인과성이 관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구성물로 이해되는 한, 로크의 인과성 관념은 매우 심리학적인 설명에 그친다. 이런 설명에 있어서 문제는 산출한다는 관념과 산출되었다는 관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공간

적으로 인접하고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에 놓여있는 그러나 인과 관계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을 인과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다른 관념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기준을 로크는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로크는 사물의 변화를 보고 인과성의 관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사물의 변화는 그에 의하면 실체의 힘에 의한다. 그런데 원인은 산출하는 것이므로, 힘 중에서도 능동적인 힘이 원인 관념을 근거지울 수 있다. 그런데 로크가 진정으로 능동적인 힘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지성과 의지 뿐이다. 그리고 지성이나 의지가 관념들을 결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의적이다. 그렇다면 유독 인과성 관념을 구성할 때에만 임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로크가 인과성을 산출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흄이나 칸트에 비하면 실재론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흄은 인과성 개념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관념들 간의 습관적 연결이 나타내는 유용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인과성을 순수 지성 개념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흄과 칸트의 인과성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인과성이 ‘의식 외부에 실재하는 사실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관념들 간의 관계’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로크의 산출 개념은 분명히 ‘의식 외부에 실재하는 사실들 간의 관계’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④ 창조, 발생, 제작, 변화

로크는 인과성의 관념을 기초로 물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그 산물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한다. 예를 들어 “물질의 새로운 분자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순수

자연 속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경우처럼, 사물이 전혀 새로이 만들어져서 그것의 어떤 부분도 이전에 존재한 일이 없을 때”(II, 26,2) 이것을 ‘창조’라고 부른다. 앞서 존재하는 재료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실체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발생’이라고 부르며, 앞서 존재하는 사물 안에 하나의 새로운 ‘단순 관념’(성질)이 산출될 때, 이는 ‘변화’라고 불리운다.

⑤ 동일성

⑤-1. 실체들의 동일성

첫째, 신은 시작이 없고, 영원하고, 변함없고, 어디에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일성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둘째, 유한정신은 각각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것의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관계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들의 감각에 대해서 그것의 동일성을 결정할 것이다. 셋째, 마찬가지로 물질의 모든 분자에 대해서도 성립할 것이다. 물질의 모든 분자에 대해서는 물질의 가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름붙인 이들에 세 종류의 실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각각 필연적으로 같은 종류의 어떤 것을 같은 장소에서 배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동일성과 부동성의 관념과 이름은 헛될 것이고, 실체나 다른 어떤 것 상호의 그러한 구별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II,27,2)

로크는 실체에는 세 종류, 즉 신, 유한정신, 물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신은 자체로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동일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로크의 이런 주장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신이 복합 관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물체의 동일성의 기준은 시간과 공간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로크

가 정신과 물체를 실체라고 하였을 때, 그 실체는 데카르트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체의 종류’ 항목을 참조하자— 만약 데카르트적인 실체 개념이었다면, 시간과 공간은 동일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에게 있어서 실체의 동일성이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는 것”(II,27,4)이다.

⑤-2. 인간의 동일성

동일한 사람의 동일성은 같은 유기체에 계속해서 생명을 주도록 결합된, 끊임없이 흐르는 물질의 분자들에 의한 동일한 계속되는 생명의 참여 이외의 다른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왜냐하면 만일 영혼의 동일성만이 동일인을 만든다면 그리고 물질의 성질 속에는 동일한 개별적인 영혼이 두 다른 물체에 결합되지 말아야 될 아무 것도 없다면 먼 시대에 생존하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동일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II,27,7)

인간의 동일성에 대한 로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인간의 동일성과 인격의 동일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인간의 동일성이라는 말로 다루고 있는 바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체’의 동일성이다. 따라서 동물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즉 일정한 유기적 조직의 존속이 인간 동일성의 기준이 된다. 로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 인간의 영혼을 동일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두 신체에 하나의 영혼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혹은 과거에 살았던 동일한 영혼이 현재에도 다른 신체에 깃든다고 하는 용인하기 어려운 가정을 용인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3. 인격의 동일성

인격이란 “이성과 반성을 가지고 그 자체를 그 자체로서 즉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동일한 사유하는 사물로서 고찰할 수 있는 사유하는 지적인 존재”(Ⅱ,27,9)로 정의된다. 인격은 사유에 본질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식에 의해서만 그것을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가 지각한다는 것을 지각함이 없이는 지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냄새 맡는다든가, 느낀다든가 [...] 혹은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그것은 항상 우리의 현재의 감각과 지각에 관해서이고, 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자아가 동일한 실체에 계속되는가 하는 것은 고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사유를 수반하여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에 의해서 그 자신을 모든 다른 사유하는 사물들과 구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만 인격적인 동일성 즉 이성인 존재의 동일성이 성립하며, 이 의식이 어떤 과거의 행위나 사고로 거슬러 확대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동일성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자아인 것이며 그 행위가 행해졌었던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 현재의 자아와 동일한 자아에 의해서인 것이다.

⑥ 명석 판명한 관념과 애매 혼란한 관념

“단순 관념에 있어서 애매성의 원인은 무딘 기관에 있거나 대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미하고 순간적인 인상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진 관념들을 지탱할 수 없는 기억의 연약성에 있다.”(Ⅱ,29,3) “명백한 관념이, 잘 배치된 기관에 적절히 작용

하는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만되고 명료한 지각을 마음이 가지는 것인 것처럼, 판명한 관념은 마음이 모든 다른 것과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동된 관념은 마땅히 그것과 달라야만 하는 어떤 다른 것과 충분히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Ⅱ,29,4) 혼동을 야기하는 이유는 “첫째, 어떤 복합 관념이 너무 적은 수의 단순 관념들로 구성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그 차이들이 그것에 의해서 다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물들에 공통되는 그러한 것만이 제외될 때, [...] 둘째, 우리의 관념들을 혼동되게 하는 다른 또 하나의 결함은, 비록 어떤 관념을 구성하는 세목들이 수에 있어서 충분하기는 하나, 그것들이 아주 뒤편벽이 되어서, 그 관념이 어떤 다른 이름보다도 그것에 주어진 그 이름에 더 속하는지의 여부를 쉽사리 식별할 수 없을 때”(Ⅱ,29,7-8) 발생한다.

⑦ 실재적 관념과 상상적 관념

“실재적 관념(real idea)에 의해서 나는 자연에 어떤 기초를 가지는 그러한 것 실재의 존재물과 사물의 존재, 혹은 그들의 원형과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Ⅱ,30,1) 또한 “자연에 아무 기초가 없고 그들 관념들이 그들 원형에 관해서 암암리에 관계지어진 그 존재의 그 실재성과 아무 일치성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나는 상상적 또는 공상적 관념(fantastical or chimerical idea)이라 부른다.”(Ⅱ,30,1) 그래서 단순 관념들은 모두 실재적 관념이다. “왜냐하면 단순 관념들에 있어서는 마음은 전적으로 마음에 대한 사물들의 작용에 국한되며, 그것이 받아들인 것 이상의 어떤 단순 관념도 스스로에 대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Ⅱ,30,2) 그러므로 상상관념은 복합 관념에서만 등장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실제

의 복합 개념이 사물의 존재와 일치할 때에는 실재적이다.

⑧ 적합한 관념과 부적합한 관념

실재적 관념 중에는 적합한 관념도 있고, 부적합한 관념도 있을 수 있다. 적합한 관념은 그 원형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표상을 말하고, 부적합한 관념은 그 원형들의 부분적인 표상이나 불완전한 표상을 말한다.(Ⅱ,31,1) 단순 관념은 모두 적합한 관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각을 우리 속에 일으키도록 신에 의해서 정해졌고 또 능력이 주어진 사물에 있어서의 어떤 힘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들 관념들은 그들 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없고 적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Ⅱ,31,2) 나아가 양태의 관념들 역시 적합한 관념인데,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실재의 원형 혹은 불변의 원형에 관계함이 없이 모아진 단순 관념들의 임의적인 수집물이기 때문”(Ⅱ,31,3)이다. 그러나 실체관념의 경우에는 그것이 실재의 본질과 관계짓는 경우이든, 성질의 집합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든 부적합한 관념이다. 왜냐하면 실체 자체는 ‘알려지지 않는 그 무엇’이므로 실체의 관념은 대상의 본질도 성질의 집합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IV. 언 어

1. 관념의 표지로서의 언어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낱말(word)이 [...] 사람들에게 의해 관념의 기호(sign)로서 사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별적인 분절음이나 관념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자연적 연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단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임의적 부과에 의해서만 관념의 기호로 사용되고, 이에 의해 어떤 특정한 낱말은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관념의 표지(Mark)가 된다. 그러므로 낱말의 용법은 관념의 감각적 표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낱말이 상징하는 관념은 그 낱말의 고유하고 직접적인 의미이다.(Ⅲ,2,1)

여기에서 로크는 언어 또는 낱말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낱말은 소리들이나 관념들의 자연적 연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낱말은 관념의 감각적 표지 또는 기호이다. 셋째, 낱말(또는 낱말의 기호)는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우리의 관념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로크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므로 하나의 낱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어떤 기호를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적 규약에 맡겨져 있다. 반대로 적절한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앵무새에 의해 그 소리만 모방되고 있을 뿐 어떠한 관념과도 상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 또는 낱말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 또는 낱말은 언제나 상응하는 관념의 임의적 표지이다.

(1) 언어의 필요성과 임의성

로크에 따르면 관념은 대상(의 성질)과 상응한다. 즉 관념은 어떤 의미에서 대상(의 성질)의 자연적 기호이다. 그리고 이 기호는 대부분 대상(의 성질)이 우리에게 미치는 자극이나 힘에 의한 결과이고, 특히 단순 관념은 감각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일 수 없다. 그렇지만 관념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의 인식주관 안에서만 존립하는 것이므로 사적일 수밖에 없다. 로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회적 존재로서 창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적인 관념을 상호 소통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관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적인 표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또는 낱말)

이다. 언어(또는 낱말)은 관념과는 달리 대상(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과 관계된 것이므로 어떠한 기호나 소리로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2) 부정어와 관념의 관계

모든 낱말에 상응하는 관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모, 붉음, 금, 사람, 유니콘, 천사 등등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관념이 있다고 하겠다. 즉 단순 관념이든 복합 관념이든, 또 실재하는 대상이든 사고 속에서 임의로 구성한 허구물이든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념이 있다. 그렇다면 무(nothing), 불모(barrenness) 등의 낱말은 어떤가? 이런 낱말들에는 상응하는 관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크는 “부정이나 결여를 나타내는 모든 낱말이 어떠한 관념에도 고유하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관념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Ⅲ, I, 4)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관념도 의미하지 않는 낱말은 완전히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할 텐데, 우리는 부정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므로, 그 낱말들은 무의미한 소리가 아님에 틀림없다. 이런 낱말들도 관념과 연관되어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긍정어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관념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불변화사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의 이름인 낱말들 이외에 마음이 관념들이 명제들 또는 그것들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 이 낱말을 일반적으로 불변화사라고 부른다.(Ⅲ, 7, 1)

앞에서 로크는 낱말은 마음의 관념을 나타내는 기호 또는 표지라고 하였다. 설혹 그 낱말이 지시하는 관념이 없는 부정어의 경우에도 그 낱말은 관념의 부재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관념의 표지이다. 그런데 관념의 표지일 수 없는 낱말이 있다. 이를 통상 불변화사 또는 접사라고 부른다. 불변화사는 단지 관념들 간의 관계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또는 추론이나 서술인가 등만을 표시할 뿐, 상응하는 관념이 있을 수 없다. 로크는 불변화사에 접속사나 전치사, 계사 등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불변화사는 관념들(또는 관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나 태도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불변화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낱말과 관념 간의 관계에 그 어떤 불완전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변화사의 필요성은 낱말을 관념의 임의적 기호로 정의하는 것이 불충분함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언어의 불완전성

(1) 대상, 관념, 낱말의 대응

낱말들을 의사 소통의 목적에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내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관념을 듣는 사람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필요하다.(Ⅲ,9,6)

로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즉 낱말들이 상이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관념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런 의문은 사실 로크의 이론 자체에 내재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낱말은 관념의 임의적 표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호로 동일한 관념을 지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관념은 한 주관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므로 쌍방 간에 동일한 기호로 동일한 관념을 지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을 보고 노란색의 관념을 가지고, 그 관념을 ‘노랑’이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상의 장애를 가졌으나 장애를 가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황금과 같이 다른 사람이 노란색으로 지각하는 성질을 언제나 초록색으로 지각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색을 지칭하는 낱말을 ‘노랑’이라고 배우고 자신도 그렇게 말한다. 이런 경우 양자는 동일한 낱말을 가지고 동일한 관념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낱말을 공적인데 반해, 관념은 사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로크적 언어관의 한계 중 하나이다.

(2) 복합 관념과 낱말의 대응

그러므로 대부분 도덕적인 낱말들과 같은 매우 복합적인 관념들의 이름은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좀처럼 동일하고 정확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복합 관념은 다른 사람의 것과 좀처럼 일치하지 않으며, 종종 그 자신의 것, 그가 어제 가졌거나 또는 내일 가질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Ⅲ,9,6)

언어가 가진 한계 중 또 하나는 표시하는 경우이다. 복합 관념을 표시하는 낱말의 경우 그 낱말이 관념과 정확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복합 관념은 마음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해 다양한 단순 관념들을 임의로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런 까닭에 상이한 사람들이 동일한 기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기호에 상응하는 내용(관념)까지 동일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복합 관념 중 혼합 양태는, 예를 들어 아름다움, 의무 등은—설사 이 낱말들의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한 동일성을 가지고 정의될지라도—동일한 사람에게도 그때 그때마다 경험되는 상태

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양자의 정확한 상응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어떤 낱말이 정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어떤 낱말이 그에 상응하는 관념을 정확히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3) 언어의 오용

내가 여기서 예들을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읽고 대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또는 만약 그가 더 좋은 예들을 축적하기 원한다면, 이런 종류의 용어들을 만드는 위대한 조폐국장들(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소콜라 철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이다. 요즈음의 논쟁적인 자연철학자들과 도덕 철학자들을 이들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이 그를 만족시킬 자금을 넉넉하게 갖고 있다.(Ⅲ,10,2)

또 다른 낱말의 오용은 낱말들을 그 낱말들이 결코 지시하지 않는 또는 지시할 수 없는 대상에 위치지우는 것이다.(Ⅲ,10,17)

웅변술은 마치 여성처럼 그 안에 너무 탁월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결코 자신에게 욕을 하게 내버려 두지 못한다.(Ⅲ,10,34)

언어가 갖는 본래적인 불완전성에 덧붙여 비본래적인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로크는 매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낱말의 오용이다. 로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분류해서 다루고 있다. ① 아무런 관념도 또는 그 어떠한 명백한 관념도 표시하지 않는 낱말의 사용, ② 일관되지 못한 낱말의 사용 ③ 잘못된 사용에 의한 혼동 ④ 낱말과 사물이 서로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⑤ 지시할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 ⑥ 낱말들이 정확한 지시체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

⑦ 비유나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 낱말들의 오용은 이와 같이 많은 잘못된 원천이다. 로크는 명백히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여겼다. 왜냐하면 『인간지성론』의 맨 마지막에서 그는 기호학을 연구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의 커다란 도구로서 관념들과 낱말들에 관한 고찰은 인간 지식을 그것의 전체 범위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숙고의 보잘것없는 부분을 이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마도 만약 그것들이 명료하게 평가되고 정당하게 고려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논리와 비판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IV,21,4) 그러나 로크의 제안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에 불과하다.(F. 코플스톤, 『영국경험론』, 144쪽 참조)

3. 언어와 보편성의 문제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일반 용어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개별자들이므로, 어떻게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얻는가, 또는 우리는 그것들이 나타난다고 상정되는 일반적인 본성들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III,3,6)

여기에서 로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아주 분명하다. 언어나 낱말들은 관념들의 표지이지만, 관념들은 매번 달라지며, 우리는 경험상 무수히 많은 관념들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언어나 낱말들도 그에 상응해서 무수히 많아져야만 하는데, 이런 일은 불가능하고(III,3,2), 또는 유용하지도 않다(III,3,3).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낱말이 고유 명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 용어나 낱말이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지닌 성질이나 사물들을 대표해서 표시하는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낱말들에 상응하

는 관념은 무엇인가?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런 낱말들에도 상응하는 관념이 있음을 로크는 해명해야 한다.

(1) 일반 용어와 추상 작용

관념들은 그것들을 어떤 한 개별적인 존재로 결정하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들과 그 밖의 다른 관념들을 그것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일반적이 된다.(Ⅲ,3,6)

그렇다면 일반적인 낱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들의 한 종류이다. 그것들 각각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추상관념의 기호가 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물들이 그 관념에 일치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사물들은 그 이름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결국 같은 것이지만, 그 종류가 되게 된다.(Ⅲ,3,12)

우리는 앞서 복합 관념의 형성에 관해 논할 때, 마음의 추상 작용에 대해 로크가 언급하였음을 기억한다. 추상 작용이란 다양한 사물들의 성질들 중에서 공통된 요소들만 추출하여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거나, 백묵이나 소금 등 다양한 사물들에 있는 색을 보고 그 색만을 추출하여 ‘흰 색’이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추상 작용이다. 일반용어는 바로 이러한 추상 작용을 통해 획득된 관념에 대한 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용어는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그 개별적인 속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그 속성들이 속할 수 있는 하나의 종류를 지칭한다. 일반용어의 문제는 이와 같이 추상 작용을 통해 해명되었지만 그로 인해 그 용어가 지시하는 바의 관념이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2) 일반용어와 객관성

의사소통에 있어서 낱말의 의미의 일관성이 낱말과 그것의 관념 간의 대응 관계의 일관성이 상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앞서 지적하였다. 또한 관념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상(또는 대상의 성질)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낱말을 통해 대상에 관해 의사 소통하는 것은 대부분 그 대상과 거의 무관한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사 소통을 신뢰할 수 있는가? 특히 그가 “빗각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도, 등변 삼각형도, 등각 삼각형도, 부등변 삼각형도 아니면서 이 모든 것임과 동시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어야 한다. [...] 그것은 그 안에 여러 다른 모순되는 관념들의 어떤 부분들이 한데 뭉쳐진 하나의 관념이다.”(IV,7,9)고 말한 바를 생각해 볼 때, 로크에게서 언어 사용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3) 추상 작용과 본질

1) 본질

본질이란 어떤 사물을 바로 그것에게끔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 그리하여 실재적·내적, 일반적으로는 실체 안에 있는 사물의 알려지지 않는 구조가—거기에 그 사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질들이 의존한다—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그 근본적 표기에 있어서 ‘고유하게 있음’(properly Being)을 의미하는 에센치아(Essentia)라는 말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의미이다.(III,3,15)

위의 인용문에서 로크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상당히 배제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어원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이 있다면, ‘금’을 ‘금’에게끔 하는 그 무엇—이것을 노란색의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이 매우 큰 어떤

것이라고 하든, 왕수에 잘 녹는 것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 밖의 무엇이라고 하든— 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금의 ‘본질’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금을 금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과연 본질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것이 있거나 한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철학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점에 대해 로크는 실재적 본질과 명목적 본질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2) 실재적 본질

[실재적 본질들에 관한] 다른 더 합리적인 견해는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그것들의 감각 불가능한 부분들의 실재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구조(우리가 사물들을 공통 명칭들로 분류하는 계기를 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들을 서로 구별하도록 도와 주는 감각 가능한 성질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를 갖는다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이다.(Ⅲ,3,17)

로크가 ‘실재적 본질’이라는 말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위에서 설명한 ‘본질’의 기본적·어원적 정의를 엄두에 둔 것이다. 그 정의에 따르면 본질이란 ‘어떤 대상을 그 것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다. 그런데 로크에 의하면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관념이 반드시 의식 외부로 존재하는 대상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의식 외부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의식에게로 전해오는 그 어떤 작용(로크는 이를 주로 ‘힘’ 개념이나 물리적 자극으로 설명한다)이 있기 때문에 관념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부에는 그 어떤 대상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상이게끔 만드는 속성, 즉 본질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 바로 그것을 ‘실재적 본질’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실재적 본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성립한다.

로크가 ‘실재적 본질’을 상정하면서도 그 본질이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이는 분명히 통상 우리가 ‘합리론’이라 부르는 철학적 입장에 대한 명백한 비판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물체를 실체라고 부르고, 그 속성을 연장이라 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로크식의 용어로 하자면, ‘실재적 본질’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 된다. 로크가 보기에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실체니 속성이니 연장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복합 관념이고, 특히 지성의 추상 작용에 의해 고안된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명목적 본질

하나의 본질이라는 낱말을 자신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며 사물들이 그 본질들 가운데 각각을 정확히 나누어 가져서 어떤 한 종이 되게 되는 그런 다수의 본질들을 상정하는 사람들의 견해이다.(IV,7,9)

제 학과들이 유Genus와 종Species에 관해 더 많이 연구하고 논쟁함에 따라, 본질Essence이라는 말은 그 본래적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질이라는 말은 사물들의 실재적 구조에 적용되는 대신 거의 전적으로 유와 종이라는 인위적 구조에 적용되고 있다.(III,3,15)

전통적인 ‘본질’의 의미를 ‘실재적 본질’로 규정하고 그것을 비판한 로크는 유와 종개념을 통해 분류되는 제 사물들의 특징을 실재적 본질과 구분하여 ‘명목적 본질’이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금’에 대해 그것은 금속의 한 종류이고, 노란색을 띠며, 왕수에 작 녹고, 다른 금속에 비해 연성과 전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만 우리가 그 사물을 금으로 분류하고 다른 금

속이 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이렇게 단지 분류와 구분의 기준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사람들은 ‘본질’이라는 명칭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이를 ‘명목적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본질이 사물의 실재적 구조에 상응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4) 추상 작용과 명목적 본질

이름이 나타내는 추상관념과 그 종의 본질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Ⅲ,3,12)

각각 별개의 추상관념은 별개의 본질이다.(Ⅲ,3,14)

‘본질’은 지성의 추상 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복합 관념이다. 위에서 구분하였듯이 로크는 ‘실재적 본질’과 ‘명목적 본질’을 구분하다. ‘실재적 본질’은 우리의 인식이나 관념과 무관하게 그 사물에 본래적으로 내재하여 그 사물을 그 사물이게끔 한다. 따라서 ‘실재적 본질’은 사물의 불변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된다. 그런데 로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념뿐이고, 더욱이 추상 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복합 관념은 지성의 능동적인 관념 결합 작용의 결과이므로, 로크가 본질을 추상 관념이라고 하였을 때, 그 본질은 ‘명목적 본질’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추상관념은 별개의 본질이며, 별개의 본질은 별개의 이름을 갖는다. 그리고 로크의 이런 주장에는 우리가 추상 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본질이 ‘실재적 본질’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사물의 실재적 구조와 유사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배경에 깔려 있다.

V. 지식

1. 지식 일반

마음은 그것의 모든 사고와 추론에 있어서 마음만이 주시하거나 주시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관념들 이외의 어떤 다른 직접적인 대상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지식이 단지 관념들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IV,1,1)

굳이 플라톤은 지식(epistēmē 에피스테메)를 참된 앎이라고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식이란 진리의 획득과 관련된다. 칸트에 의하면 “고래의 유명한 문제는 진리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였으며, “그 무렵에 진리란 지식(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다.”(KrV. B82)는 명목상의 정의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한다. 로크에 관해서도 진리란 ‘지식(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라는 정의가 적용된다. 다만 문제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상기한 인용문에서 보듯이 로크는 명시적으로 ‘그 대상’이 관념뿐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식이란 관념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지식의 문제는 우선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 모순, 연관 관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IV,1,2)

(1)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관념과의 일치’라고 하는 것과 관념들 간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관념과 그 관념을 야기시킨 대상과의 일치’를 말하고 후자는 ‘여러 관념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치’를 말한다. 로크는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의 형태에 대한 구분이기도 하다. 관념들의 일치와 불일치의 첫 번째 형태는 동일성과 다양성(identity and diversity)이

다. 백묵의 ‘희고 긴 원통 모양’이라는 관념은 다른 백묵의 그 관념과는 동일하지만, 칠관의 ‘초록색이고 평평한 모양’의 관념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상대적 관계(relation)이다. ‘10’은 ‘9’보다 크지만 ‘11’보다 작다. 즉, 상대적 관계는 관념들의 간의 비교에 있어서 일치나 불일치를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존 또는 필연적 연관성(co-existence or necessary connection)의 문제이다. 이는 여러 관념들이 하나의 실체에 공존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일치여부를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재적 대상과의 일치여부이다.

(2) 실재적 대상과의 일치 여부

실재적 대상과의 일치 여부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책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되었고, 우리가 본 그 대상이 실제로 책상일 때, 양자는 상호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당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그러나 거듭 지적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단지 관념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관념과 그 관념의 대상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로크는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응설’과 ‘표상적 실재론’ 항목을 참조하자.

2. 지식의 등급

(1) 직관적 지식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마음은 어떤 다른 것의 간섭을 받지 않고 두 관념들의 일치나 불일치를 그것들만으로 직접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직관적 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전 지식의 확실성과 증거가 의존하는 것은 바로 이 직관이다.(IV,2,1)

로크가 직관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수학적 지식이다. 수학적 지식은 두 관념들의 일치나 불일치를 오직 그 자체로 지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로크의 주장은 일견 그의 경험론적 전제들과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의자가 아니고 책상이다’는 언어의 오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잘못된 지각에 의해 생겨나는 오류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 $2+3=5$ ’라는 관념은 언어의 오용이 아니라면, 틀릴 수가 없다. 마치 데카르트의 주장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근거는 다르다. 지식의 원천을 관념으로 보는 로크에게 오직 관념 그 자체만의 일치와 불일치에 의해 진위가 결정되는 수학적 지식만큼 확실한 지식은 없다.

(2) 논증적 지식

수학적 지식 다음은 논증적 지식이다. 로크가 생각하는 논증적 지식은 수학적 추론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과 같다’는 명제는 삼각형에 대한 관념과 직각에 대한 관념 그리고 합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다. 즉, 최소한 1단계 이상의 관계 관념이 필요하다. 이는 전형적인 논리적 추론인 삼단 논법이 언제나 매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따라서 직관적 지식인 수학에 비해 관념들의 일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증적 지식은 그 만큼 덜 확실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직관적 지식과 논증적 지식

“직관적 지식과 논증적 지식에 관한 로크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면에서 합리론자 데카르트의 이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기하학과 같은 과학에서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직관>과 <연역>이라는 두 정신적 능력에 의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설명의 기본 정신은 로크가 말한 <직관>과 <논증>에 그대로 연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관이 지적인 작용이고 연역 또는 논증이 이성의 작용이라면 로크도 지적 또는 이성적으로 획득되는 지식을 인정한 셈이고 따라서 바로 이 점에서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주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극단적 경험론자로 알려진 흄의 지식론도 이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흄도 로크를 따라 소위 <관념들의 관계relations of idea>와 <사실의 문제matters of fact>를 엄격히 구별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확실한 지식은 전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영역에 관한 지식획득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지식은 <우주의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즉 어떤 경험 세계도 들여다 볼 필요 없이 <단순한 사유작용mere operation of thought>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 흄이 말한 <단순한 사유 작용>이란 바로 로크가 말한 <직관>과 다를 바 없고, 또 데카르트가 말한 지적 능력으로서의 직관과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자명한 지식들이 본유적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에 가서는 양쪽 노선의 입장이 달라진다.”(김효명, 『영국경험론』, 55-6쪽)

(4) 감각적 지식

지식의 가장 하위 등급은 감각적 지식이다. 감각적 지식은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해 감각을 통해서 관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념들의 일치 여부는 사실상 자신들의 과거 관념과 현재 관념의 일치 여부가 된다.(이 점에 대해서는 대응설 부분을

참조할 것) 그런데 감각적 지식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다. 따라서 관념들의 일치여부가 지식의 근거라는 주장에 고려해 볼 때, 감각적 지식은 원천적으로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 관해서 설사 양보한다하더라도 감각적 지식은 과거 관념과 현재 관념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착각이나 오류 판단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증적 지식에 비해 확실성이 분명히 낮은 단계에 있다.

3. 지식의 범위

로크는 앞서 지식을 세 등급, 즉 직관적 지식, 논증적 지식, 감각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지식이란 관념들 간의 일치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지식의 확장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로크는 “우리는 우리가 관념들을 가진다는 것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없다”(IV,3,1)고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은 우리가 가진 관념들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지식의 네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로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자.

(1) 동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확장

로크가 관념들의 일치 여부에 대해 첫 번째 분류로 제시한 것은 관념들의 ‘동일성과 다양성’이다. 관념들의 동일성과 다양성에 관한 지식은 그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념의 한계가 곧 확장의 한계가 된다. 왜냐하면 관념들의 동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식은 그 관념을 가짐과 동시에 지각되기 때문이다.

(2) 공존에 관한 지식의 확장

공존에 관한 지식이란 결국 다양한 단순 관념들이 하나의 실체에 있어서 공존하는 것임을 아는 것에 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 관념들을 그렇게 결합하는 힘은 지성이나 의지에 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능동적인 임의적 결합에 의해서 성립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관념들이 얼마나 대상과 일치하는지 또는 관념들 간의 결합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체들에 관한 우리 지식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식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빈약하다.”(IV,3,9)

1) 과학적 지식의 한계

우리는 일반적인 물체들의 이러한 제1성질의 관념들을 갖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것을 가지면 반드시 우주의 물체들의 가장 큰 부분의 특정한 부피와 모양, 운동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매일 보는 결과들을 산출하는 작용의 여러 힘과 효력, 방식들은 모른다.(IV,3,24)

이것은 자연적인 물체들에 관한 보편적 진리들에 관한 우리의 확실한 지식을 방해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만 우리를 개별적인 사실 너머로 거의 이끌지 못한다.(IV,3,25)

로크가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해 언명하는 것을 보면 훗날 D. 흄에 의해 전개될 회의론을 예견하게 만든다. 관념들 간의 필연적 연결을 지각하는 수학적 지식과는 달리 과학적 지식은 실재적 대상과 우리 관념의 연결을 지각함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관념이 실재적 대상과 얼마만큼이나 필연적인 연결 관계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제1성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분명히 실재

적 대상과 상응한다고 로크는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힘과 작용에 의해 양자가 필연적으로 상응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아가 제2성질이나 제3성질 그리고 성질들의 담지자인 실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분명히 대상들의 힘과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과 작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관념들이 그것들과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적 대상들에 대한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지식은 사실상 그 확실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확장 역시 매우 한계지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보편적 진리를 알아내는 진정한 ‘과학’이 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개별적 사물이나 성질, 사건에 대해서만 참된 언명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수많은 관념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은 관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3) 관계적 지식의 확장

우리 지식의 세 번째 종류, 즉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에 대해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식의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진보는 그것들의 공존이 고려되지 않는 관념들의 관계와 습성들을 보여줄 매개적 관념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 우리의 총명함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IV,3,18)

로크가 관계적 지식에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학적 지식이며, 다음으로는 도덕적 지식이다. 수학적 지식은 직관과 논증에 의거하는 지식인데, 관념들 간의 일치라고 하는 점에서 보자면, 수학적 지식은 직관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수학은—대수학과 기하학을 떠올리자—각

각의 관념들 간의 수많은 관계를 논증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아직 결정할 수 없다. 도덕적 지식 역시 관계적 지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역시 그 한계를 짐작하기 어렵다.

(4) 사물의 존재에 관한 지식

우리 지식의 네 번째 종류, 즉 사물의 실재적, 현실적 현존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직관적 지식을 가지며, 신의 현존에 관해서는 논증적 지식을 갖는다. 그 밖의 나머지 사물들이 현존에 관해 우리는 감각적 지식 외에는 가질 수 없으며, 이 지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현전하는 객체 너머로 확장되지도 않는다.(IV,3,21)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직관적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데카르트적인 실체적 자아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로크가 “만약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의심한다면, 바로 그 의심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IV,9,3)고 말할 때, 이는 확실히 데카르트를 연상하게 만든다. 데카르트는 의심을 통해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를 발견하였지만, 로크는 단지 의심하는 한에서도 자신의 존재는 아무런 증명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지각됨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은 무한하며, 전지전능하고, 시공의 제약을 초월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로크에게서 이렇게 신의 관념을 형성하는 내용들은 모두 복합 관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복합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무한성’의 관념을 떠

올려 보자—수많은 단순 관념들의 관계와 그 관계에 기초한 추론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무한성’의 관념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많은 과정을 생략한 채로 학습을 통해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에 관한 지식은 논증적 지식에 해당하며, 일부 철학자(로크가 생각하는 본유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비논증적인 직관적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사물의 현존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고, 다음에도 한번 더 언급하게 될 것이다. ‘대응설의 문제’, ‘감각적 지식’, ‘지식의 확실성’ 등의 항목을 참조하자.

4. 지식의 확실성

마음은 직접적으로 사물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사물들에 관해서 가지는 관념들의 개재에 의해서만 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은 우리 관념들과 사물들의 실재가 일치하는 한에서만 실재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마음이 단지 그것 자체의 관념들만을 지각할 때, 마음은 어떻게 그 관념들이 사물들 자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IV,4,3)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많은 곳에서 간략히 다루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념만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지식은 물론 그 존재여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는 만약 첫 번째가 의심스럽다면, 우리가 가진 각종의 지식의 확실성 또는 보편타당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다시 로크가 분류한 각종의 지식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되, 이미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

수학적 지식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직관과 논증에 의거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것의 확실성을 위해서 관념들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고, 오직 관념들 간의 관계만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수학적 지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확실성과 보편성에 있어서도 최상에 위치하게 된다.

(2) 도덕적 지식의 확실성

[수학적 지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덕적 논의들의 진리와 확실성은 사람들의 삶과 그것들이 다루는 세계 내의 덕들의 존재로부터 분리된다. 또한 툴리의 의무들-키케로의 『의무론』-은 그가 우리에게 제시했으나 그가 그것을 썼을 때 그의 머릿속 이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한 고결한 사람의 본보기에 따라 생활하면 그의 규칙들을 정확히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덜 진실한 것도 아니다.(IV,4,8)

우리는 통상 도덕적 규칙이나 선에 대한 의무에 대한 지식은—그것의 유래와 원천이 사회적 규약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든, 본유 관념이라고 생각하든—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의 연관 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지식은 외부 대상과 일정한 상응관계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그 타당성과 확실성은 항상 의심스러운 일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로크가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도덕적 지식의 원형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성품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자의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관념들 간의 결합에 의한 산물이다. 그러므로 수학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오직 관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만이 도덕적 지식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 정도만큼의 확실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3)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실성

우리 마음 안에 흰색이나 쓴맛의 관념을 산출할 어떤 물체 안에 있는 힘들에 정확히 부합하는 우리 마음 속의 흰색이나 쓴맛의 관념은 그것이 가질 수 있거나 또는 가져야만 하는 우리 밖에 있는 사물들과의 모든 실재적인 일치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의 단순 관념들과 사물들의 존재 사이의 이 일치는 실재적 지식에 충분하다.(IV,4,4)

어떤 단순 관념들이 실체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들을 자신을 갖고 다시 결합시킬 수도 있으며, 따라서 실체들의 추상 관념들을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자연에서 결합되었던 것은 무엇이나 다시 결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IV,4,12)

로크는 분명히 단순 관념들은 마음에 미치는 외부 대상들의 작용에 의해 획득된다고 하였고, 또 외부 대상의 ‘흰 색’에 대하여 우리는 ‘흰 색’의 관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단순 관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적 지식을 가져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복합 관념은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사 그 관념이 한 실체 안에 공존하는 것으로 발견되더라도, 마음이 임의로 해체하고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합 관념은 외부 대상과 반드시 상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은 지식의 확실성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단지 개연적 확실성만을 보장할 수 있을 뿐이다.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관념과 마음에 대한 외부 대상의 작용 간에 그 어떤 필연성을 지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로크에게서는 이를 지각할 방도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관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로크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신이라고 부를지 부르지 않을지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것은 명백하며, 정당하게 고려된 이 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원한 존재에 돌려야만 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이 쉽게 연역될 것이다.(IV,10,6)

과연 로크는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에 확실성을 부여하였을까? 그가 신의 관념을 복합 관념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복합 관념에 있어서 확실성을 부여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이 수학적 지식과 도덕적 지식뿐임을 고려한다면, 신 존재에 대한 지식에 확실성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크는 외부 대상의 현존을 인정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의문이 발생한다. 그것은 외부 대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는 “단지 무가 어떤 실재적 존재를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두 개의 직각과 같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IV,10,3)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외부 대상의 현존하게 만든 그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관념을 초월함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관념들은 모두 외부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단순 관념들로 환원될 수 있는데, 그 외부 대상을 존재하게끔 만든 그것은 그 외부 대상 너머에 있으므로 우리들에게 그 어떤 관념을 안겨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를 ‘신’이라 부르던 그렇지 않던 그와 같은 존재자가 있음은 확실하다.

(5) 판단

우리 마음은 진리와 허위와 관계하여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식이다. 지식은 어떤 관념들의 일치나 불일치를 확실히 지각

하며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둘째는 판단이다. 판단은 관념들의 어떤 일치나 불일치가 지각되지는 않지만 그러리라고 추정될 때, 마음 안에서 관념들을 모으거나 서로 분리하는 것이다. [...] 그리고 만약 관념들을 실재에 있어서 사물들이 그런 것처럼 결합하거나 분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다.(IV,14,4)

지식과 판단에 대한 로크의 구분을 관념들 간의 일치 여부인가 아니면 관념들과 외부 대상과의 일치 여부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지식은 수학적 지식과 도덕적 지식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외의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은, 비록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의 정당한 명칭은 ‘판단’이다. 판단은 우리 관념과 외부 대상과의 일치 여부가 진리 주장의 관건이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판단은 단지 개연성만을 확보할 수 있을 따름이다.

(6) 개연성

로크는 “틀리기 쉬운 증거들에 대한 일치의 현상”(IV,15,1)을 개연성으로 정의한다. 그러한 판단에 대해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지식과 관찰, 경험과 어떤 것의 일치”(IV, 15,4)이다. 이는 나의 경험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이제까지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으므로,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은 경험적 자료의 정도에 따라 개연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둘째는 증언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상호 비교하고 거기에서 일치점이 발견되며, 그 판단은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게 된다. 증언은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관찰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관찰 가능한 것들에 대한 증언은 직접적 확인을 통해 그 판

단의 개연성의 정도가 결정되지만, 관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증언, 예를 들어 천사의 존재나, 열은 “불타는 물질의 지각 불가능한 미세한 부분들의 격렬한 동요”(IV,16,12)라는 등의 주장은 직접적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비에 의해서 그 개연성이 정해진다.

(7) 이성과 신앙

우리는 신으로부터의 어떤 계시가 참이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신앙은 동의와 확신의 고정되고 확실한 원리이며, 의심이나 망설임의 여지가 없다.(IV,16,14)

지식의 확실성에 관해서 우리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인 것 중 하나는 로크가 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에 확실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로크의 주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에 의한 지식의 확실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크는 신의 증언인 계시를 참된 언명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광신’에 의한 증언과 계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로크가 답하고 있는 것은 신의 계시는 인간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광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IV,19,14).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스럽다.

참·고·문·헌

어네스트 바커 외 지음, 강정인/문지영 편역, 『로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5.

마이클 에이어스 지음, 강유원 역, 『로크』, 궁리, 2003.

우드 톨 지음, 이남석 역, 『로크』, 한길사, 1998.

F. 코플스톤 지음, 이재영 역, 『영국 경험론』, 서광사, 1991.

R. 사하트 지음, 정영기/최희봉 역, 『근대 철학사』, 서광사, 1993.

김효명 지음, 『영국 경험론』, 아카넷 대우학술총서, 2001.

백종현 지음, 『서양 근대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1.

_____, 『존재와 진리: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근본문제』, 철학과 현실사, 2000.

I. 칸트 저,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박영사, 1972.

_____, 『판단력비판』, 박영사, 1974.

데카르트 저, 최명관 역저, 『방법서설, 성찰, 데카르트 연구』, 서광사, 1983.

Thiel, U., *Locke: Epistemology and Metaphysics 1067*, Ash- gate, 2002.

Ashcraft, R., *John Locke: v.1-4, Critical Assessment*, Routledge, 1991.

Parry, G., *John Locke*, G. Allen & Unwin, 1978.

Rogers, G. A. J., *Locke's Philosophy: Content and Context*, Clarendon Press, 1994.

Dunn, J., *Locke*,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Volton, J. W., *A Locke Dictionary*, Blackwell, 1993.
- _____, *John Locke: Problems and Perspectives: A Collection of New Essay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69.
- Gibson, J., *Locke's Theory of Knowledge and its Historical Relation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68.
- Bennett, J. F., *Locke, Berkeley, Hume: Central Themes*, Clarendon Press, 1971.
- Leibniz, G. W.,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96.
- Chappell, V. C., *The Cambridge Companion to Lock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Lock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Lowe, E. J., *Locke on Human Understanding*, Routledge, 1995.
- Jolley, N., *Locke: His Philosophical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Tipton, I. C., *Locke on Human Understanding: selected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Mackie, J. L., *Problems from Locke*, Clarendon Press, 1976.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2호

발행일 2004년 6월 10일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878-2117



94 100

ISBN 89-91280-17-X